제주불교성지순례
성지순례전문 ..... (주)다도투어
www.dadoTour.co.kr
TEL 064)724-1185~6

현대불교

山村한과
전통 사찰식으로 만든
주문전화 : 02)720-8829 / 쇼핑몰 : www.sanchon.com
미리추문하세요!!

news.buddhapia.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1월 1일 수요일(주간) 제402호

"한국불교계 인재양성 안되고 있다"

본지 설문 "인식 부족"·"외향적 불사 우선 풍조" 가장 큰 이유

포교·사회참여·신도수준 향상 필요

불자 10명 중 8명은 불교인재양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런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승·재가 교육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승가가 대중의 사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불자도 70%나 됐다. 그러나 한국불교의 미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보다 다소 우세했다. <관련기사 4·5·6면>

이같은 결과는 본지가 2003년 신년 기획특집으로 실시한 '불교 인재양성 및 교육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 따른 것이다. 설문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등 6개 광역시와 경기 강원 경상 전라 충청 제주 등 전국 주요종단 120여 사찰의 신도회 및 청년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남자 273명(39.9%) 여자 411명(60.1%) 등 모두 684명이 설문에 응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7.5%가 인재양성(승·재가 포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그 주된 이유로 '인재양성 인식 부족'(38.1%)과 '외형적 불사 우선 풍조'(32.0%)를 꼽았다.

승가와 재가교육 평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보완 또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부정적 시각이 각각 56.6%와 53.1%로 절반을 넘었으며, '체계 미흡'을 가장 큰 이유로 지적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승가가 대중의 사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53명(66.2%)이 '아니다'라고 답한 반면, '그렇다'는 답은 203명(29.7%)에 그쳤다.

위 세 가지 항목에 대해 여자보다는 남자가, 10~30대 보다는 40대 이후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전망해 달라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38.4%가 '밝다'고 답해, '어둡다'(22.7%)는 답보다 높았다.

'현재를 유지하는 정도일 것'이라는 응답은 37.4%로, 불자들은 대체적으로 불교가 현 상태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불자들은 또 불교발전을 위해 '포교 확대'(20.4%) '승가자질 향상'(17.5%) '사회참여 확대'(15.5%) '신도수준 향상'(14.5%)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불교공부의 주된 방편으로는 '스님 법문'(35.5%) '수행(참선, 기도 정진 등)'(27.5%) '불교교양서적'(17.1%) '경전'(15.7%) 순으로 꼽혔으며, 응답자의 44%가 신도회(청년회)법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동국학원 이사장 정대스님

만장일치 선출, 24일부터 임기 시작

학교법인 동국학원은 12월 23일 동대 회의실에서 제188회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20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사장 정대스님은 2003년 1월 24일부터 임기가 발효된다.

12월 24일 교육부로부터 임명통지를 받은 신임이사장 정대스님은 "신임 동국대 총장을 모시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사장을 맡게 됐다"며 "학원의 모든 일은 이사들과 상의해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사회는 정대스님을 동국학원 이사로 재임명했으며, 12월 23일부터 1월 23일까지의 임기인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한편 관심을 교계의 모으고 있는 동국대 총장 선출과 관련된 내용은 1월말 열리는 추경이사회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새 포교사 279명
박병곤씨 수석합격 영예

포교사 279명이 새롭게 탄생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12월 20일 제8회 포교사고시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조계사 불교대학 조중현 씨와 부산 대광불교대학 박병곤 씨가 수석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68세의 경북불교대학 박주화 씨와 24세의 강진불교대학 박수진 씨는 각각 최고령, 최연소 합격자로 뽑혔다.

합격자를 배출한 38개 불교대학 중 부산불교교육대학이 43명으로 가장 많이 합격했으며, 조계사불교대학(38명), 영남불교대학(20명), 동산불교대학(16명), 부산 대광불교대학(15명)이 뒤를 이었다. 이번 포교사고시에는 416명이 응시, 11월 24일 1차 필기시험과 12월 8일 2차 면접 및 논술시험을 치렀다. 박봉영 기자

틱낫한스님 3월 19일 방한

다보수련원서 명상프로그램 체험 행사 예정

<화>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등 국내 독서계에 '틱낫한 바람'을 몰고 온 틱낫한 스님이 3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 방한한다.



대한불교진흥원과 명진출판사 공동 초청으로 한국에 오는 스님은 방한 기간 중 서울, 부산, 계룡대 등에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평화에 대한 강연회와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템플스테이 형식으로 명상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한불교진흥원 관계자는 "명진출판사와 협의 후 불교행사를 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짤 것"이라고 밝혔다. 틱낫한 스님은 베트남 출신으로, 현재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에서 '플럼빌리지'라는 명상공동체를 이끌고 있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접수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경남: (051)632-0064 대구 경북: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주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청주 충북: (043)258-3282 인천 강화: (032)937-5679 강릉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밀양: (055)353-1196

새해 복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현대불교 임직원 일동



◇더 이상 산이 파괴되지 않기를 바라는 회룡사 스님들이 새해 아침 북한산 관통로 공사현장을 찾았다. 사진=고영배 기자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산은 산이어야 한다

더 이상 산은 경외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의 필요에 따라 멋대로 파헤쳐지는 개발 대상일 뿐이다. 그 좋은 예가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였다. '좀 더 편하게'라는 개발의 관성은 환경 문제를 가볍게 압도해 버렸고, 산사의 수행 환경 문제는 한가한 소리로 치부됐다.

이러한 개발 논리는 북한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서울 부산간 두 시간 주파라는 속도의 신화 앞에 천성산과 금정산은 무력했다. 고산 습지생태의 보고라는 늪도 흔적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남해의 해상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통영 미륵산에는 관광소득 증대를 명목으로 케이블 카를 설치하려 한다. 돈이 가치의 꼭지점에 앉아 있는 이 시대의 우울한 초상이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다. 사람다운 삶의 조건이 자연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다는 양심의 소리는 조금씩 세상을 움직였고, 풀 한 포기도 부처의 몸으로 여기는 불교계에서는 이 시대 공업 중생을 대신하여 오체투지의 기도로 참회했다. 지난 해 여름, 30도가 넘는 뙤약볕 아래서 수경스님을 비롯한 회룡사 비구니 스님들은 뜨겁게 달아오른 아스팔트에 땀을 쏟아냈다. 그 몸짓은 온갖 탐욕에 물든 이 시대야말로 화탕지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했다.

지난 해 여름 북한산 철마선원에서 북한산 지킴이 역할을 했던 종호스님은 "지금은 선방에서 동안거 결제에 중이지만 이 결제가 북한산 수락산 불암산 보호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선방에서 화두를 들고 있는 마음이나 환경 보호를 외치는 마음이 결코 둘이 아니듯이, 수행의 차원에서 북한산 파괴는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은 산이어야 한다. 천년 전에도 산이었고 천년 후에도 산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인간도 인간답게 살아남을 수 있다. 만물을 부처로 섬기는 불자로서는 이러한 신념에 더욱 투철해야 한다. 남동우 기자

신년특집 포함 총 40면 발행

2003년 불교계 무슨 일이… 3면
시방세계-유엔 지정 '세계 담수의 해' 7면
각 종단 종정 신년 법어 9면
불교지도자 계미년 계획 11면
미국 이민 100·포교 40주년 기획 14면
세계의 불교여성지도자들 23면
제8회 신행수기 당선작 발표 24·25면
불자들의 새해 발원 26면
지상 백고좌-조계총림 방장 보성스님 30·31면

신년기획
설문 '불교계 인재양성과 교육 어떻게' 4면
조계종 승·재가 교육체계는 5면
인재양성·활용 실태 6면

사 설

'불심으로 대화합' 원년 열자

지금 이 땅의 한해는 분명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젊은 새 지도자를 맞아 정치적으로 큰 변혁을 예감하고 있으며 그로 하여보다 참신한 시대가 전개되리란 기대감 또한 높다.

하지만 지난해 첨예한 대결로만 치달아 온 선거로 인해 국민들은 너무나 피곤했고, 선택 결과로 드러난 이 땅의 상처는 전에 없이 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첫눈 같은 새 정치를 펴 보이겠다.' 다짐하는 대통령 당선자의 첫 발언도 '분열과 갈등 아닌 화합과 대화로 만드는 나라'가 아닌가.

그렇다. 화합 없이는 정화된 사회, 품위 있는 풍요로운 삶도 통일염원도 이루기 어렵다. 화합에는 갈등상처의 치유가 우선돼야 한다. 치유 없이 어찌 화합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인가. 올 한해를 그래서 국민화합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불교 교단은 이 땅의 갈등구조 치유에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낮은 정치수준과 부조리한 경제구조가 오늘의 문제라 쉽게 생각해 버린다. 정치와 경제구조만 바뀌면 세상이 좋아 질 것이라 믿는다.

과연 그럴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서양 근대 사상이 가져 온 물신주의의 끝없는 추종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로인한 정신의 황폐화, 공허해진 우리들의 마음이 오늘의 온갖 갈등과 상처를 만들어 왔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진리의 부재, 철학의 빈곤이 그 원인으로 이 점을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정신의 혁명'을 일깨운 석가모니 부처님의 종교, 그 '진리의 종교, 마음의 종교'를 전하고 있는 불교 교단, 그리고 불자들이 국민화합을 위한 갈등 치유에 앞장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그동안 '부처님 마음'을 세상에 올바로 전하는데 소홀했던 점 또한 자성해야 할 일이다.

진리는 어떤 권력이나 주의 주장보다 상위의 개념이며 이를 바탕에 두지 않고서는 정치도 경제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의 역할을 해 낼 수 없다. 용수는 대지도론에서 불자가 의지해야 할 것은 진리뿐이라 했다. 그것이 어디 불자뿐이겠는가. 진리의 정법은 중생들의 삶을 요익하고 안락하게 이끄는 최상의 가르침인 것이다. 진리에 대한 믿음과 나라 사랑은 둘이 아니어서 사회통합도 민족통일도 진리의 반석 위에 구축되어야 한다. 진리의 토대 없는 나라사랑이나 민족통일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난한해 우리가 피곤했던 것은 자기만이 옳다며 내편 네 편을 가르는 패거리 의식의 고질적 편견과 득세에만 값어치를 부여하고 이에 환호하는 천박함이었을 것이다. 상대방에 자신과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갈등해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불가에는 상불경(常不輕)보살이 있다. '내가 당신들을 공경하고 감히 가벼이 여기지 않노니….' 우선 불자들만이라도 이 말을 새겨 '모두 상불경보살이 되는' 노력을 시작하자.

그동안 '맑고 향기롭게' 라든가 '인간4사 운동'등 사회를 향한 불가의 메시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며 그 성과 또한 적지 않았다. 이제 한국사회에 화합을 위한 메시지를 만들어 띄우도록 하자. 불자들의 올바른 행이 앞장 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불자들은 진리의 주춧돌을 하나하나 쌓아 가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올해를 불심으로 국민 대화합의 길을 여는 원년으로 삼아보자.

현대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해인사, 재가불자 위한 '제2 도량' 세운다

2천여평 부지에 대규모 친환경 신행공간 마련키로

"시대 요구 부응하는 사찰 모델 제시"

해인사가 개산 1200년 만에 제2의 창건에 버금가는 새로운 신행문화공간을 인근 옛 해인초등학교 부지에 건립한다.

해인사는 지난해 12월 26일 박물관 인근 옛 해인초등학교 자리와 남쪽 상가건물 일부를 포함한 약 2,000여 평의 부지에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다양한 신행공간이 자리 잡은 대규모 신행문화도량을 건립하는 대작불사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새로 건립되는 신행문화도량은 법보공간, 신행공간, 도서관, 회의공간, 다목적공간, 거주공간, 편의공간 등이 들어서며 불교의 창조성, 예술성이 등이 표현된 자연회복과 치유를 강조한 친환경적인 건축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해인사는 신행문화도량을 불자들의 법회 및 수련장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관광객들로 인해 수행에 지장을 받았던 그동안의 어려움도 자연스레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친환경적 불사를 통해 자연의 의미를 되살리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찰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해인사는 지금까지 많은 논란 속에 추진돼 왔던 해인사 대불 건립계획은 철회한다고 밝혔다. 크기와 규모에만 매달려 왔던 기존의 경쟁적 불사 관행을 지양하고 실리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진정한 의미의 불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해인사 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해인사는 12월 28일 박물관 세미나실에서 '개산 1200년 해인사 신행문화도량 건립 설계경기 공모' 현장설명회 및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 등은 이번 신행문화도량 건립 계획을 준비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일본, 유럽 등지의 새로운 건축문화를 둘러보는 '신성한 장소로의 여행'이란 제목의 건축기행을 했다. 이를 통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다양한 선진 건축물들을 견학했으며, 공모전 심사에 이번 경험을 참고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지하 스님


◇성타 스님


◇혜초 스님


◇무비 스님


◇효암 대종사

불교지도자 5명 국민훈장

지하·성타 스님 무궁화장
혜초·무비 스님 동백장
효암 통리원장 목련장

효암 대정사(진각종 통리원장), 혜초(前 태고종 총무원장), 무비(조계종 교육원장), 지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타(불국사 회주)스님 등 불교계 지도자 5명이 국민훈장을 수상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27일 소외계층 봉사활동, 사회문화 활동, 인권·민주화 활동 등을 통해 국민화합과 사회발전에 공헌한 불교계 5명을 비롯한 종교인 14명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했다. 최고등급인 무궁화장을 수상한 지하 스님과 성타 스님은 종교간 교류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및 자연환경 보존운동의 공로가 각각 인정됐다. 동백장을 수상한 혜초 스님은 사회 안정에 기여한 점이, 무비 스님은 종교 관련서적 번역과 저술활동을 통해 불교 학문 발전에 이바지한 점이 평가됐다. 효암 진각종 통리원장은 목련장을 수상했다.

남동우 기자

불교생협학교 개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18일 예정인 불교생협운동본부 창립식을 앞두고 예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불교생협학교'를 개설한다.

불교생협운동본부 발기인 및 사무처, 인드라망의 각 자치기구 활동가, 300여명의 예비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불교생협학교는 9일 생협운동과 공동체, 11일 생협 조직운영과 활동가의 역할, 생협운영실제와 사례, 불교생협운동의 운영원칙과 과제 토론회, 13일 한살림매장 현장학습 등으로 이뤄진다. (02)733-1884 남동우 기자

원융종, 전국주지총회
새해 주요사업등 논의

원융종(총무원장 법륜)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구로구 총무원에서 전국주지총회를 열고, 영산수륙대재 개최 등 내년도 종단 주요 사업의 세부계획을 논의했다. 원융종은 이밖에 창종 22주년 기념 법회 봉행 및 전국 주지스님 수련회 등의 개최일정도 협의했다.

원융종은 이날 전국주지총회에서 다룬 안건을 6일 열리는 중앙종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02)853-0531 김철우 기자

호스피스자원봉사단 발족

천태종 '니르바나' 창립…활동착수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규모의 불교 호스피스 자원봉사단이 발족됐다.

천태종복지재단(대표이사 운덕, 총무원장)은 지난해 12월 13일 충북 단양 구인사에서 불교호스피스 니르바나 자원봉사회' 창립법회를 갖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천태종복지재단은 이미 지난해 서울 관문사, 부산 삼광사 등 전국 천태종 사찰 8곳을 순회, 호스피스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전국 단위의 호스피스 자원봉사 교육망을 가동해 전국 사찰에 자원봉사회를 결성시켜나갈 계획이다.

김철우 기자

불자 노후보장 연화연금보험 출시

교보생명, 성지순례자금 지급 특징

교보생명이 세속적 연고가 없는 스님 또는 재가 불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무배당 연화연금보험'을 개발했다.

수행자로서 위의를 지키며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개발된 연화연금보험은 종신연금형과 확정연금형으로 나눠져 있다. 제1보험기간 중 월납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제1급 장해를 당하게 되면 300백만 원+책임준비금이 지급되고, 일시납의 경우 일시납보험료의 6%+책임준비금이 지급된다. 제2보험기간에서는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확정된 연금지급 기간동안 연금을 지급한다.

상품을 개발한 교보생명 강석훈 씨는 "보험은 시중실세금리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연금개시시점에 성지순례자금 300백만 원을 지급하며, 자유로운 입출금으로 자금운영이 가능하도록 중도인출제도와 추가납입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금강학술장학회 설립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지난해 12월 13일 충북 단양 총본산 구인사 대법당에서 '금강학술진흥장학회' 설립법회를 봉행했다. 금강학술진흥장학회는 종단 산하 금강대학교를 지원한다. 김철우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누구나 즐겁게 수행할 그날이 빨리…

불교계 올해는 어떤 일이…

선거·대형불사·국제대회 줄이어

올해 조계종은 총무원의 주인이 바뀌고, 수행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이 진행된다. 또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주요 종단들도 총본산을 마련하는 등 종단 중흥의 이정표가 될 사업을 전개하는 등 불교계 전체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된다.

한국에서 세계 10여 개국 불교지도자들이 참가하는 '참여불교도 국제연대회의'가 열리고, 달라이라마 방한이 다시 추진되는 등 국제적인 이슈도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2003년 불교계는 어떤 모습일지를 전망해본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지난해 12월 23일 동국학원 이사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제20대 이사장에 선출됨에 따라 조계종은 연초부터 차기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돌입한다.

정대스님은 이사 임기 만료일인 1월23일까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그 이후부터 정식으로 이사장 임기에 들어가도록 한 동국학원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최소한 1월23일 이전에는 총무원장직을 사임해야 한다. 따라서 차기 총무원장 선거는 '총무원장 궐위시 30일 이내에 차기 총무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종헌종법에 따라 2월 중 치러지게 된다.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누가 총무원장에 출마하느냐이다. 현재 예상되는 사람은 종하스님(서울 관음사 주지)과 법장스님(수덕사 주지)이다. 두 사람은 정대스님의 동국대 이사장 선출 이전부터 이미 물밑에서 유세전을 벌여왔다. 이런 가운데 교계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제3의 인물론'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누가 총무원장이 되느냐는 문중간의 이해관계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13대 중앙종회의원들의 입지와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많은 변수가 남아있다. 또 이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차기 총무원장 선출 못지않게 총무원장의 역할과 비중이 지금과는 상당부분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상당수 교구본사에서는 젊은 스님들을 중심으로 차기 총무원장을 비정치적인 인물로 내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개혁'적 요구가 공론화될 경우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또 총무원장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에 대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온 만큼 누가 총무원장이 되든 자연스럽게 역할이 축소되면서, 총무원에서 종회로 종단 정치의 중심축이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조계종 2월 총무원장 선거 "시선집중"

간화선 등 개념정립, 수행체계 확립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성사여부 관심

조계종 수행체계 정립

'간화선 수행 방법은 이대로 좋은가' '다른 수행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올해에는 최근 몇 년간 논란이 계속돼 온 간화선과 다른 수행법에 대한 개념정리가 조계종 차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곧 개념정리 결과에 따라 다른 수행법을 조계종의 수행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간화선만을 전통 수행법으로 간주해 온 조계종으로서는 상당한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는 문제다. 아직까지도 선원에서는 위빠사나 등 다른 수행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세이기 때문이다.

이에 못지않게 간화선 수행방법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검토도 중요 사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간화선 수행이 '깨달음'이라는 본질 보다 수행자체의 '기교'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바람직한 수행방법론이 제시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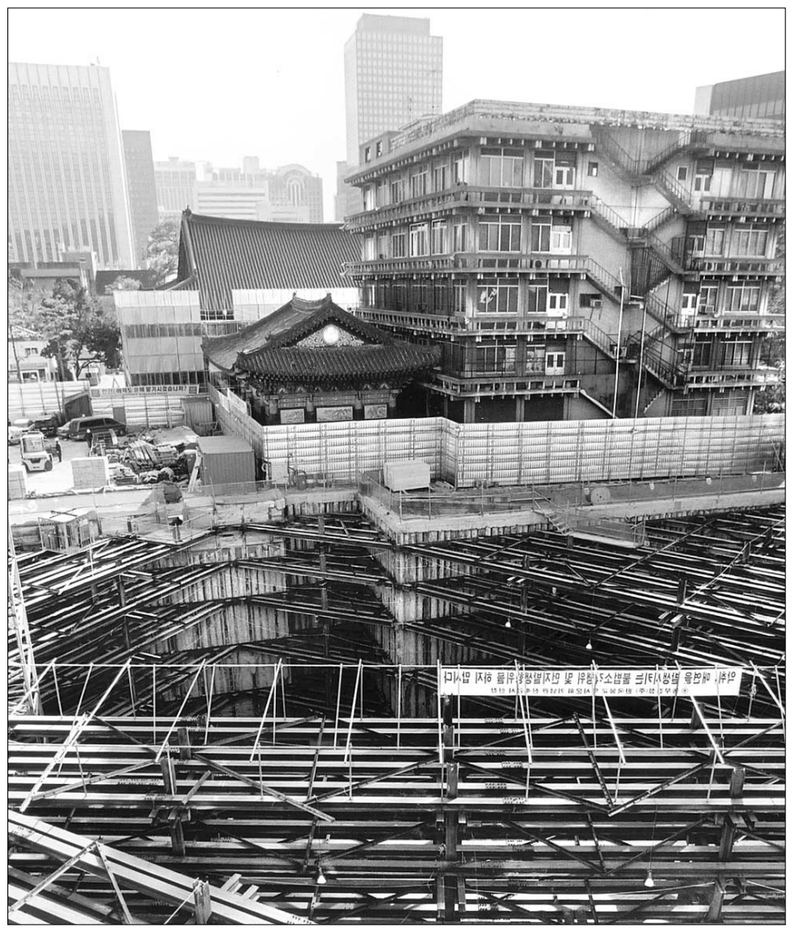
이런 일련의 작업 가운데는 교학체계 정립도 포함돼 있다. 현재 조계종은 <금강경>과 <전등법어>를 소의경전으로 삼고 있지만 다양한 수행형태와 교학체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폭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을 경우 소의경전을 다시 선정하는 처방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조계종의 수행 및 교학체계가 대폭 바뀔 수도 있다.

지난해말 발족한 '수행체계 연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교육원이 지난해 실시한 스님들과 불교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기초자료로 삼아 공청회 개최 등 이들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할 예정이다. 올해 안으로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논의과정에서 수행체계 및 방법론에 대한 밑그림은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불교역사기념관 완공

올해 12월이면 현 조계종 총무원 자리에 연면적 5천평에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 위용을 드러내게 된다. 역사문화기념관의 등장은 곧 종단사태의 흉물처럼 여겨져 온 현 총무원 건물의 퇴장과 함께 새로운 조계종 역사의 시작을 고한다. 뿐만 아니라 우정총국과 연계한 공원화 작업도 함께 완료되면서 인사동과 우정총국을 잇는 문화벨트의 중심지이자 시민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또 불교중앙박물관, 불교예술공연장, 불교문화정보센터, 멀티미디어 라이브러리, 불교음악실 등이 들어서면서 불교문화·예술이 한데 어우러진 불교문화종합공간의 막을 올린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국제회의장도 별관에 세워진다. 따라서 불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과 외국인들도 도심 한복판에서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조계종이 올 12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준공할 계획인 가운데 새해 아침에도 공사현장은 바쁘기만 하다.

불교역사기념관 완공…문화벨트 중심

박물관·정보센터·예술 등 시민공간으로

동국대 총장 새로 선출

올해 동국대는 2006년 개교 100주년을 맞이할 새 이사장과 총장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된다. 2003년 1월 24일부터 동국학원 20대 이사장 정대스님의 임기가 시작되고, 1~2월경 15대 총장도 이사회에서 새로 뽑힌다.

동국대는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제2의 도약을 위한 불교병원 개원, 일산 제3캠퍼스 건립 등의 첫걸음을 내디딘다. 이를 위해 동국대는 21세기 동국의 미래를 위한 발전기금 모금, 불교문화센터(100주년기념관) 건립, 교수연구비 대폭지원, 학부제 재검토 방안을 수립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준공은 됐지만 개원하지 못해 불교계의 우려를 증폭시켰던 불교병원이 빠르면 7~9월경 개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국학원 이사회가 전권을 위임한 병원개원준비위원회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자들이 이용할 최첨단 불교병원이 원만히 개원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태고종 동방대학원대학 3월 개교

천태유물전시관·진각종 총본산 건립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

올해는 달라이라마 방한이 성사될까? 달라이라마방한추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올 4월 방한 성사 가능성은 아직 반반이다. 방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정부. 방한추진위는 지난해 11월 21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에게 방한 허용에 대해 정책질의서를 보냈으나, 노 후보는 비자발급허용 여부에 대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설득하고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데다,

정권 출범 초기에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무릅쓰고 방한을 허용할 지는 미지수다. 방한이 성사되기 위해선 적어도 3월초까지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와야 한다. 방한이 성사되면 종교지도자들과의 만남과 강연 등이 열릴 전망이다.

INEB 한국 대회

올 7월 한국에서 열리는 INEB(International Network of Engaged Buddhists, 참여불교도국제연대회의) 대회 준비를 위해 현재 정토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우리는 선우 등 10개 불교단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1월 경 준비위가 발족할 예정. 준비위가 공식 발족하면 업무 및 재정 분담 등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INEB 한국대회는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집행위원 11명을 포함 10여개국 100여명이 참석한다. 대회는 불교 내부 문제와 불교 사회 참여 두 가지 큰 주제아래 △환경 △평화 △여성 △난민 △인권 등의 소주제로 세분해 참석자간의 분과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태국의 슐락 박사, 스리랑카 아리야네트 박사, 캄보디아 마하 고사난다 스님 등 유명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태고종

태고종은 동방대학원대학을 올 3월경 개교한다. 기존의 대학원대학을 인수하고 학과를 증설하는 것이기는 하나, 종단 차원의 불교전문 인재양성 측면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태고종은 또 총무원 청사 이전, 종단재정 확보, 종무행정 전산화 등 5대 종단 목적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특히 총무원 청사 이전은 종단의 구심점 마련을 위한 역점 사업으로, 신촌 봉원사와 사간동 법륜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천태종

올 3월경 천태종 유물전시관 건립공사가 충북 단양 총본산 구인사에서 시작된다. 4년 중기사업으로 추진되는 천태유물전시관은 총 사업비 274 여억 원, 건립부지 3만8천 여 ㎡, 수장 유물만 3천 여 점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관련 유물전시관으로 건립된다.

천태종은 개교 첫해를 맞는 금강대를 신흥 명문대로 육성시키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지난해 종단 최초로 결성됐던 캐나다 신도회를 발판으로 해외포교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진각종

진각종 수행 총본산 건립이 올 2월이면 구체화된다. 종조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추진돼온 수행 총본산 건립은 종단 구심점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창종 이래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진각종은 경주에 부지를 확보해 놓았으며, 2월경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내놓고 연내에 착공한다.

진각종은 또 의료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진각종은 1차로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고, 향후 종합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 건립도 계획해 놓고 있다. 또한 진각복지재단은 스리랑카에서 어린이 집 건립을 추진하는 등 그동안 쌓아놓은 기반을 토대로 국제 구호사업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원우·한명우·남동우·김철우 기자

승려 자질향상·사회참여 확대 필요

'불교인재양성·교육현실' 설문조사

한 집단의 역량은 구성원들이 지닌 역량의 총합이다. 종교계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한국불교의 시대적 사명과 당면 문제 해결, 미래에 대한 전망 역시 사람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 교육이다. 제대로 된 교육없이 미래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지는 신년 기획특집으로 전국 120여 사찰의 불자들을 대상으로 '불교 인재양성 및 교육 현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승·재가 교육체계와 불교계의 인력활용실태를 점검해 봤다.

인재양성·교육

전문분야 승·재가자 교육 제대로 안돼

여성사회참여 '불교계 준비부족' 47.5%

불자들은 승·재가 교육 현실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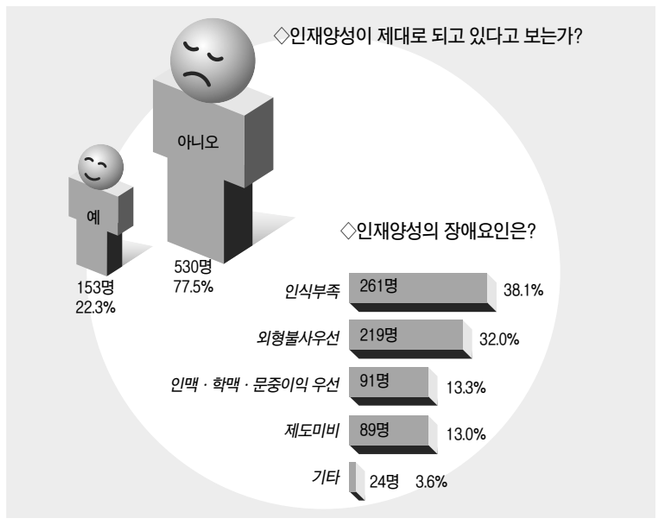
'포교·역경·복지 등 전문분야의 승·재가 인재양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77.5%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은 불교의 열악한 '인재양성 풍토'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 요인으로는 '인식 부족' '외형적 불사 우선 풍조' '학맥·인맥·문중 이익' 등이 지적됐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은 여자(75.2%)보다는 남자(80.1%), 10~30대(76.1%)보다는 40대 이상(77.5%)에서 다소 높았다.

'현재의 승가교육이 고학력 사회에 걸맞는 자질을 갖추기에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충분'(8.3%) '미흡하나 무리없다'(35.1%) '보완해야 한다'(51.2%) '전면 재검토 필요'(5.4%)라는 응답이 나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그 이유로는 '체계가 없다'(44.4%) '교육 열의가 낮기 때문'(28.8%) '교육의 질이 낮다'(20.9%)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인식은 재가자 교육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53%가 '보완할 것이 많다'거나 '매우 잘못되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승가교육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똑같이 제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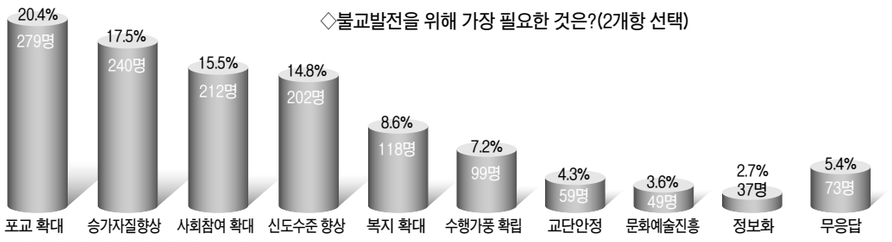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불교계의 준비와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6.1%만이 '충분하다'고 답했을 뿐, 47.5%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여성인력 활용을 위해서는 불교계에 만연돼 있는 남녀차별 문화를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승가역할과 불교의 미래

승가, 사표로서 제역할 못하고 있다 66%

불교미래 "밝다" 38.4% "어둡다" 22.7%



이번 설문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응답자들이 승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주면서도 불교의 미래에 거는 기대는 오히려 크다는 점이다.

응답자들은 '대중의 사표로서 승가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이 66%나 됐다. 그 이유로는 '사회문제 등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32.4%)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불자들은 한국불교 미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망이 '밝다'(38.4%)는 응답이 '어둡다'(22.7%)보다 높았다. '밝다'고 답한 불자들은 불교의 가치가 보편화되면서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어둡다'고 답한 불자들은 불교의 사회참여 부족과 일반의 불교에 대한 관심이 저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불교의 사회참여와 불교 가치의 보편화라는 같은 지향점에 대해 상반된 인식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불교 발전에 필요한 항목으로 응답자 전체는 '포교 강화-승가자질 향상-사회참여 확대-신도수준 향상' 순으로 꼽았다. 그러나 한국불교의 앞날이 밝다고 전망한 응답자들은 '포교 강화-신도수준 향상-사회 참여 확대-승가 자질 향상' 순으로 비중을 둔 반면, 어둡다고 전망한 응답자들의 견해는 '승가자질 향상-사회참여 확대-포교확대-신도수준 향상' 순이었다. 불교미래를 비관적으로 본 응답자들은 앞서 지적한 사회참여 외에 승가자질 향상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지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행 패턴

설문응답 불자, 여성 60% 남성 40%

불교공부, 법문-수행-불교서적-경전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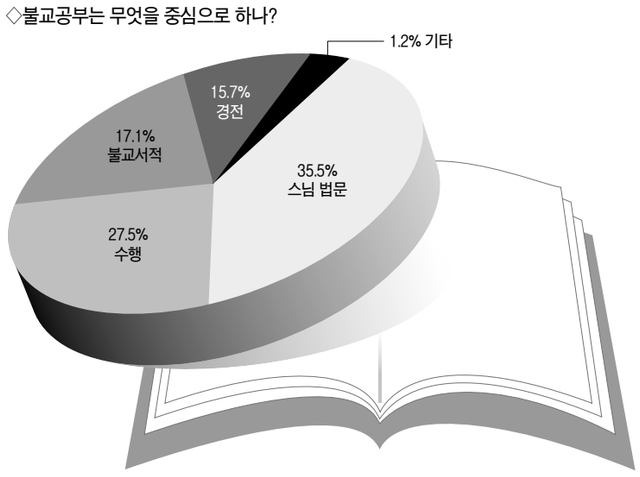
응답자 가운데 여성불자(60.1%)가 남성불자(39.9%)보다 많았던 것은 여전히 여성불자가 신도회(청년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이 58% 정도였지만, 활동 연수는 5년 이하가 65%나 돼 대다수 불자들이 전체적으로 늦게 신도회(청년회)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응답자의 불교 공부 주요방편은 '스님법문-수행-불교서적-경전' 순으로 나타났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불교서적으로 공부하는 비율이 경전보다 높았다. 또 성별, 연령별을 통틀어 경전공부를 최우선 방편으로 삼는 비율은 40대 이상이 가장 높았다.

신도회(청년회) 활동이 신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높은 편(43.0%)이었으며, 최소한 절반 이상 법회에 참석한다는 응답도 80%에 달해 신도회(청년회)에 가입한 불자들의 신행은 상당히 열성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명우·김철우 기자



설문조사 결과

1. 귀하의 성별은?
남 273명(39.9%) 여 411명(60.1%)

2. 나이는?
10대(1.5%) 20대(17.4%) 30대(25.2%) 40대(33.5%) 50대 107명(15.7%) 60대(6.2%) 70대 이상(0.5%)

3. 불교에 입문한 지는 얼마 됐습니까?
①3년 미만(21.7%) ②3~5년(15.9%) ③6~9년(18.8%) ④10~19년(28.5%) ⑤20년 이상(14.3%) 무응답(0.8%)

4. 귀하의 신도회(청년회) 활동 연수는?
①3년 미만(40.3%) ②3~5년(24.4%) ③6~9년(15.7%) ④10~19년(15.5%) ⑤20년 이상 (2.7) 무응답(1.4%)

5.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신도회(청년회)에 가입한 동기는?
①주위의 권유로(25.6%) ②집 가까이 있어서(5.6%) ③스스로 선택해서(63.6%) ④기타 (4.4%) 무응답(0.8%)

6. 신도회(청년회) 모임에 어느 정도 참석합니까?
①빠지지 않고 참석한다(43.8%) ②절반 정도 참석한다(34.9%) ③가끔씩 참석한다(15.5%) ④거의 참석하지 못 한다(5.6%) 무응답(0.2%)

7. 귀하의 신행 중에서 신도회(청년회) 모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①높다(43.0%) ②다른 활동과 반반이다(32.6%) ③낮다(24.4%)

8. 불교공부는 무엇을 중심으로 합니까?
①경전(15.7%) ②수행(참선이나 기도정진)(27.5%) ③스님 법문(35.5%) ④불교서적(17.1%) ⑤기타(3.7%) 무응답(0.5%)

9. 사찰운영이나 포교, 사회참여 등 재가자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①매우 활발하다(2.9%) ②활발한 편이다(18.1%) ③보통이다(38.0%) ④다소 부족하다(25.0%) ⑤매우 부족하다(12.0%) 무응답(4.0%)

10. 불교와 사회발전에 꼭 필요한 전문분야(포교, 역경, 복지, 문화 등)의 인재양성과 활용(승·재가 망라)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예(22.3%) ②아니오(77.5%) 무응답(0.2%)

10-1. (10번 질문에서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가장 큰 장애요인을 꼽는다면?
①인맥, 학맥, 문중 이익을 우선시하는 풍토 때문(13.3%) ②인재양성 인식 부족 때문(38.1%) ③장학제도 등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13.0%) ④외형적 불사를 우선시하기 때문(32.0%) ⑤기타(3.6%)

11. 현재의 재가자 교육의 질과 양을 평가한다면?
①매우 잘 되고 있다(6.6%) ②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잘 되고 있다(40.3%) ③보완해야 할 것이 많다(48.6%) ④매우 잘 못되고 있다(4.5%)

11-1.(11번 질문에 ③④번으로 답한 경우) 그 이유를 꼽는다면?
①교육의 체계가 없다(51.2%) ②교육의 질이 낮다(13.8%) ③교육 열의가 없다(32.8%) ④기타(2.2%)

12.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이를 위해 어느 정도의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①충분하다(2.3%) ②비교적 충분하다(13.8%) ③그저 그렇다(36.4%) ④다소 부족하다(30.4%) ⑤매우 부족하다(17.1%)

13. 현재의 승가가 대중의 사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까?
①예(29.7%) ②아니오(66.2%) 무응답(4.1%)

13-1. (13번 질문에 '아니오'로 답한 경우) 그 이유를 꼽는다면?
①자질이 부족한 스님이 많기 때문(13.5%) ②사회문제 등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32.4%) ③승가 본연의 가풍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23.0%) ④대중의 욕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29.8%) ⑤기타(1.3%)

14.현재 승가교육이 고학력 사회에 걸맞는 자질을 갖추기에 충분하다고 봅니까?
①충분하다(8.3%) ②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별 무리는 없다(35.1%) ③보완해야 할 것이 많다(51.2%) ④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5.4%)

14-1. (14 번 질문에서 ③④번으로 답한 경우) 그 이유는?
①체계가 없다(44.4%) ②교육의 질이 낮다(20.9%) ③교육 열의가 낮기 때문(28.8%) ④기타(5.9%)

15. 한국불교 미래를 전망한다면?
①밝다(38.4%) ②현재 유지하는 정도(37.4%) ③어둡다(22.7%) 무응답(1.5%)

15-1. (15번 질문에서 ①번으로 답한 경우) 그 이유를 꼽는다면?
①승가의 수행풍토 쇄신(12.5%) ②불교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29.7%) ③불교 가치의 보편화(30.0%) ④승·재가의 활동 증대(24.3%) ⑤기타(3.5%)

15-2. (15번 질문에서 ③번으로 답한 경우) 그 이유를 꼽는다면?
①스님들에 대한 실망(20.7%) ②불교의 사회참여 부족(35.5%) ③불교에 대한 일반의 관심 저하(22.6%) ④승·재가불자들의 활동 미흡(21.2%)

16. 불교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2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승가 자질 향상(17.5%) ②신도수준 향상(14.8%) ③포교 강화(20.4%) ④복지 확대(8.6%) ⑤사회참여 확대(15.5%) ⑥문화·예술 진흥(3.6%) ⑦정보화(2.7%) ⑧수행가풍 확립(7.2%) ⑨교단 안정(4.3%) ⑩기타(0.2%) 무응답(5.2%)

조계종 승·재가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기본교육에 8년…교육체계 '소모적'

강원·동국대·승가대 특화로 상호 보완

행자교육 1년으로 연장, 교육 질 강화를

기초교육 실효 적고 강사확보 어려워

종단차원 어린이·청소년 교육방안 부재

승가교육

교육체계 문제있다

조계종의 현행 승가교육체계는 기초교육(행자교육원), 기본교육(중앙승가대, 동국대, 강원, 기초선원), 전문교육(승가대학원, 학림, 율원, 어산학교), 재교육(본말사 주지연수, 중진지도자과정연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현 체계로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고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조계종은 기본교육 4년을 이수해야만 비구계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행자교육을 마친 예비승인 사미(니)는 비구(니)가 되기 위해 중앙승가대, 동국대, 강원, 기초선원을 졸업해야만 한다. 그런데 문제는 강원을 졸업하고 중앙승가대나 동국대로 진학하거나, 반대로 중앙승가대나 동국대를 졸업하고 강원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한다는 데 있다. 한마디로 8년이라는 기간을 기본교육에 매달리는 모순이 발생함으로써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그 단적인 예가 중앙승가대이다. 중앙승가대의 경우 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격된 97년 이후부터 2002년 신입생 모집에 이르기까지 매년 정원의 50~60% 밖에 채우지 못했다. 현대적 특성을 살린 전문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외면당하고 있고, 또 졸업하더라도 전통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다시 강원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다. 전통과 현대식 교육이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교육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행자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교육장도 없는데다, 현행 6개월 기간으로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힘들다. 게다가 교육원 통계를 보면 95년 이후 행자교육을 이수하고도 기본교육기관에 입학하지 않은 사미(니)가 30%를 넘는다. 비구계를 받지 않아도 스님 노릇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수요자가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교육. 현행 승가교육의 문제는 이 한마디로 함축될 수 있다.

대안은 무엇인가

교육 관계자들은 강원을 전통교육기관으로, 중앙승가대와 동국대는 현대식 교육기관으로 각각 특성화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한다. 즉, 강원은 수행자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중앙승가대와 동국대는 복지 문화 등 불교와 사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기 특성화된 교육적 필요를 담당하면서 상호 위탁교육 등의 교류를 통해 상보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행자교육은 기간을 최소한 1년 이상으로 늘려 승려가 되는 초기 과정에서부터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의 질과 인력활용도 높여야

2년 전 교육원이 강원의 학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33%가 현 교육체계가 부적당하다는 견해와 함께 교육내용도 다양하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식주입 위주의 교육에 매몰돼 수행자이자 대중의 사표로서의 능력과 면모를 배양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력활용 문제도 심각하다. 율원의 예를 보면, 전국의 4개 율원에서 한 해 배출되는 인원은 20여명이지만 전문적 역량을 살린 역할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각 교구본사에서 율학을 강의하고 포살법회를 정례화하는 등 율사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서는 통계화·전산화를 통한 인력 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그림·김영민

재가교육

조계종의 현행 재가교육체계는 입교교육(사찰), 기본교육(사찰, 연합교육기관), 전문교육(불교대학), 지도자교육(포교원), 재교육(포교원)으로 구성돼 있다.

신도기본교육

기초교리, 불교예절 등 불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교육하는 신도기본교육은 지난해 473개 사찰에서 실시됐다. 조계종 재적사찰의 25% 수준이다.

교과과정 미비도 심각한 수준이다. 조계종 포교원에서 교재로 발간한 <불교입문>을 활용하고 있는 사찰(209곳)이, 사중에서 교재를 발간해 사용(83곳)하거나 임의적으로 교재를 채택한 사찰(137곳)에도 미치지 못했다. 임의교재를 활용하는 사찰들은 <불교입문>의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해 내용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한 해 동안 기본교육 이수 인원은 어림잡아 2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계종 포교원은 시행 1년이 되도록 실시여부, 교재활용 등 기본적인 통계만 얻었을 뿐 피교육인원, 교육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신도전문·재교육

기본교육을 마친 불자들의 심화과정인 전문교육은 시스템은 갖춰져 있으나 교육을 실시할 강사 확보의 어려움, 스님들의 인식 부족, 행정적 지원 부족 등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강사요건은 강화된 반면, 낮은 보수 때문에 강사진 확보는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다. 승려의 본분마저 의심되는 상황이다.

조계종 포교원 주관으로 신도단체 임원과 재가종무원에게 실시해 온 재교육은, 교구·지역신도회와 일정이 맞지 않아 참여율이 저조한데다 일정조정에 실패해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올해부터 시행주체를 교구본사로 옮겼다. 그러나 교육 주체만 바뀌었을 뿐 프로그램 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아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을지는 미지수다.

동국대 불교학부

불교 인력 양성 창구인 동국대 불교학부 배출 인력 관리에도 많은 허점이 드러난다. 2001~2002년 불교학부로 전과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는 반면에 다른 학과로 빠져나가는 전과생은 10%에 달했다. 이처럼 인력이 다른 분야로 유출되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는 낮은 취업률 때문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불교학부 졸업생 특별채용제나 학제 개편, 장학금 지급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린이·청소년·청년

어린이·청소년·청년 교육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 교육 프로그램과 단계별 연계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이·청소년·청년층에 대한 스님과 신도회의 관심과 어린이회에서부터 신도회까지 신행이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과감한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어린이회, 중·고등학생회, 청년회 등의 운영 유무를 따라 주지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종단 차원의 활성화 대책도 필요하다.

한명우·박봉영·남동우 기자

불교계 NGO

전문성·인력양성 시스템 갖춘 단체 극소수

전문가 집단 두뇌활용 운영 효율 높여야

현재 불교계 NGO는 수십여 곳에 이른다. 이 중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자신이 속한 단체나 분야에서 이를 십분 활용하고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몇몇 NGO는 전문성 제고를 통한 '맨 파워'를 발휘하고 있어 바람직한 역할 모델이 될 만하다.

불교계 NGO 중 모범적인 단체는 정토회. 정토회는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JTS, 좋은벗들, 정토수련원 등으로 나눠져 있다. 이들 단체의 전문성은 정책위원이라 불리는 지도그룹과 실무자, 자원봉사자들의 유기적인 관계로 발휘된다.

국제평화·인권·난민지원을 하는 좋은벗들의 경우 통일연구원 조민 박사 등 5명의 정책위원들이 한반도 통일정세 파악과 사업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준다.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의 경우 밀양대 이병인 교수 등 30여명의 정책위원들이 생명운동아카데미, 생태학교 등 20여 차례의 교육을 통해 쓰레기제로운동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냈다.

정책위원과 정토회원들이 각종 토론을 통해 정책 결정과 사업 추진을 결의하면 상근실무자들은 현장에서 발로 뛰며 전문성을 키워나간다. 한국JTS의 인도불교지원 사업이나 아프가니스탄 난민 지원이 좋은 예다. 여기에 수십여 명의 자원봉사 인력들도 활동의 밑받침이 되고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대표 박광서)도 불교아카데미, 교단자정센터, 참여불교네트워크, 격월간 참여불교 등 출판사업, 대안운동 등의 사업에서 2~30 여명의 불교 학자나 전문가들이 지원에 나서고 있다.

2001년 10월에 개원한 불교아카데미의 경우 유필화 성균관대 교수가 컨설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경영관리자과정, 21세기 사찰모형탐구 등 6차례의 승·재가 교육을 통해 1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이영철 사무처장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안공동체 초록마을에서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모델 개발에 고심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몇몇 불교계 NGO들은 각 분야 전문가나 학자들을 단체의 두뇌 집단으로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하지만 두뇌집단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현장에서 그대로 시행되지는 않는다. 추진 과정에서 수정과 보완 작업이 이뤄지는 것이다. 또 이런 결과물들은 다시 두뇌집단으로 피드백 된다.

정웅기 불교아카데미 교육연구실장은 "두뇌집단의 결정이 상근 실무자들에게서 수정·보완되고 이것이 다시 두뇌집단으로 되돌아가는 유기적 관계를 통하여 단체의 효율성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불교 전공자 취업률 저조·현장 활동가는 부족

-불교계 인재양성과 활용실태-

올 불교학부 졸업자 51명 전공 무관 취업

종단·불교단체서 흡수 제도적 장치 필요

불교학 전공자 진로

최근 동국대 불교대학 학생들의 취업 현황을 보면 불교 인재양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동국대 취업지원팀은 2001년 8월과 2002년 2월 불교대학 졸업자 취업률이 78%라고 밝히고 있다. 수치상으로는 높은 편이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 보면 78%라는 수치가 빛좋은 개살구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 졸업자 67명 가운데 대학원 진학 7명과 군입대 1명을 제외한 취업대상은 59명. 이중 취업자는 46명으로 이들 가운데는 스님 27명과 군법사 5명이 포함되어 있다. 순수 취업자는 13명이다. 특히 이들 순수취업자들 중 조계종 포교원에 취업한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2명은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으로 사회에 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지원팀이 지난해 11월 2002년 8월과 2003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불교대학 취업현황조사에서도 졸업(예정)자 71명 가운데 스님 17명과 군법사 2명, 외국인 1명 등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거의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1996년 설립된 진각종립 위덕대는 동국대에 비하면 형편이 좋은 편이다. 2001년도 불교학부 졸업자 총 17명 가운데 진학자를 제외한 11명중 4명이 진각종 종무기관이나 불교언론계 등에 취업했다. 또한 지난 11월에 실시된 2002학년도 취업조사에서도 진학자를 제외한 11명의 졸업생 중 진각종 종무원 3명, 조계종 소속 사찰의 성보박물관 등 총7명이 불교계에 취업했다. 위덕대 졸업자가 동국대보다 불교계에 취업을 많이 한 이유는 진각종이 실시하고 있는 종비장학생제도 때문이다. 종비장학생으로 선발되면 4년 학비면제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며 졸업 후에는 종단기관에 근무하도록 제도화 되어있다.

현재까지 1,035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중앙승가대학은 학생들의 졸업 후 활동에 대해서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80%이상이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단순 업무, 과장 승진 기회 제한적

여성 차별 관행 능력 발휘 기회 막아

여성인력 활용 현황

미래학자들이 21세기를 언급할 때 빼놓지 않는 것 중의 하나가 '21세기에는 여성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지식과 정보, 창의력이 강조되는 시대에 여성의 섬세한 감각이 중요시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여성 신도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불교계에서는 여성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조계·태고·천태·진각종 중앙 종무기관에 근무하는 재가 여성 종무원은 전체 직원 153명 중 69명으로 약 45% 정도다. 조계종의 경우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에 근무하는 재가 종무원 77명 중 여성은 28명이다. 계약직 6명을 제외한다면 여성 종무원은 22명(30%)인 셈이다. 태고종 총무원은 재가 종무원 13명 중 재가 여직원이 8명(61%), 진각종 중앙종무기관은 38명 중 13명(34%)이 여성 종무원이다. 천태종은 총무원 직원 25명 중 80%에 달하는 20명이 여성이지만 모두 일반 사무직이고, 5명에 불과한 남성은 모두 과장 이상의 직책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32%(2001년 12월 31일 기준)인 것과 비교한다면 낮은 비율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일반 행정이나 보조 등 일부 한정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과장급 이상의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등 업무의 중심에서 배제돼 있다. 실제로 4개 종단 중 과장급 이상의 여성 종무원은 1명(태고종)이고 계장 1명(조계종), 주무 1명(진각종)에 불과할 정도로 상위직일수록 불균형이 심하다. 이러한 현상은 국장급 이상은 스님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 인사제도와 여성의 경우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여성의 채용을 꺼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포교사단에 등록된 포교사는 전체 2,000여 명 중 40%가, 국제포교사는 출·재가를 막론한 전체 143명 중 84명(58%)이 여성이다.

경력 4년차 종무원 김 모 씨는 "여성을 차별하는 조직문화와 관행을 바꾸고, 여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만 여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토회에서 매주 금요일 실시했던 '통일 대화마당'은 회원들의 자질함양 및 인재양성에 큰 도움이 됐다.

활동가 자체양성 정토회 등 2곳에 불과

불교계 복지시설에 다른 종교인도 10%

사회단체 인재육성·활용

불교계 사회복지사 교육기관은 4곳에 불과하다. 불교 NGO 활동가 양성기관은 정토회, 참여불교 재가연대 등 자체적으로 인력을 배출하는 곳을 제외하면 극히 미미하다.

국내 종교계가 설립·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사회복지학과는 모두 159곳. 4년제 대학 83곳, 특수대학원 45곳, 전문대학 31곳 가운데 불교계 교육기관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중앙승가대, 위덕대, 금강대 등 4곳뿐이다.

이 중, 올해 첫 신입생을 모집하는 금강대를 뺀 이들 교육기관이 연간 배출하는 인력은 1백여 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불교계 사회복지 시설이 450여 곳인 점을 감안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NGO 단체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정토회와 같은 경우를 제외한다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인력양성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불교계 복지시설 및 NGO 단체의 종사자는 대략 5천 80여 명 정도. 복지시설에 5천여 명, NGO 단체에 80여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시설 한 곳당 종사자수의 경우, 복지는 15명 이하와 16~20명이 60%, NGO 단체는 1~5명이 8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불교 전공자(종립대 출신 또는 불교교양대 이수자 포함)는 대략 20% 내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불교 복지시설의 경우, 타종교인도 10% 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은 이들 단체의 인력 현황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교계 일각에서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는 '불교 전문인재 양성'이라는 말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불교계 사회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들 종사자들의 근무만족도는 상당히 낮다. 낮은 보수, 직업의 장래성 불안, 과중한 업무 등에 적지 않은 불만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높은 이직률, 전문인력 부족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NGO단체의 경우, 열악한 재정상태가 종사자들의 활동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물질적 보시 우선 풍토에 인재양성 뒷전

신행단체 장학금도 단기지원에 편중

장학제도 미비

불교 장학사업 대부분이 불우청소년을 물질적으로 돕는 단순 보시 차원에 그치면서, 지속적인 인재 양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지가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불교계 장학회 및 장학재단 30곳을 조사한 결과, 신행단체들의 장학사업이 단기적인 지원에만 편중돼 있고, 미래 불교계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이나 불교학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전개하는 곳은 우리는선우 '향산장학회', 진각종 '회당장학금', '화엄종 장학금', '구산장학회' 등 4곳에 불과했다.

향산장학회는 불자 청소년 단체 지도자급 학생들을 선발해 지원·육성하는 장학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구산장학회의 경우 불교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우수 논문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교인재 양성을 하고 있다. 진각종 '회당 장학금'이나 '화엄종 장학금' 등은 동국대 불교학부 학생이나 학인들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불교 장학회나 장학재단의 대부분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맑고향기롭게의 '길상화 장학회', 우리는선우의 '선우장학회', 부산 내원정사의 '석암장학회', 영남불교대의 '마야장학회' 등 26개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 기준이 결손 가정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었다.

이들 경우에서 보듯 불교계 장학제도는 인재 발굴 및 육성하는 육영제도보다 일종의 복지제도로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스콜라쉽 제도처럼 일정 기간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단체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불교계 장학사업 관계자들은 말했다.

다른 종교계의 인력양성

종교별 교육관련 기구 및 단체의 인력양성과 활용 실태를 살펴보면 가톨릭이 가장 조직적이다.

가톨릭은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와 '17개 교구별 교육국'을 두고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있으며 7개의 가톨릭대학교와 43개 남자 수도단체, 93개 여자 수도단체, 사제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성직자 배출과 평신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회장 대주교급)는 11개 대학교, 5개 특수학교, 7개 신학교, 38개 고등학교, 27개 중학교의 교직자 연수 등을 통해 평신도 교육 지침을 시달하고 있다. 이밖에 해외선교사 교육협의회, 가톨릭 중고등학교연합회, 가톨릭교육협회, 교구별 유아교육연합회와 초등교육자회, 주일학교 등을 통해 복음교육을 실시한다.

원불교 역시 중앙총부 산하 교정원에 교육부를 두고 인재 발굴 및 육성, 교육연구 및 행정지원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펼치고 있다. 교육부 산하에는 예비 교무교육기관인 원광대 원불교학과, 영산원불교대학교, 원불교대학원대학교,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성직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원광대, 원광보건대, 영산대학과 7개의 고등학교, 4개의 중학교를 통해 교도를 양성하고 있다. 또 교육부 산하의 교육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와 육영사업회 등 5개 장학회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종파가 많은 개신교계는 연합회 형태의 교육관련 기구나 종파별 교육위원회를 통해 장신대, 총신대, 감신대, 한신대 등 4년제 정규대를 비롯한 270여 신학교와 산하 교육시설의 교회교육을 발전시켜 왔다. 대표적인 단체는 대한기독교교육협회회 기독교교육학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기독교교육정책협의회 등이 있다.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의 신학교육은 1970년대 이후, 각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학과를 설치해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교회에서는 유년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주일학교 등을 통해 신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각 종교의 성직자 양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개신교의 경우 270여 신학대학교에서 한해 1600여 졸업생이 배출돼 목사 안수를 받고 성직자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가톨릭의 경우 전국 7개의 가톨릭대에서 평균 120여명이 예비신부가 이곳을 졸업, 관련 대학원 교육을 마치고 사제품(수사, 수녀 제외)을 받는다. 원불교의 경우 종립대학인 원광대를 졸업하고 대학원대학교 2년 과정을 마쳐야 교무로 활동할 수 있으며, 평균 50여 명이 교무가 된다.

한명우·김재경·박봉영
김두식·강유신·김철우·여수령 기자

2003년 달력 주문 받습니다
미리 주문하세요! 불교사진작가의 작품으로
만든 달력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32종)
마하몰 02)732-1520
http://www.mahamall.co.kr

www.bbsradio.co.kr FM 89.9 MHz
BBS 부산불교방송



◇생명의 근원인 물은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자원이다. 사진은 한강의 발원지 태백 산검룡소의 물줄기. 사진=고영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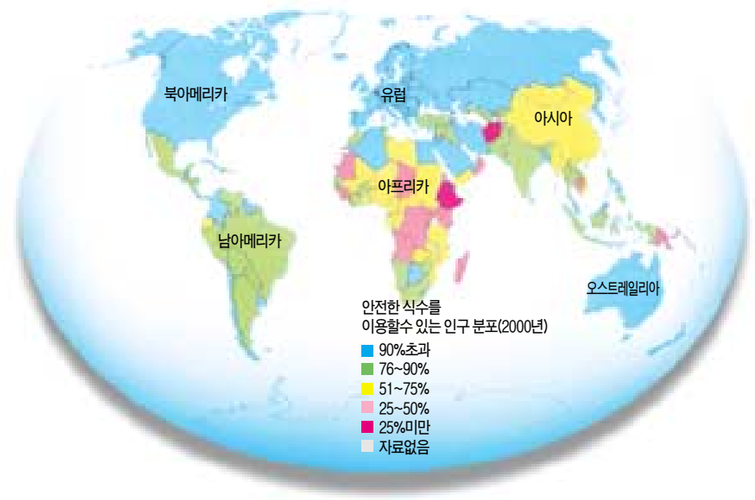
물부족 해결, 발등의 불

유엔, 2003년 '세계담수의 해'로 선언

지구 온난화, 열대우림 파괴, 물고기 남획 등 21세기에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재앙은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담수(淡水, 강이나 호수 등의 염분이 없는 물)의 부족이다. 물 부족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연구내용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2003년을 '세계 담수의 해'로 선언하고 지구촌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물부족 현상이 더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님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유엔이 발표한 '2002 물 부족지표'에 따르면 12억명이 안전한 음용수(飮用水) 부족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보다 두배나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위생설비도 없이 물을 마시고 있다. 이로 인해 1년에 500만명 이상이 비위생적인 물에서 기인한 이질, 콜레라 등의 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우리나라는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수 있는 국가(파란색)로 분류돼 있지만 2025년에는 물기근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많다.안전한 식수를 이용할수 있는 인구분포 (2000년, 세계인구행동연구소).

한국, 물부족국가…녹색댐 등 저장시설 필요

1인 하루 수돗물사용 400ℓ—獨·佛보다 많아

산사 淸淨水 '물쓰듯' 해선 안될 소중한 자원

않는다면 2025년께에는 담수원 고갈과 오염으로 27억의 인구가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게 되고, 국가간 물 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유엔은 경고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가운데 약 97%가 염수인 바닷물이다. 약 2%는 극지방에서 빙상과 빙하의 형태로 존재한다. 식수, 관개용수, 공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은 0.08%에 불과하다. 유엔이 내년을 세계 담수의 해로 정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물 부족현상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강, 호수 등의 담수자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 이미 93년부터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인구행동연구소로부터 물부족국가군으로 분류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물 부족 현상은 가뭄이나 수자원의 부족에서 온 현상이 아니라 함부로 쓰고 낭비하는 데서 비롯됐다. 우리나라 1인당 수돗물 급수량은 하루 400여ℓ로 독일 132ℓ, 덴마크 246ℓ, 프랑스 281ℓ 보다 훨씬 높다. 게다가 수도관 누수로 인한 낭비가 연간 10억t이 넘는다. 현재 추세라면 2011년에는 물 부족량이 20억t에 이르고, 2025년에는 물기근 국가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물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물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제는 수요관리를 통해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수자원 절약을 위한 노력은 곳곳에서 진행중이다.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이 전국 최고인 인천시의 남동구에서는 주민들에게 절수기를 무료로 공급하며, 환경부에서도 2011년까지 3조1천억원을 들여 낡은 수도관을 교체할 방침이다.



◇순천 선암사의 약수. 사진제공=선암스님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 물 부족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들도 가시화 되고 있다. 대안댐으로 평가받는 녹색댐이 대표적이다. 녹색댐은 산에서 하천으로 흘러드는 빗물 속도를 느리게 해 산지가 머금는 물 양을 늘리고, 가뭄에는 머금고 있던 물을 흘려 보내 하천유입수 양을 일정하게 하는 산림의 홍수조절 기능을 활용하는 댐이다. 산림전문가들은 220만ha의 산림을 속아주면 5년 뒤 숲의 물 저장능력도 10% 늘어나 60억t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불교에서 우주의 네가지 구성요소인 지(地) 수(水) 화(火) 풍(風) 4대 가운데 하나인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공기와 더불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자원이다.

'아금청정수 변위감로다 봉헌삼보전 원수애납수(我今淸淨水 變爲甘露茶 奉獻三寶前 願垂哀納受, 제가 지금 맑은 물을 감로의 차로 바꾸어 삼보전에 올리오니 원컨대 어여삐 거두어 주소서)'

새벽에 가장 먼저 불전에 올리는 청정수 공양에는, 모든 진리의 근원인 법신에 생명의 물을 바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옛 스님들은 흐르는 시냇물에 함부로 발을 담그지 못하게 했다. 흔한 물이지만 물을 소중히 생각하라는 몸에 밴 가르침을 준 것이다.

물은 만생명을 잉태한 근원지다 높은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만물을 포용한다. 온갖 더러움을 안고 흘러가지만 흘러가면서 정화되어 다시 청정한 물로써 모든 생명에게 돌아간다.

오대산 수정암 우통수(于筒水), 구례 천은사 감로천(甘露泉), 화엄사 옥천(玉泉), 동두천 소요산 자재암 원효샘, 삼랑진 만어사 정신수(精神水), 경주 분황사 삼룡변어정(三龍變漁井), 순천 선암사 약수, 해남 일지암 유천(乳泉), 곡성 태안사 돌샘, 부여 무량사 샘물, 고란사 약수… 유명한 약수는 대부분 산사에 있다. 산중의 사찰에 가면 누구나 약수 한 모금을 마신다. 시원하면서도 맑고 감미로운 맛은 입 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청량하게 해 준다.

원효스님은 밤중에 타는 갈증 속에서 해골물을 시원한 감로수처럼 생각하고 마셨다가 미혹한 마음을 깨쳤다. 탐진치 삼독으로 불타는 화택과도 같은 이 사회에서 산사의 청정수는 정화수(淨化水)와 같다. 부처님 가르침이 녹아있는 한 모금의 약수를 마시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이 사회까지 맑힐 수 있는 것이다. 산사의 청정수도 지켜가야 할 소중한 우리의 자원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물도 말의 파동 느끼는 생명체"

법회시 물의 소중함 가르치는 육지장사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체가 물에서 잉태됐고, 대부분 물로 몸이 이뤄져 있죠. 물은 우주와 모든 생명체 안에서 순환합니다. 몸속에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몸밖으로 방출시키는 것도 물이죠.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주도 인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양주 육지장사 주지 지원스님의 법문은 항상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것으로 시작된다.

다소곳이 합장을 하고 눈을 감은 채 육지장사에서 길어 온 청정수를 건네받은 불자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장경을 염송한다. "물은 말의 파동을 느끼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악한 말을 하면 물의 결정도 흐트러지지만, 좋은 말을 하면 인체와 결합할 수 있는 최적 상태인 육각수로 반응하죠."

지원스님은 물의 소중함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요즘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라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은 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환경운동가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한다. 벌써 6년째 법회때 마다 물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육지장사 신도들은 생명의 근원수로서의 물을 느끼며 경건하게 마시고 있다.



◇육지장사 신도들이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물을 마시고 있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 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새 해 시방세계 장엄하니 처처가 화엄세계

한량없는 보배·大施門 열려

법전스님 조계종 종정



천지가 열리기 이전 신령스럽고 찬란한 빛이 있어 /만물의 아름다운 덕성과 차별없는 지혜를 빚어내어 /새아침 시방세계를 장엄하니 /모든 마왕은 호법의 선신(善神)이 되고 /대지(大地)는 변화하여 진불(眞佛)의 국토를 이루니 /처처(處處)가 화엄세계(華嚴世界)요 두두물물(頭頭物物)이 진리의 몸을 이룹니다.

(중략) 사람마다 갖추고 있는 생명의 참다운 빛은 /본래부터 원만하여 증감이 없고 /두루하여 비추지 않는 곳이 없으나 /구하려면 얻을 수 없고 버릴려고 해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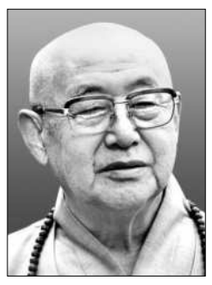
본래 이루어졌으니 옛 것이 아니요

신령스러워도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허철영통(虛徹靈通)한 이 속에 한량없는 보배와 대시문(大施門)이 열려있어 /거두어 들이면 티끌 속에 사해(四海)가 포함되고 /펼치면 우주법계에 가득한 무생복락(無生福樂)의 기틀을 누구나 얻게 하니 /이것이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의 풍류(風流)요, /일면불(日面佛)과 월면불(月面佛)의 본분사입니다. (후략)

욕망·집착 버리면 밝은 천하

덕암스님 태고종 종정



해가 바뀌어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집착이 아닌가 합니다. 인간의 지나친 욕망과 집착은 창조와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물질을 파생시키고 있으며, 그 물질은 다툼의 씨앗이 되어 인간들에게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환경을 파괴시켜 인간의 복되고 평화로운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성의 근본은 양심과 자애와 예절과 수치심이 본질이며, 이것을 잘 지키고 향유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부처님의 교지(敎旨)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 무엇이든 가득채우려는 지나친 욕구를 접고 가진 것을 하나 둘씩 덜어내고 비워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한물건도 가지지 않았고 세상을 떠날 때 또한 빈손으로 가네. /장차 한물건도 가지고 갈수 없거늘 욕심부려 내 몸에 업만 뒤따르네 /욕망과 집착을 함께 버리면 밝은 천하를 얻게 될 것인져 /능히 이와같이 행하는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수 있으리라.

깨고 깨어 제법실상 바로 보라

도용스님 천태종 종정



佛放眉間白毫光(불방미간백호광)
廣照東方萬八千(광조동방만팔천)
卽說妙法汝當知(즉설묘법여당지)
從佛口生佛衣覆(종불구생불의부)

"미간백호 광명 놓아 동방세계 비추시니 설하시는 묘한 법문 네 마땅히 알지니 우리모두 부처 닮은 부처님의 자녀일세"

꿈속에서 꿈을 꾸니 깨고 봐도 또 꿈이라
깨고 깨고 다시 깨어 제법실상 바로 보라
밝고 밝은 이 자리가 화장세계 그 아닌가

나무 일체중생희견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일월등명여래불

화합으로 풍요로운 삶 서원

혜일 대종사 진각종 총인



천지만물은 그 뿌리가 하나요/ 동서고금의 역사는 한가지의 꽃이로다/ 물을 차고 떠오르는 아침 태양이 사바를 비추니/ 바람은 고요하고 허공은 창창한데 오로지 심인의 소리뿐이로다/앞과 뒤를 논하고 본과 말을 논하는 것들일랑 청정바다에 던지고/ 선과 악과 옳고 그름도 모두 놓아 버려라/ 비로자나 법 바퀴는 오직 허공을 상대하고/ 군생들의 안락함이 곧 마음에 있음을 알게 함이로다.

이 세상의 많은 생명들이여! /귀 기울여 자연의 소리를 들어라. /하나의 달이지만 천 강에 비치면 천 개의 달이 됨이라. /하루는 24시요, 일년은 12달이라 /하늘과 땅과 중생들이여!

삼삼오오 떼를 지어 탐진치 삼독을 잠재우고 /몸과 입과 뜻을 모아 육자진언을 노래하세! /해탈의 노래를 하세!

옴! /부처님은 공경의 대상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천의 대상이요. /승단은 화합의 대상이다. /자타를 융합하는 화합정신으로 새해에는 온 세상이 대오각성 하여 /안심입명과 풍요로운 삶이 되도록 다함께 마음 모아 서원 정진합시다.

보은의 한해 되도록 정진

총지종 록정 종령



새해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갚는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은혜 갚는 행동이란 항상 베푸는 마음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비록 생사에 있으나 선근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는 선근이 끊어지는 것이니, 이런 까닭에 모든 부처님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사람을 칭찬하시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은 대비(大悲)의 근본이며, 선업(善業)을 여는 첫 문이며, 구경 불도에 이르는 문입니다. 보은을 나의 수행지침으로 삼아서 은혜 갚는 일에 정진합시다.

흩어진 민심 한마음으로 엮자

정각스님 법륜종 종정



계미년 새해 우리들은 무엇보다 민족 화해와 국민 통합을 앞당기는 일에 결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 계층 세대 빈부 등 날날이 흩어진 민심을 한 마음으로 엮어내는데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거대한 대한민국이 민족의 저력대로 세계의 중심에 서게 하는 것은 특별해 보이는 이들의 몫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위가 보잘것 없고 자신의 일이 하찮아 보인다 하더라도 성심껏 맡은 직분에 충실할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삶의 참의미를 발견하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곧은 길입니다.

세계인류 영원한 화합 이루세

지명스님 조동종 종정



正偏回互 萬法圓融 佛光普照 洗淨穢土 /禪蜜敎重興 普度衆生 癸未黎明 平統世和

(정편회호 만법원융 불광보조 세정예토 /선밀교중흥 보도중생 계미여명 평통세화)

본체와 현상이 원융하여 걸림이 없으니, 불타의 자비광명 널리 고루 비추사 사바예토 청정하게 세척 정화하여 선의 비밀한 가르침 중흥하여 모든 중생 제도하며 계미신년의 새 아침이 밝아옴에, 남북은 평화로써 통일 이룩하고 세계인류는 화합으로 정토에 머무오리.

이웃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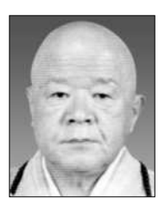
혜안스님 보문종 종정



찰나찰나 지은 업은 언젠가 자신이 받는 것임에 맺은 자가 자기라면 푸는 자 또한 남이 아닌 자신인 것입니다. 이런 밀밀(密密)한 부처님의 인과도리를 깨달아야 무명으로 뒤덮인 본성을 되찾을 것입니다. 베풀기보다는 탐욕과 분노로, 성현의 지혜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어리석음으로 지었던 지난 날의 모든 허물을 참회합시다. 새 해, 억겁의 시간속 인연을 함께 하는 이웃의 고통을 곧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보듬겠다는 보살행의 서원을 세워 실천합시다. 실천은 사무치는 자기 수행정진에서 비롯됩니다.

주체성 찾아 우주 주인공 되어야

일공스님 원융종 종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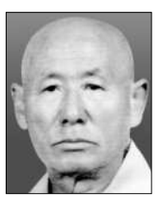


人皆藏圓光 不知在此心
戒定慧修知 智慧大光明

사람마다 원만한 빛을 감추고 있건만
모두가 자기 마음에 있음을 알지 못하니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온갖 비뚤고 어두운 길을 버리고 바르고 밝은 길을 밟으니
마음의 온갖 번뇌와 흔들림에서 벗어나 안정되고
자기의 잃어버린 주체성을 찾아 우주의 주인공이 되어 지혜의 광명을 발견하여 사세를 가장 올바르고 슬기롭게 살게 될 것이다.

어서 깨달아 중생을 건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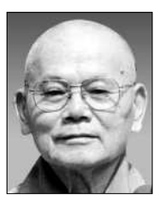
봉암스님 일붕선교종 종정



시간은 머물지 않아 한 달 두 달 지나가니
늙음이 재촉하고 일년 이년 흘러가 한없이 세월이 가네.
명예와 재물은 아침이슬과 같고,
괴로움과 영화로움은 저녁연기로다.
간절히 복짓기를 원하오니 어서 깨달아서 중생을 건져라.
이생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오는 생애 한없이 한탄하노라.

청산녹수 벗해 득안심정을

도암스님 대승종 종정



텅 빈 산,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두런 두런 말소리만 들려오네. 저녁 햇살, 깊은 숲 속 뚫고 들어 또다시 푸른 이끼 비추네. 중생들이여, 번뇌에 고통스러우신가. 그렇다면 새해에는 산행을 한번 해 보시라. 득안심정(得安心淨)하리니. 산은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현상계이기는 하나 심산유곡에는 붓을 들어 그리지 않았어도 청산명화가 있고, 줄이 없어도 만고불변의 거문고 소리를 내는 계곡물이 있지 않은가. 청산녹수를 벗하여 대자연의 고마운 선물을 즐겨보시라.

아미타불 원력으로 정토 실현

태허스님 본원종 종정



其佛本願力 聞名欲往生 皆悉到彼國 自到不退轉

<무량수경>에서 말한 법구입니다. 본원종이라는 종명은 여기서 말한 본원이니 아미타불의 인행시에 법장보살이 수억천만년전에 세자재왕불에게 사십팔대원을 말할 때 제십팔원이 본뜻을 말하는 동시에 이상의 법구를 말하였습니다. 이상의 법구에서 본원이라는 뜻을 따라 종명을 정하였으니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해서 너나가 함께 불도를 이루면 이땅에 불국정토가 실현될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길

혜안스님 무량종 종정대행



우리 모두가 보살심으로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남과 이웃을 나보다 먼저 위하는 마음이 앞설 때 동서가 화합하고 남북이 화합하여 우리 민족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너와 나와 미움이 사라지고 원결이 풀리고 방방곳곳에 우담바라가 춤을 추고 온세계가 화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늘진 곳에 희망과 용기를 주고 병든 이에게 어진 친구가 되고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하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온세계 온 인류가 한송이 꽃이 되고 방방곳곳이 불국토가 될 것입니다.

오대양 육대주 희망의 새 씨앗

열반종 해곡 종정



삼천리 금수강산에
계미년의 새 태양이 떠오른다.
이땅에 드리웠던 무명의 장막이 걷히고, 화합과 평화의 신천지가 펼쳐진다.
일체중생이 실유불성이니 만인이 천백억화신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온 몸으로 누리며,
오대양 육대주에 희망의 새 씨앗을 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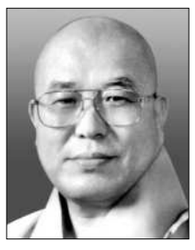
신년법어 전문 buddhanews.com

2003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역시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려는 불교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질 것이다. 어떤 계획과 포부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인지 불교지도자들에게 신년 계획을 들어보았다.

불교지도자들 "새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스님들 정보화 인식 고양

불교정보화협의회장 현성스님



지난 해 창립된 불교정보화협의회는 올 한 해 동안 불교계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 고양 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무엇보다 스님들에게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좀더 연구해서 스님들이 PC 활용과 인터넷 활용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생각이다. 불교정보화협의회는 인터넷 포교사 양성 방안 등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사업들을 개발 실현함으로써 불교계 정보화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군포교 시스템 확립에 매진

군불교위원장 성광스님



올해는 조계종과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군포교 시스템을 확립할 것이다. 군포교의 새장을 여는 '군포교비전 21'을 전개하여 군사찰 정보화와 불자들의 정예화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신도 배가 운동의 기틀을 마련하고, 모범적인 청년 불자들이 군과 사회로 이어지는 신행활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작년 뜻있는 불자들이 '1사찰 1군법당 결연사업'에 보여준 많은 성원과 관심을 올해도 기대한다.

어린이 포교 후원회 결성

불교어린이지도자련 회장 정여스님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에도 불구, 종단적 차원은 물론 불자들의 관심이 부족하다. 이러한 무관심 극복을 위해 어린이 포교 후원회 결성을 통해 포교기금을 마련하고 어린이 법회 교재인 <연꽃>지의 발행부수를 늘려서 어린이 법회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포교를 위해 불교설화 애니메이션 제작은 물론 어린이 법회 관련 자료를 재편집해서 자료실을 구성, 공개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불교환경연구소 설립 기반확립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수경스님



출가를 입산(入山)이라고 한다. 자연을 상징하는 산은 모든 이의 귀의처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해탈한다. 해탈은 탐진치의 여읨이다. 그런데 자연을 이익 추구의 수단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오만함으로 귀의처는 참담하다. 어느덧 오만함은 우리들 속에 견고하게 똬리를 틀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개발로 인한 피해자이며 동시에 가해자이다. 올 한해, 특히 불교환경연구소 설립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으로 삼을 것이다.

불교학 분류체계 바로 잡을 것

한국불교학회장 권기종 교수



올해는 학회 창립 30주년을 맞는 해다. 학회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의 불교학 분류 체계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학진이 내놓은 분류표에 의하면 불교 교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파불교시대의 아비달마 불교와 한국불교사상 부분이 제외돼 있다. 학회 차원에서는 학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질 높은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생활불교 실천 위해 더 노력

천태종 중앙신도회 김유혁 회장



새 해는 양띠 해에 해당한다. 양은 온순하며 무리 지어 어울리되 파당을 짓지 않는다 하여 그들이 살아가는 특징을 군이부당(群而不黨)이라 한다. 세훈(歲訓)이 시사하는 것처럼 대중적인 생활불교도로서의 그 보람을 모든 이들과 더불어 함께 해갈 것이다. 특히 새해가 금강대학교 개교원년(開校元年)이 되는 만큼 석학(碩學)의 가르침을 보다 널리 선양해가기 위한 터전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갈 것이다.

인천·울산 등 지부창립 지원

전국 경찰불교회 김중겸 회장



나누는 삶을 실천하자는 것이 경찰 불자들의 올해 생활 목표다. 상을 내지 않으면서 불자답게 보시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인천지부와 울산지부를 올해 내에 창립하고, 전주 강릉 지부의 창설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불교회의 사명은 경승단의 경찰 포교를 위한 디딤돌, 전진기지가 되는 것이다. 올 한해도 전 · 의경 포교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다.

모든 공공기관 불자회 결성 추진

한국공무원불자련 노옥섭 회장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는 2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수행정진해 왔다. 7천여 공무원불자들은 각 기관 불자회들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광역시 · 도 지역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에 불자회를 결성해 나갈 계획이다. 각종 수련법회와 성지순례, 수계법회 등을 통해 회원 개개인의 불심을 다지는 한편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친절 · 봉사하는 공무원불자상을 세워 나갈 것이다.

교리강좌 증설…교육 내실화

부산불교신도회 류진수 회장

신행단체장들을 대상으로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론적 체계 확립을 이끌어 왔던 부산불교신도회 아카데미 과정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이는 신도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천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천하는 불자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신도회 산하 불교자원봉사단 모임을 활성화하고, 미가입 신행단체의 참여 유도로 신행단체간의 화합과 연대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비의 등달기' 사업 대중화

우리는 선우 박광서 대표

지난해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펼친 '자비의 등 달기' 사업을 대중화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님오신날과 어버이날이 겹치는 올해는 '효(孝)의 등 달기' 캠페인을 중심적으로 펼칠 것이다. 또 지난해 문을 연 결손가정 청소년 쉼터인 그룹홈 '선재동산'을 매년 1개소 씩 개원해, 가정 해체에 따라 일시적 또는 장기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불교시민운동가들과 복지단체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전공부와 티베트 인도 지원 사업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다.

전국신도회와 통합 마무리

조계종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

중앙신도회는 조계종을 대표하는 신도단체로서 대사회적 영향력 증대를 목표로 삼았다. 특히 올해에는 재가불자들의 핵심단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전국신도회와의 통합을 마무리 지어 재가불자 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조직적 기반과 활동력 배가에도 노력을 기울여 사찰신도회의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제별, 대상별 신도 임원연수를 실시, 견고한 단결력을 형성하는 등 양질의 교육연수를 이어갈 각오이다.

직장 · 직능별조직 구분 교류 확대

진각종 총금강회 손성섭 회장

새해 개미년을 맞아 총금강회는 지난해 전국을 순회한 밀교교리대법회를 올해에도 연중기획 행사로 실시하는 한편, 총금강회의 조직도 직장 및 직능별로 구분해 신도 간 교류와 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총금강회의 중추조직이 될 청장년층의 흡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총금강회에 '젊은 힘'을 불어넣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총금강회 사이버 광장을 통해 신도들의 의견을 수렴, '참여하는 총금강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불교여성전문인력 네트워크화

불교여성개발원 이인자 원장

불교여성개발원은 올해를 불교여성전문인력 네트워크 형성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간담회와 연 1회의 정기 학술세미나를 열어 불교 여성학자들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여성불자의 의식과 신행생활을 알아보는 의식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불교여성학 개황조사를 실시하고 현존하는 지도자급 여성불자 100인을 선정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한편 올해에는 불교여성개발원 회보를 발간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여성불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등 대중화에도 앞장설 것이다.

지역·지부 지원 시스템 구축

대한불교청년회 정상옥 회장

서로 도와주는 조직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겠다. 지난해 청년 포럼 및 의제 21 위원회 출범을 통해 대안을 모색한 데 이어, 대불청은 가시적으로 지역 지부를 활성화시킬 사업을 실행할 것이다. 중앙 주도의 행사를 가급적 지양하고 지부 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중앙조직은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것이다. 만해회관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발족, 불청 업무 표준화 작업, 전국 사무지국장 및 간사 워크숍 등도 올해 대불청의 중요한 사업으로 꼽을 수 있다.

일간지 불교회 창립 적극 유도

언론사불자련 정종철 회장

지난해 10월 창립한 언론사 불자연합회는 올 한해 언론인 불자들의 우의를 다지는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며 지속적으로 법회를 열어 불자 언론인들의 상호교류를 활발히 할 것이다. 또 언론사내 불교의 저변확대와 타 직장직능 단체와의 교류를 추진하고, 아직 불자회가 결성되지 않은 일간신문사의 불교회 창립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언론매체에서 불교왜곡이나 종교편향문제가 발생할 경우 불교계의 입장을 대변하는데도 앞장설 것이다.

해외포교 전진기지 설립 주력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조우영 회장

조계종 국제포교사회는 지난해 11월 제3대 회장단 출범과 함께 기획부, 교육지원부 등 6개 부서와 거주지별 6개 지부로 개편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150여 회원들의 상호간 유대를 공고히 하고, 국제포교사회의 기본역할인 외국인 포교 활성화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모든 회원들의 인화단결, 해외포교 전진기지 설립, 외국인대상 법회 개설 등 외국인포교 기반을 닦아가는 일에도 힘을 기울여 국제포교사들의 활동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올해 미국이민 100·미주전법 40주년

1902년 12월. 증기선 갤릭호를 타고 제물포항을 떠난 한인 102명은 이듬해 1월 13일 3주간의 긴 여정 끝에 하와이에 도착, 사탕수수밭 등에서 갖은 고초를 겪으며 미국 이민의 씨앗을 뿌렸다. 한인들은 쪽빛바다와 아름다운 풍광을 뒤로 한 채 드넓은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움막에서 살며, 오직 가난한 조국의 암울함을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소처럼 일했다. 한국인의 끈기는 타향에서도 꿋꿋했다. 한인들은 뼈가 부스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자식들만은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고통의 세월을 이겨냈다. 생활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던 1960년대, 부처님의 법음에 목말랐던 한인들은 업무차, 여행차 방문한 본국의 스님들에게 간곡히 요청하여 한국불교를 뿌리내렸다. 21세기를 맞은 미국 내 한국불교는 이제 교포위주에서 현지인 위주로 포교방향을 잡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사찰들은 한인이민 100주년, 미주포교 40년을 맞아 미국 전역에서 다양한 한국불교 알리기 행사를 마련 중이다.



한인이민 100주년기념 조형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12일 하와이 파와아공원(Pawaa Park)에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한 조형물을 설치한다.

평화기원법회 세미나 등 행사 다채

2003년 이민 100주년 및 미주전법 40년을 맞아 미국내 한인사찰이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펼친다.

LA 관음사는 2월부터 8월까지 '미주전법 40년사' 편찬, 이애주 초청공연, 미주포교 40주년 불교학술심포지엄, 불교미술전시회, 대강연회, 찬불기도 음악회 등 8개 행사를 준비 중이며, 하와이 무량사는 5월 이민 100주년 기념세미나, 세계평화기원대법회, 한인문화원 개원식, 마우이 선원개원식 등을 준비중이다. 또 미주현대불교는 맨해튼에 '한미 불교문화센터' 건립하며, LA포교사단도 이민봉사팀과 개척포교에 적극 나선다.

100년 전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들의 첫 기착지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간직한 하와이의 무량사(주지 도현)는 하와이 이민100주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15~17일 이민 100주년 기념세미나, 문화행사, 세계평화기원대법회, 한국문화원 개원식, 한인들이 일하던 사탕수수농장이 있던 마우이 섬에 선원 개원 등을 준비 중이다.

특히 한국의 민족문화와 불교문화를 홍보하여 동서문화가 넘나드는 가교역할을 하게 될 한인문화원은 지하 1층 지상 5층에 건평 3천5백평 규모이다. 전통양식의 한인문화원에는 대강당, 평화문제연구소, 국제선원, 한인학교, 민족문화도서관, 박물관, 문화센터, 하와이불교TV등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무량사는 9월 신학기에 4년제 정규대학인 하와이싯다르타대학을 개교한다. 무량사가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2001년 9월 주정부 허가를 맡고, 지난해 초 미국서부사학연합회 실사를 거쳐 9월 신학기 개교하는 4년제 정규대학, 2년제 대학원이다.

미 전역의 한인사찰로서도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LA 관음사(주지 도안)도 이민 1백주년, 관음사 창립 30년을 맞아 12월초 '이민 1백주년 및 관음사 창립 30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기념행사 준비위는 내년 2~8월 미주전법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는 '미주 전법 40년사'를 편찬한다. 40년사에는 도안스님, 삼우스님, 김형근 미주현대불교사장등이 '교포포교의 현실과 과제' '현지인 포교 성공사례' '영문문서포교의 현황과 과제' '국제포교의 문제점과 방안' 등을 수록할 예정.

또 3월 9일 30년 기념 대법회 및 30년 모범불자, 20년 근속 불자 시상식, 16일 기념 대강연회와 찬불기도 음악회, 23일 본국 종단대표와 미국불교학자 초청 학술심포지엄, 4월 재미 미술가 불교작품 전시회, 8월 이민1백년 전통한국 미술품 전시회, 관음사 30년사 기념책자 발간 및 소장품 전시회 등이 다양하게 준비된다.

뉴욕 소재 미주현대불교사(사장 김형근)를 비롯, 한국과 미국 동포사회의 불교계 인사들은 맨해튼에 '한미 불교문화센터'를 건립한다.

한국 불교문화를 미국 주류사회에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전초기지가 될 '한미 불교문화원'은 400여평 규모이며 갤러리와 공연장, 스튜디오, 법당 등이 들어선다.

한편 LA 포교사단(단장 김안수)은 미국포교 40주년을 맞아 개척포교를 시작한다. 포교사단은 이민변호사 자문봉사팀을 두고, 이민자 포교에 나선다. 이민봉사팀은 미국내 90여개 조계종 사찰과 연계해 교포불자들이 정착과정에서 청소년, 이민, 의료, 장의 문제 등 불교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내년 5월 개원하는 지하 1층 지상 5층에 건평 3천5백평 규모의 하와이 무량사내 한인문화원. 한국의 민족문화와 불교문화를 홍보하여 동서문화의 가교역할을 하게된다.

LA관음사 심포지엄·불교미술전등 8개 행사

하와이무량사 싯타르타大개교·한인문화원 개원

미주현대불교 맨해튼에 한미불교문화센터 건립

미주전법 '큰 수레' 이끈 스님들

미주포교 40년사에서 '전법의 큰 수레'를 이끈 스님중 대표적인 분들이 숭산스님(화계사 조실) 대행스님(한마음선원 원장) 도안스님(관음사 주지)이다.

숭산스님은 교포위주 포교에 머무르고 있는 여타 사찰들과는 달리 직접 현지인들에게 한국선불교를 알렸다. 에세이집 <만행>으로 유명해 진 현각스님을 비롯해 무상사 조실 대봉스님, 미국 캘리포니아에 한국사찰을 짓고있는 무량스님 등 60여명을 출가시켰다.

1972년 도미한 숭산스님은 세탁소에서 노동을 하며 포교당을 개척했다. 스님은 현지인 포교에 중점을 둬 예일대, 프린스턴대, 하버드대, 캠브리지대 학생들의 법회에 주력했다. 스님의 한국선불교 전파노력은 1976년부터 급속도로 확장됐다. 현재 무각스님(화계사 국제선원장)인 스티븐 미첼이 쓴 <부처님께 재를 털면>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 책을 읽은 많은 젊은이들이 제자가 되어 현재 5만에 이르는 벽안의 제자들을 두고있다.

또 대행스님은 백악관, 뉴욕 등에서 대법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였으며, 미국현지에 4개의 지원을 두고, 현지인 포교 및 어린이 청소년법회 개최 등 2, 3세 교포포교에 주력하고 있다.

도안스님은 1974년 3월 개원한 LA 나성관음사 주지로 추대돼 미국에 처음으로 불교방송과 불교TV설립, 불교교양대학 Korea Center School(성인영어학교) 개교를 통해 포교에 나서고 있다.

숭산스님 현각·대봉등 현지인 60여명 출가시켜

대행스님 4곳에 한마음선원…2·3세 포교주력

도안스님 불교전문 라디오·TV운영, 교양대 설립



◇숭산스님(왼쪽에서 두번째)이 98년 뉴욕선센터에서 외국인 제자들에게 설법하고 있다.



◇97년 한마음선원 시카고지원 주최로 노스쇼어 센터에서 열린 대행스님초청법회에는 현지인 1천여명이 참석,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미국내 한국불교 현황

5개종단 사찰 110곳 스님·법사 200여명

현재 미국에서 포교활동을 하는 조계종 태고종 진각종 보문종 법화종 등의 한국사찰은 총 110곳에 달한다. 한인 스님과 법사들은 200여명.

25개국에 분포하는 한국불교의 해외 사찰 190여곳, 3백여 스님들의 수를 감안하면 미국불교는 해외포교의 60여%를 차지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1960년대 한국최초의 절은 미국 콤럼비아대 교환교수로 방미한 서경보스님이 필라델피아에 창건한 능인선원. 이후 숭산스님이 72년 보스톤 브라운대 주변에 아파트를 한 채 얻어 홍법원 개원한 것을 시발로 74년 케임브리지 선원, 75년에 뉴헤이븐 선원, 뉴욕선원을 세웠다. 76년에는 로스앤젤레스에 첫 한국사찰인 선원 달마사를 세웠다. 정달스님도 72년 뉴욕에 삼보사를 창건하여 본격적인 포교에 나섰다.

1974년 LA관음사(도안)가 개원하며 교포포교의 새 장을 열었고, 대원스님이 76년 하와이에 대원사(현 무량사)를 창건했다. 87년 6월에는 대행스님(한마음선원 원장)이 미국 캘리포니아 모건힐에 지원을 개원한데 이어 89년 뉴욕지원, 90년 뉴욕주 메사페쿠아시지원, 91년 L.A 지원, 시카고지원을 열었다.

1989년 미주현대불교사가 설립돼 월간 <미주현대불교>와 계간 영문잡지 <목탁>을 발간됐으며, 96년에는 동국대가 미국 LA에 동국로얄대를 개교했다.

98년 12월에는 하와이 무량사가 동안거를 맞아 미국 최초의 한국스님 선방인 태평선원을 개원했다.

앞으로 미주불교의 과제는 현지인포교에 눈을 돌리는 것이다. 현지인 포교를 위해 외국어 번역 한국불교 서적을 늘리고, 인력양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와이 무량사 주지 도현스님은 "미국인들에게 불교를 전파하는 것이 과제"라며 "동시번역체계를 갖춘 교리공부와 법회, 참선수행 프로그램으로 현지인 포교에 나서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동국로얄大 개교· 태평선원 개원

교포위주 탈피 현지인 포교과제

주요종단 총무원장 신년사

원융바탕 상생·평화시대 열기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새해에 우리 2천만 불자와 국민들은 불이와 원융사상으로 화해와 대화, 그리고 협력을 통한 상생과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계의 고통과 업보 윤회가 모두 자기 마음에서 빚어진 것이라 하였습니다. 화합과 협력의 밝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안의 지혜를 밝히고 부단히 닦아 나가야 합니다. 새해에는 저마다 마음을 맑고 밝게 하여 화합과 희망의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데 한 마음으로 협력하기를 기원합니다.

믿는사회 되도록 의식전환 필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



새해에는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 민족과 국가에도 많은 변화의 물결이 예상되고 새로운 질서가 요구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제 자기의 직분에 맞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언행이 일치하는 신뢰의 사회가 되도록 새로운 사고와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세계 또한 새로워지므로 우리는 아집과 내 이익만을 추구한 이기심을 참회하고 이제는 우리 모두 자리이타의 보살정신을 발휘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 처한 위치에서 불법 실천해야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세상을 고통의 바다로 만드는 근원은 탐 · 진 · 치 삼독심입니다. 탐내고, 성내며, 어리석은 그 마음을 잘 다스려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부처님의 동체대비 정신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체대비 정신을 바탕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행동하고 대접받는 사회가 바로 정토세계입니다. 이를 위해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그동안 배우고 닦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중단없는 수행으로 새 날 시작

진각종통리원장 효암대정사



앞으로 종단발전의 핵심은 '진각종의 대중화'에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보다 쉽고, 즐겁게 심인진리와 만나서 편안하게 불법을 알게 하도록, 다양한 모델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러한 방편들이 생명력 있도록 교법과 교학을 체계화시키고, 종단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창종 100년을 향한 장기적인 종책사업들의 첫 성단을 세우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중단 없는 수행과 실천만이 새날을 여는 시작이고 끝입니다.

참다운 '내 주인공' 찾는 해 서원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선상에서 새로운 생각을 합시다.

한마음의 주인공'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한평생 허망한 마음으로 방황과 번뇌의 사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업의굴레에서 윤회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는 현재의 '참다운 나의 주인공'을 찾아야 합니다.

불자들은 계미년에도 큰 서원을 세워 참생명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청정한 영식(靈識)이 뚜렷하게 밝아지고 망상의 늪에 빠지지 않고 깨달음의 삶을 영위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포교 '청신호'

대불어 '연꽃'지 도서벽지등 전국에 무료배포

영상세대 겨냥 애니메이션 제작
지도자 지침서 제작, 후원회도 결성

어린이포교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여, 대불어)가 '연꽃'지 무가지 전환, 플래쉬 애니메이션 제작 등 어린이포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해 기대를 높이고 있는 것.

대불어는 올해부터 어린이 교화를 목적으로 20년 전 만들어졌던 교계 유일의 어린이법회용 교재 및 어린이용 불교잡지였던 '연꽃'지를 무가지로 전환, 도서 벽지, 군법당 등 전국에 무료로 배포한다. 일부 구독자나 유관단체, 후원자에게만 발송되던 '연꽃'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동시 보급되면서 주별 설법, 교리, 찬불가, 연꽃 만화 등의 내용을 담아 어린이 법회를 보는 곳이면 어디든 보내진다. 현재 40쪽 분량으로 3,500부 발행되던 '연꽃'은, 16쪽 컬러 1만부로 늘려 전국의 어린이 법회 현장 구석구석에서 어린이법회 활성화를 알리는 청신호로 불을 밝히게 된 것이다.

'연꽃' 무료 배포로 밝혀진 청신호는 온라인에도 이어진다. 대불어는 교사들을 위한 법회 지침서 '동련'을 인터넷을 통한 자료제공으로 변화시켜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대불어 회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한다. 올 1월부터 각 지역의 소식과 법회 자료를 홈페이지(www.dongja.org)에 공개함으로써, 지역별 유대관계 확대와 어린이 법회 자료와 정보 공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상 세대를 겨냥한 플래쉬 애니메이션 제작과 정보화 사업도 비중을 대폭 높였다. 현재 본생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 '대답하는 바위' '황금거위의 깃털' '사냥꾼의 줄가인연' 등을 선보이고 있는 플래쉬 애니메이션은 앞으로 '연꽃'지와 연계 매월 시리즈별 제작 업그레이드시켜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화시대에 맞춘 다양한 계층 포교를 위해 회원자료실, 데이터 은행, 회원관리 프로그램, 어린이 총림, 연꽃기자, 연꽃VJ 등의 세부적인 정보화 사업 추진으로 온라인에 어린이 포교 열기를 달궈 놓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어린이지도자연수회, 법회현황조사,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나타난 불교소재를 활용한 지도자를 위한 지침서 제작 등의 사업을 내놓았다. 특히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나타난 불교소재를 활용한 지도자 지침서는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법회 현장과 학교교육의 자연스런 연계를 가져와 교육 효율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불어는 신년 사업계획과 함께 어린이 포교에 대한 스님과 불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어린이포교후원회 결성을 서두르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국민대통합 종교인이 앞장"

조계사 청년회, 10대종교 성직자 초청법회

10월까지 매달…오영숙 수녀 첫 강연

"21세기 화두는 종교인들이 공존하며 화합과 상생의 길을 찾는 일입니다."

기독교 최대 명절인 성탄절 전야, 연인들이 손을 마주 잡고 성당이나 교회로 모이던 시각.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는 청년 불자들과 수녀들이 손을 마주 잡았다.

이런 이색적인 자리는 조계사청년회 회원들이 국민대통합에 종교인들이 먼저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자 마련한 이벤트. 조계사청년회는 이날부터 오는 10월까지 매달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를 비롯해 이슬람, 힌두교 등 10대 종교의 성직자들을 초청, 상대 종교를 배우는 법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은 처음으로 가톨릭수녀회 오영숙(테레사) 수녀가 조계사를 방문했다. 오 수녀는 암 투병과정의 고통스런 상황에서도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스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문규현 신부와 함께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운동에 뜻을 함께 해 온 인물이다. 오 수녀가 가져 온 화제는 "종교를 떠나 한 생명인 지구공동체 문제 해결에 나서자"는 것이었다. 그는 "생태계를 살리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돕는 일에 종교의 차이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하자, 평소 북한산 살리기에 많은 관심을 쏟아온 조계사 청년회 회원들도 큰 박수로 화답했다.

이웃의 아픔을 알고 자연을 살리며 바르게 사는데는 불자, 가톨릭 신도, 이슬람 신자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지역과 세대간 갈등이 다소 드러난 대선이 끝난 지금은, 대화를 통해 이웃 종교를 배우고 서로 화합해 우리 사회의 당면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며 "조계사 대웅전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화합의 목소리가 시민들에게 참된 법음(法音)과 복음(福音)이 되길 기원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주민투표 전 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조계종환경위등 미륵산케이블카 반대 한목소리

조계종 환경위원회, 사찰생태연구소 등 불교계에서 통영시가 강행하고 있는 미륵산 케이블카 건설사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통영시가 미륵산케이블카 건설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토지수용과 주민투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가 삭도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케이블카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조사를 진행중에 있는 상황에서 미륵산 파괴와 사찰수행환경 파괴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공사강행과 토지수용을 추진하는 것은 불교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통영시는 국비지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민투표 실시 이전에 미륵산 케이블카와 관련한 모든 우려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동우 기자

불교방송 DMC 입주 업체 선정

이달 계약, 5년내 완공 계획

불교방송이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입주 업체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내 3만2천276㎡(9천700여평) 규모의 권장유치시설에 입주할 업체로 불교방송, 팬택, 코디콤, KBS미디어, 매일경제TV, 한독산학단지 등 6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12월 24일 밝혔다.

권장유치시설은 벤처시설용지(2만3201㎡)와 입주기업용지(1만4649㎡), 외국기업용지(9490㎡) 등 3개부지로 불교방송은 이 가운데 입주기업용지의 땅 1433평(4733㎡)을 127억여원에 분양받게 된다.

이에따라 불교방송은 10일 이내에 매매대금의 10%인 12억여원정도를 서울시에 납부해야만 내년 1월경 서울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서울시는 계약이 체결된 뒤 2년 이내에 공사에 들어가 5년내에 완공할 계획이다.

불교방송의 한 관계자는 "10일내에 매매대금의 10%를 납입해야하고 공사가 시작되면 2년이내에 300억원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교방송 이사회는 12월 17일 열린 이사회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 입주에 관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결의했다.

김두식 기자

목탁소리

댐건설 사전작업?

남 동 우 (취재1부 기자)

수자원공사가 댐 설명회를 위해 마천지역 주민들에게 버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해 댐 건설을 위한 물밑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사건은 12월 23일 경남 함양군 마천, 유림, 휴천면 주민 140여명이 지리산댐(마천댐) 설명회에 가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버스와 점심 제공 등 경비 일체를 수자원공사측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특히 댐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전에 준비한 수몰지역 진안군 정천면 농협 임종구 조합장과의 대화도 '공식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천면발전협의회측이 제지해 댐 건설 추진을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었느냐는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와 관련 수자원공사 댐환경처 김기호 과장은 "경비부담은 마천면발전협의회측의 요구로 이뤄졌다"고 말하고 "경비는 수자원공사에 책정되어 있는 홍보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경일 지리산생명연대 사무처장은 "마천면발전협의회는 당초 지리산댐건설추진위원회였다가 지역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발전협의회로 이름만 바꾼 단체"라고 지적하고 "수자원공사의 경비지원은 댐 건설을 위한 물밑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옛말에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관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다. 수자원공사측의 주장처럼 23일 설명회가 단순한 홍보성 행사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함양군청이 독자적으로 댐 추진에 나서고 있고, 과거 지리산댐 추진으로 댐 노이로제에 걸려있는 지금, 수자원공사와 마천발전협의회의 처신은 댐 건설 추진 물밑작업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 도와요"

서울시 환경미화원 소쩍새마을에 성금 1400만원

폐품·재활용품 팔고 박봉 쪼개 마련

"희망 잃지않고 살아가는데 도움됐으면"

"깨끗한 정토세상 일구는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요"

서울 25개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20명이 12월 23일 중증장애인이 모여 사는 소쩍새마을을 찾았다. 일년 동안 환경미화원 5000여 명이 재활용및 폐품 등을 수집해 팔거나 박봉을 쪼개 3000원씩 모은 후원금 1천4백여 만원을 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

환경미화원들의 따듯한 마음을 전달받은 소쩍새마을 원장 현각스님은 "인정이 점점 메마르고 있는 요즘의 세태속에서 자기 살림도 힘든 환경미화원들이 먼저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살행인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일은 91년부터 소쩍새마을을 남모르게 도왔던 은평구청 환경미화원 이명자 보살이 제안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 보살은 은평구청에서 미망인으로 구성된 환경미화원 24명과 함께 어려운 이웃 돕기에 앞장서 일명 '빗자루 아줌마'로 통한다. 이 보살은 "비록 우리들이 남을 도울 정도로 넉넉하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모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환경미화원들의 보살행은 이미 20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82년부터 매년 수재의연금을 전달해 왔고, 92년부터는 충북 음성꽃동네를 방문, 본격적으로 불우이웃 돕기를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후원금 1천만원과 트럭 2대분의 의류를 마련해 소쩍새마을을 찾았고 지금까지 음성꽃동네와



◇서울시 한경미화원 20여명이 12월23일 소쩍새마을 원장 현각스님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가평꽃동네, 소쩍새마을을 번갈아 가며 돕고 있다. 이외에도 94년 8월에는 심각한 한해를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도왔고 95년에는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서 희생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

이홍성 노조위원장은 "어느순간 세상에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이 있다는것을 알고 성금을 모으게 됐다"며 "환경미화원들이 분명 사회적 약자지만 조합이 존속하는 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전 인도 승려연합회소속 스님들 주도 마하보디 사원서 反달라이라마 시위

"종교 명목으로 정치적 이득 취해" 주장

사원 운영권 문제로 불교도와 힌두교도 사이에 마찰을 빚어오던 부다가야 마하보디 사원에서 이번에는 반(反) 달라이 라마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전인도 승려연합회 소속 스님들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시위에 참가한 스님들과 불교도들은 달라이 라마의 '정치적 활동'을 비난하며, 그가 인도를 발판으로 '종교의 이름을 빌려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면에는 마하보디 사원의 운영권을 불교도의 손에 돌려달라는 운동에 대한 티베트 불교측의 냉담한 반응에 대한 불쾌감이 있음은 물론이다.

이들은 이달중 있을 달라이 라마의 부다가야 방문을 반대하며 부다가야 지역 차원에서 이를 막지 않으면 단식 투쟁을 감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달라이 라마는 11일부터 깔라차크라를 주재하기 위하여 부다가야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시위는 티베트 불교와 인도 '신불교(Neo-Buddhism)'의 불편한 관계라는 맥락에서 보고 있다. 인도의 달리뜨 천민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소위 신불교 집단은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못내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티베트인들의 망명 초기에는 '같은 불자'라는 동지애적 감정을 갖기도 하였으나, 서로 융합되기 어려운 이질적인 교리체계와 민족적 상이성으로 결국 가시적인 교류는 전무한 상태로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티베트 망명정부의 입장에서는 인도 정부의 호의로 타국에서 망명정부를 꾸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득권 세력, 특히 힌두교 원리주의 인도 정부에 대해 저항적 색채를 강하게 띄는 인도 불교도를 지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티베트 망명정부는 따라서 인도 정부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도 불교도들과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이지은 통신원

대구에 4년제 불교대학 세운다

동화사, 임휴사 부지에…불교학등 3개과 개설 예정

대구불교대학이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4년제 정규대학 설립계획을 발표했다.

12월 23일,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구불교대학 10주년 기념 '대구불교인의 밤' 행사에서 학장 지성스님은 교육부 인가를 받은 정규 4년제 대학을 대구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화사와 대구불교대학이 추진하는 대학은 임휴사 소유 대구 달서구 상인동 760여평의 부지에 사회복지학, 불교학, 교육학 등 3학과를 개설하는 정규대학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불교대학 학장 지성스님은 "사회의 봉사활동도 전문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들을 필요로 하는데 반해 불교계에서는 이런 전문가들을 배출해 낼 인재양성기관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임기내 정식 대학 인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학사 건립기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대구불교대학은 지난 92년 대한불교조계종 대구경북팔공승가회 부설 대구경북불교대학으로 설립된 후 94년 동화사 부설단체로 등록되면서 본격적인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지역의 대표적 불교교양대학이다.

박원구기자

경주시 문화재 안내판 4개 국어로 모두 교체

경주일원의 국문과 영문으로만 되어있는 낡고 오래된 문화재 안내판이 4개국어의 새 안내판으로 모두 교체될 전망이다.

경주시는 지난해 월드컵 개최 이후 일본과 중국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국문과 영문으로만 표기된 기존 문화재 안내판은 모두 철거하고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가 모두 표시된 새 안내판을 설치키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교체될 안내판은 석굴암을 비롯 모두 259개의 지정문화재 안내판으로 경주시는 사업비 2억8천여만원을 들여 내년 1월말까지 모두 교체한다.

박원구 기자

전통사찰 용추사 보수시급

대웅전 낡고 태풍피해 빗물스며

경남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전통사찰 용추사(주지 선해)의 대웅전이 노후된데다 지난 여름 태풍 '루사'로 대웅전에 빗물이 새는 등 붕괴위기를 맞고 있어 보수가 시급하다.

용추사는 재건축에 나서 전체 사업비 2억원중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비 8천만원(국비 4천만, 도비 2천만, 군비 2천만원)은 확보했으나 1억 2천만을 마련할 길이 없어 재건축 자체가 무산위기를 맞고 있다.

용추사 주지 선해 스님은 "용추사에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4호인 '덕유산장수사 일주문'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가 보존돼 있어 재건축이 요구되고 있으나 절 재정으로는 사업비를 마련할 길이 없다"면서"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더많은 지원과 불자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강화 전등사 성보9건 인천시, 문화재로 지정

강화 전등사내 성보 9건이 한꺼번에 문화재로 지정됐다.

인천시는 시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등사 대웅보전 목조삼존불좌상, 법화경판 등 7건을 시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최근 이를 시보에 고시했다. 대웅보전 후불탱(문화재자료 21호), 강설당 아미타불탱(문화재자료 22호) 등 2건은 문화재자료로 지정됐다. 특히 시유형문화재 45호로 지정된 전등사 법화경판(104매)은 1544년 조성된 것으로 현존하는 법화경판 30점 가운데 임진왜란 이전에 조성된 것은 8점에 불과할 정도로 그 역사·문화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받았다.

권형진 기자

"아름다운 천성산 습지 살리자"

양산 효암고 학생·교사 사진전 열어

천성산 습지의 아름다움을 지키려는 노력에 고등학생들이 동참하고 나섰다.

양산 효암고등학교 김지은(국사 담당) 교사와 이 학교 3학년 학생들은 "우리 나라 최고의 습지가 있는 산, 천성산이 경부고속철 관통으로 파괴되어서 안 된다"는 주제로 교내 사진전을 열어 학생들에게 천성산의 아름다움을 알렸다.

1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열린 이 사진전에는 천성산에 서식하는 동식물 사진과 금정산, 천성산을 지키려는 종교계와 시민들의 반대 운동 모습이 담긴 30여 점이 전시됐다. 또한 전시와 함께 자연을 지키려는 학생들의 마음이 담긴 스티커를 붙여 나갔다.

김지은 교사가 이끄는 3학년 학생 14명이 경부고속철 관통 반대 운동의 상징이 되어 있는 지율스님을 만난 것은 12월 초. 무제치늪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아보기 위한 현장학습 안내자로 만난 지율스님을 통해 천성산을 오르게 된 것이 사진전을 열게 된 계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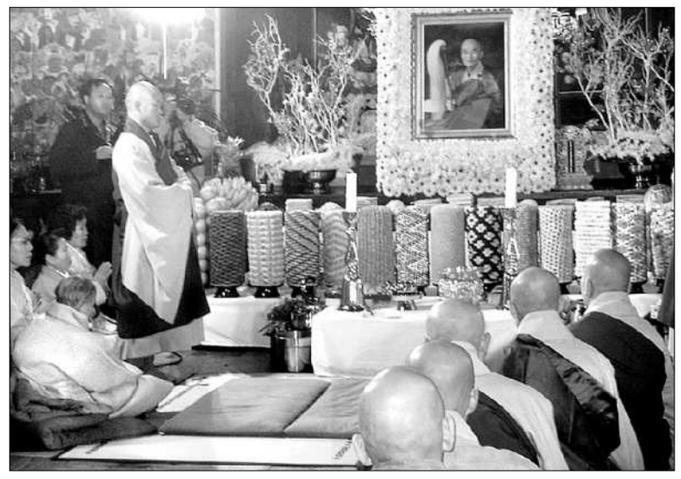
천미희 기자

사명차문화 연구보고회 밀양시장등 500명 참석

사명차문화 연구보고회가 12월 23일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이상조 시장, 유관기관단체장, 사찰관계자, 임업후계자, 차동호인, 시민,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서 문학작가 정동주씨는 사명대사의 스승 서산대사의 선다일미(禪茶一味)의 사상적 지평과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차문화를 소개하면서 사명차 문화복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재경기자



◇혜암스님 열반1주기 추모법회가 12월 20일 1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됐다.

혜암당 성관대종사 열반 1주기 추모법회

조계종 전 종정 혜암당 성관 대종사 열반 1주기를 추모하는 법회가 12월 20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열렸다.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과 원로의회 부의장 종산스님, 문도회장 성법스님 등 사부대중 1,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거불, 청혼, 삼배 등 전통 불교제례의식으로 진행됐다.

종정 법전스님은 법어에서 "스님은 종단이 어려울 때 한 몸 아끼지 않고 몸소 실천해보이신 선지식이었다"면서 "추모재를 통해 사부대중들은 단순히 고인을 추모만 할 것이 아니라 무상함에 대해 발심하는 계기로 삼아 더욱 용맹정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추모법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을 찾아 혜암스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했다.

혜암문도회는 2003년 상반기 중 원당암, 혜암넷 홈페이지 제작과 함께 문집을 편찬 할 계획이다.

합천=박원구기자

대전광역시 시범납골당
계룡산 구암사
극락처럼 편안하고 아름답습니다.
042)822-2377 홈페이지 www.guamsa.or.kr

“귀농으로 행복 찾았죠”

윤종상 · 신용한 부부



◇'언제난 그 자리를 지켜주는 도반' . 윤종상 씨가 신용한 씨와 함께 서 있다.

“땅에서 희망의 얼굴을 만납니다”



◇“내년 봄이면 이 놈들이 우리 논의 김이란 김은 다 먹어 치울 겁니다.” 윤종상 씨가 목표로 한 무농약 재배에 쓰일 우렁이들을 들어 보여주고 있다.

농촌공동체로 돌아간 386세대

‘열심히 공부해 좋은 학교 가라. 서울서 대기업에 취직해라.’ 우리네 부모들은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다. 자식들도 그런 줄만 알고 자꾸 서울로 모여들었다. 그래서 서울은 너무 비대해져 버렸고 농촌은 나날이 황폐해졌다.

2000년 1월 30일. 윤종상(33) 씨 부부가 10년간의 서울 생활을 접고 농사를 짓겠다며 횡성으로 내려갔다. 그때 부인 신용한(33) 씨는 뱃속에 8개월 째 ‘희망이’를 키우고 있었고….

단국대 회계학과를 졸업한 윤 씨와 같은 학교 영문과 출신인 신 씨. 이 평범한 386세대 부부가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던 세월을 거슬러 오르고자 마음먹은 것이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서울서 대학을 나오고, 돈 벌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애를 낳고, 또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이것만이 사는 길은 아니라는 거죠.”

대학시절 운동권에서 ‘혁명’을 꿈꾸기도 했던 윤 씨. 그러나 윤 씨의 마음은 늘 농촌에 있었기에 첫 직장도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의 불교귀농학교를 택했다. “제가 어릴 때 품앗이를 하려면 마을 회의를 했죠. 그러면 늘 어려운 사람 일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공동체란 말이 나오기 전부터 농촌에는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었던 거죠.” 윤씨는 바로 그 농촌공동체를 찾아 귀농했다. 아내 신 씨도 흔쾌히 다른 삶을 받아들였다.

처음 원주 시내의 고등학교로 유학한 이래 윤 씨는 13년 만에 고향 횡성으로 돌아왔다. 처음 1년 동안의 농사는 아버지의 방식을 답습했다. 아버지가 평생 일궈놓은 전답에서 함께 모를 심고 김을 매고 벼를 베었다. 땅은 정직하다고 했던가. 아버지의 예상에 한치도 어긋나지 않게 한해 농사가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이듬해 2001년은 윤 씨에게 시련의 시간이었다. 봄철의 지독한 가뭄, 여름의 끔찍한 수해, 소작을 얻어 지은 밭에서 일년 내내 땀 흘려 재배한 배추를 팔아 받은 돈은 고작 20만원, 그리고 농사 일의 스승인 아버지의 돌연한 죽음이 차례로 찾아왔다.

“무작정 비료를 끊어버리니까 논의 지력이 떨어졌고, 그 상태에서 환경농업을 적용하니까 수확도 줄고 생산물도 형편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윤 씨는 환경 농업을 해 보겠다며 ‘우렁이 농법’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갔다. 올해에는 농사를 짓다가 빚도 생겼다. “주위에서 드디어 진정한 농민 됐다며 축하를 해주더군요. 빚이 진정한 농부의 기준이 되는 농담같은 현실. 이게 농촌의 현주소랍니다.”

농사 3년…우렁이 농법 시도

“하지만 농사가 힘든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좋은 일도 많았죠.” 가장 좋았던 일은 연이은 생명의 탄생. 2000년 봄 첫째 희망이가 태어난 데 이어 2001년 둘째 해언이가 초보 농사꾼 부부를 기쁘게 했다. 공해에 찌든 도시가 아니라 싱그러운 대지를 밟으며 자라는 두 아이를 볼 때마다 윤 씨 부부는 백 번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아내 신 씨도 “콩나물, 파, 푸성귀, 배추를 밭에서 바로 뜯어서 먹는 것이 너무 좋다”며 시골생활의 매력을 말한다. “다른 어떤 것보다 아이들에게 내가 스스로 키운,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먹일 수 있어서 가장 좋다”고 웃음 짓는다.

“오염 안 된 음식 먹여 기뻐요”

2003년 네 번째 농사를 짓는 농사꾼 윤종상 씨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무공해 농법에 대한 정부 인증을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고, 지력을 돋우면서 화학비료를 줄이는 노력도 해야 한다. 우렁이를 무사히 내년 봄까지 번식시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다, 우렁이 농법을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고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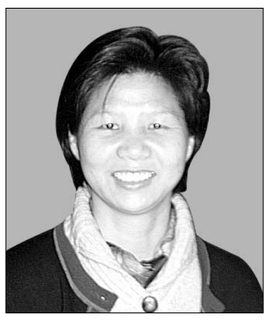
품앗이, 두레 등 옛 풍속이 많이 사라져버린 농촌공동체를 살리는 일, 횡성농민회 회원들과 생활협동조합을 꾸려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는 일, 여성농민회 회원들과 영유아 교육 문제를 풀어가는 일도 조금씩 추스려가야 한다.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할 지경이다. “농촌 문제의 핵심은 농사를 지어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활동이 안 되니까 모두 농촌을 떠나는 거죠. 아직 저도 해답은 없지만 제 아들 ‘희망이’를 보면 무언가 될 것 같아요.” 윤 씨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다시금 미래의 희망을 확인한다.

글=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사진= 임민수 기자 yminsoo@buddhapia.com

릴레이 수행일기

강선희(下)

위빠싸나선원 교화부장



무불선원에서 배운대로 선체조와 호흡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속으로는 계속 능엄주를 하였다. 그렇게 한 달쯤 되어, 앉아서 능엄주를 10여분 독송할 때쯤 이상한 체험을 하였다.

갑자기 머리 속에서 능엄주가 전광화석처럼 빠른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그냥 머릿속에서 '핑핑' 능엄주가 돌아가는데, 그것은 단 몇초 정도만에 능엄주를 끝내고 계속하여 같은 속도로 능엄주가 자동으로 돌아갔다. 내가 하는 능엄주가 아니고 마치 녹음기의 테잎이 자동으로 휘감기듯이 뭔가 머릿속에 띠 같은 것이 도는 느낌이 있을 뿐 능엄주는 쉬지 않고 계속 돌았다. 소리를 내면서는 따라 할 수도 없는 빠른 속도다. 눈을 똑바로 떠보지만 마찬가지였다. 무엇을 하나 하루종일 그렇게 능엄주는 계속 머릿속에서 돌고 있었다.

심신의 변화 놓치지 않으려 노력

생활화 된 능엄주력 삶의 에너지

이렇게 계속 되어진지 3일째 되던 날, 좌선을 하고 있는 중에 능엄주의 소리를 마음속에서 계속 지켜보는데, 갑자기 내 몸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없었다. 몸뚱이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나도 없는 것이다. 단지 어디선가 메아리처럼 혹은 파노라마처럼, 끝없이 염불소리만이 들리는데, 내가 하고 있는 염불이 아니고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때 자동으로 "이 소리는 어디서 나며, 또 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슴 속 깊이 의심이 잡히면서, '이(뭣고)…?'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계속 하고 있었다.

'이 뭣고?'에서 '뭣고'는 떠오르지 않고 오로지 '이~'에서 의심이 뭉치어 스케이트 칼날이 부드럽게 빙판을 스쳐가듯 미끄러지면서 쭉 나아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저녁때까지 앉아 있다가,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의 초인종 소리에 그 상태로부터 깨어났다. 그 순간 가슴 쪽에서부터 맥박이 뛰더니 가슴이 확 트인 것처럼 환해지는 것 같은 느낌과 함께 온 몸에 에너지가 시원하게 흐르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등골쪽도 시원함이 느껴졌다. 삼매에서 깨어보니 몸도 앉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가벼웠다.

이후 '위빠싸나(Vipassana)'를 접하게 되고, 능엄주를 독송하면서 사념처(四念處; 몸, 느낌, 마음, 정신적 대상)를 관하기도 하고, 화두를 들면서 심신에서 일어나고 진행되며 사라지는 일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 방편으로 노력을 하여왔다.

아침에 눈이 뜨이면,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능엄주는 나의 하루의 첫 일과가 되었다. 그리고 선정 기본호흡을 한 다음 좌선에 들어간다. 좌선에서 일어나 움직일 때도 능엄주를 속으로 염송하면서 4념처를 관하여 간다. 이렇게 하다보니 이제 수행도 몸에 익었고,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이란 갈 수 없도록 길들여졌다.

※(다음 주 필자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 고전전공(고대 그리스-라틴어) 학생인 휴 리처드(Huw Richards)이다. 그는 2002년 여름 한국인 친구를 통해 포항 금강정사에서 한 달간 금강경독송회의 수행법을 체험한 후, 귀국해서도 김재웅 법사의 영문판 <닦는 마음 밝은 마음(Polishing the Diamond, Enlightening the Mind)>를 읽으며 정진하는 청년 불자다.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은 평온해지고



◇사경은 부처님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는 수행이다. 12월 14일 동국대 사회교육원에서 사경연구회 김경호 회장이 회원들을 지도하고 있다.

경구 음미하며 지속적으로 해야

집착없어지고 지혜의 공덕 생겨

12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동국대 사회교육원 제2강의실. 20대부터 70대에 이르는 20여 학생들이 정성스레 한 글자, 한 글자씩 붓으로 경전을 옮겨 쓰고 있다. 그런데 일반 서예교실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엄숙한 분위기가 감돈다. 작은 글씨로 경전을 그대로 옮겨 쓰는 전통 사경(寫經)과정의 수업이다 보니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다. 한 글자라도 잘못 쓰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한다.

국전 초대작가를 비롯한 중견 서예가들이 대부분인 이들은 한국사경연구회(회장 김경호)의 회원들. 회원들은 12월 16~21일 동국대 박물관에서 '제1회 한국사경연구회원전'을 열어 솜씨를 뽐내기도 했다. '마음을 다스리는 글', '반야심경', '관세음보살 합장수 진언' 등 30여 작품이 선보인 이 전시회에서 눈길을 끈 작품은 충일교회 이근태 담임목사의 '솔로몬의 아가'란 주제의 성경 사경작품. 회원중에 목사나 천주교 신자 등 이웃 종교인들도 참여해 사경을 통한 종교간 화합을 실현중이다.

그러나 사경연구회는 사경이 새로운 신행풍토로 확산되고 있지만, 대부분 사경의식과 방법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필사나 많이 하면 된다'는 식의 양적인 면에만 치중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다. 김경호 회장은 무엇보다 경구 하나 하나를 음미하며 정성을 들여 지속적으로 사경할 것을 권하며, 한 자 쓰고 한번 절하는 '1자 1배(一字一拜)'의 정신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염불과 축원 등의 의식이 병행된다면 사경하는 본 뜻이 한층 더 발휘된다. 물론 가정에서도 삼귀의→사경 발원→입정→사경→사경봉독→사경 회향문→불전 삼배→사홍서원 등의 사경의식을 실천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경연구회 최고령자인 이규봉(78, 서울 동선동) 옹은 "사경은 조용히 정좌하고 호흡을 가다듬어 정신을 통일한 후 정성스럽게 하면 된다. 그러면 번뇌와 미혹의 마음에서 벗어난 청정한 심신이 되어 부처님과 자신의 마음이 하나되고 밝은 지혜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평온과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말한다.

사경은 글자를 쓰면서 흐트러진 정신을 한곳에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수행시 장애가 빨리 오는 초심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수행 방편으로 꼽힌다. 사경을 열심히 하다보면 자연히 한자 한자에 마음을 집중하게 되어 산란심이 없어지고 일심(一心)이 될뿐만 아니라 주옥같은 경구들을 항상 가슴에 새길 수 있어 정신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사경을 일심으로 하다보면 온갖 집착을 떨쳐버릴 수 있으며 부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공덕도 생긴다. 사경할 때 일자 일배 의식을 병행할 경우 '절 수행'도 함께 겸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년전 활동을 시작해 2002년 초 동국역경원장 월운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을 고문으로 모시고 설립된 사경연구회의 회원은 250여 명. 그동안 수차례의 회원전 및 개인전을 여는 한편 매주 토요일 오전 10~12시 동국대 사회교육원 전통사경과정,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 동아일보문화센터 사경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며 전통 사경문화를 재현하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 (02)733-8334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주제가 있는 수행현장

한국사경연구회 '사경'



한국사경연구회 김경호 회장

"부정확한 경전 인쇄현상 서글퍼"

고려시대 작품 재현에 외길 고집

"근래에 인쇄된 적지 않는 경전들이 오자, 탈자로 오염되어 있음을 사경작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20여년간 전통사경에 관한 여러 기법과 형식을 정리해온 한국사경연구회 김경호(40) 회장. "부정확한 경전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인쇄하여 내놓는 현상을 보고 서글프기까지 했다"는 김 회장은 '정확한 내용을 사경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다짐 아래 수많은 자료를 구해 밤을 세워가며 내용을 비교, 감수했다.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제작된 모든 사경 작품을 재현한다는 원력으로 한 길을 걸어온 그는 우리 나라에서 일본으로 전래된 사경 관련 기법을 기록한 일본 천평시대(8세기)의 고문서도 어렵게 구해 연구하며 수많은 실험을 거듭, 사경의 기법과 형식을 재정비했다.

김 회장은 "속성(速成)의 시대에 걸맞지 않게 느린 호흡의 전통기법을 중시하는 까닭은 사경의 근본 목적이 수행에 있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수행 캘린더

■범어사 토요 참선법회=범어사 토요참선회는 매주 토요일 오후 7~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지도법사 홍선 스님(중앙승가대학 교수)의 지도로 참선법회를 연다. 매월 첫째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익일 새벽 3시까지는 철야정진을 한다. (051)508-3636

■금강경독송회 정초 세계사 법회=금강경독송회는 1월 1일 월악산 세계사에서 정초 법회를 연다. 금강경 독송 및 마음바치기를 통해 새해 새날의 서원을 밝히는 기도의 자리다. (02)742-0172

■맑고향기롭게 주말 철야정진='맑고향기롭게'는 1월 25~26일 서울 길상사에서 주말 선수련회를 연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일요일 오후 3시까지 철야로 진행된다. (02)741-4696

■연방죽선원 아나파나사티 수행=연방죽선원(cafe.daum.net/lotuspond)은 매주 월~토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아나파나사티(출입식념) 수행을 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불교와 수행'에 대한 법문,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자율정진도 한다. (02)334-1763

■호두마을 위빠사나 4단계 수행=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알아차리는 수행인 위빠사나는 몸과 마음을 몸, 느낌, 마음, 법(法; 정신적 대상)으로 나누는데, 이 네 가지를 '4념처(念處)'라고 부른다. 이와 관련 천안 호두마을(www.vmcwv.org)은 1월 3일부터 매주 2박3일씩 네차례에 걸쳐 위빠사나 4단계 수행을 실시한다. 1월 3~5일 신념처(몸과 호흡 보기), 1월 10~12일 수념처(몸과 마음의 느낌 보기 등), 1월 17~19일 심념처(마음의 작용 보기 등), 1월 24~26일 법념처(5온 보기 등) 관찰 등으로 진행된다. (041)567-2841

■정신세계원 겨울 명상수련학교=정신세계원은 1월 1일부터 26일까지 원주 피라미드 아침 명상원에서 몸의 정립, 마음 다스리기, 의식의 확장, 창조적 삶 등을 주제로 제1기 겨울 명상수련학교를 연다. 티베트 명상 및 요가, 위빠사나, 무예도보통지 권법 기공 등 다양한 강좌와 실수로 진행된다. (02)747-7033

■산띠와남 겨울 요가캠프=산띠와남 속리산 요가수련원(www.jshanti.com)은 1월 13~17일, 1월 20~24일, 2월 3~7일, 2월 10~14일, 2월 17~21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겨울 요가캠프를 연다. (043)544-4406



◇비구니 스님을 비롯한 여성 불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행과 교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2년 7월 대만 화범대학에서 열린 제7차 사키야디타 대회에서 한국의 좌선을 체험한 후 포행하는 출·재가 여성 불자들.

인권·의료·복지 등 폭넓은 불교운동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 각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



◇증엄 스님



◇아야케마 스님



◇지유 케넷 스님



◇피마 쵸드론 스님



◇성향 법사

전세계 대부분의 여성 수행자들은 남성 수행자들에게 의존상태에 있거나 주변적 위치에 있다. 비구니 승단이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대만 일본 베트남 등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가 여성불자들 역시 남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신행과 대사회활동을 펼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서구에 불교가 전래되고,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불교가 영역을 넓히게 되면서 불교 여성운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불교계 내외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요구하며 수행에 매진하는 한편 포교, 인권, 환경, 여성운동, 사회복지사업 등에 나서고 있다.

불교 여성운동 가운데 인권분야에서는 9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 여사, 사회비평가로서 인종과 여성문제에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영국의 벨 훅스(Bell Hooks), 참여불교(http://www.engagedpage.com) 사이트를 통해 인권운동과 지뢰제거 캠페인을 펼치는 미국의 레슬리 윌리암스(Lesslie Williams) 등이 대표적이다. 환경분야는 틱낫한 스님의 제자로서 불교환경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조안 헤리펙스(Joan Jiko Halifax)를 비롯해 조앤나 메이시, 헬렌 노르벅 호지 등이 돋보인다. 조앤나 메이시(Joanna Macy)는 '참여불교' 운동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활동가이자 생태주의자, 저술가로서 전세계에서 환경 강연과 워크숍을 진행중이다. 스웨덴의 언어학자, 환경운동가, <오래된 미래, 라다크>의 저자로서 인도 '라다크 프로젝트'의 설립자인 헬렌 노르벅 호지(Helen Norberg-Hodge)는 '생태와 문명을 위한 국제 사회'의 책임자로서 1986년 '올바른 삶' 상(Right Livelihood Award)을 수상하기도 했다.

여성운동분야에는 87년 세계비구니대회를 열고 사키야디타를 결성해 당시까지 가부장적이었던 각국의 승단을 놀라게 한 아야 케마(Ayya Khema) 스님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레즈비언(여성 동성연애자)의 신행을 위해 애쓰고 있는 미국인 사리카 다르마(Sarika Dharma) 스님, 스리랑카의 여성불자위원회 회장 찬드라(Chandra) 여사, 사키야디타 현 회장인 혜공(Karma Lekshe Tsomo) 스님, 20년 동안 폭력에 노출된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해 쉼터를 제공해온 쿤닝 카니사 (Khunying Kanitha Wichiencharoen, 여성지위향상연합의 공동 창립자), 가정중심의 불교여성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는 다이안 밴 페리스(Diane Van Parijs) 스님 등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복지 및 의료분야에서는 전세계에 400만 회원을 가진 대만 자제공덕회 창시자인 증엄 스님이 가장 유명하며 환경운동가로서 임종간호 활동을 펼치는 조안 지코 헤리펙스, 태국의 사회사업가인 궝생 스님, 엔쿄 팻 오하라 등이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동종 선사인 엔쿄 팻 오하라(Enkyo Pat O'Hare) 스님은 불교 AIDS 네트워크를 조직, 맨해튼의 AIDS 환자들을 위한 참선 모임을 지도하면서 정기 수련회도 열고 있다.

이밖에 불교교육 분야에 앞장선 대만 화범(華梵)대학 설립자 효운(曉雲) 노스님(92), 소년원 등의 청소년 교화에 앞장서온 카이트리오나 리드(Caitriona Reed), 종파를 넘어선 평화운동에 매진해 온 산드라 지슈(Sandra Jishu Angyo Holmes), 약물 재활치료, 도박 중독증에서부터 강간, 아동학대에 이르는 사회문제에 대해 불교 심리학적 해법을 제시해 온 고타미(Gotami) 스님 등도 불교 여성운동의 선구자로 꼽힌다.

참여 불교사이트 통해 소리없는 인권운동
폭력에 노출된 여성·어린이에 쉼터 제공
불교 AIDS네트워크…환자에 참선 교육

불교 여성지도자들이 그동안의 소극적인 면모를 일신하며 수행, 교화, 대사회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여성 수행자들은 선종, 남방불교, 티베트 밀교 등 종파나 지역의 전통에 입각한 수행을 한 후 수행센터나 불교단체를 설립해 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특정 종파에서 수행하거나 비구니계를 받았더라도 무종파주의를 지향하며 남방 및 북방불교의 다양한 수행법을 보급하는 여성 수행자들도 적지 않다.

본지는 지구촌 불교여성 지도자들의 수행과 전법, 대사회 활동을 소개하는 '세계의 불교여성지도자' 코너를 다음주부터 1년간 연재할 계획이다.

각계의 여성 수행자들

선종

성향법사 숭산스님 제자…美 관음선원 부원장

성일스님 英가이아하우스 법사…한국 '선' 소개

화계사 조실 숭산 스님의 제자인 성향(바바라 로드), 낸시 브라운 헤지페스, 제인 맥라인 도비즈 법사와 송광사 구산 스님(입적)의 제자로서 영국 '가이아 하우스' 지도법사를 맡아 한국 선을 전하고 있는 성일(마르티네 배철러) 법사를 비롯 서구형 선불교인 불교명상종을 설립한 지유 케넷 스님, 바하의 음악을 화두로 주는 모린 묘온 스튜어트 법사 등이 대표적이다.

1992년 숭산 선사로부터 인가를 받은 성향(Barbara Rhodes) 법사는 숭산 스님이 지도하는 관음선원의 부원장이자 관음선원 산하의 플로리다, 시카고, 콜로라도 선센터의 지도법사로 활동중이다. 1962년 일본 조동종 총본산 총지사의 방장 고호 스님으로 비구니계와 인가를 받은 지유 케넷(Jiyu Kennet, 1924~1996) 스님은 197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샤스타수도원을 설립하고 서구형 선불교인 불교명상종을 설립했다. 1977년 일본 임제종의 소엔 나카가와 노사에게 임제선을 배우고 82년 인가를 받은 모린 묘온 스튜어트(Maurine Myo-On Stuart, 1922~1990)는 바하의 음악을 화두로 내어주는 등 독창적인 선불교를 선보였다.

남방불교

아야 케마 사키야디타 창립 남방불교 서구 전파

루스 테니손 음악·운동 등 다양한 방편으로 명상 지도

55세에 출가해 비구니계를 최초로 단합시킨 아야 케마(Ayya Khema) 스님은 1923년 독일에서 유태인으로 태어나 99년 입적 때까지 남방불교의 전통을 세계에 전한 선구적인 비구니 스님이다. 78년부터 호주 시드니의 '붓다 담마 사원'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많은 산림 승원을 설립했으며, 87년 세계 최초의 비구니 국제대회를 열고 사키야디타를 창립했다.

1960년 미얀마의 고승 우 바킨(U Ba Khin) 문하에서 공부한 루스 데니손(Ruth Denison)은 전통적인 교리의 틀을 벗어나 운동과 음악, 리듬, 독경, 소리와 보조적인 명상법 등 다양한 방편으로 위빠사나 명상을 지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태국청년불교연합의 지도법사인 쿤 매 시리 크린차이(Khun Mae Siri Krinchai)는 태국인과 외국인을 위한 명상 강의와 설법으로 2001년 '훌륭한 여성 불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티베트불교

텐진 팔모 히말라야 석굴 12년 수행한 첫 서구여성

툽텐 쵸드론 종교간 대화…'훌륭한 여성불자상' 수상

영국 출신의 티베트 비구니인 텐진 팔모(Tenzin Palmo) 스님은 1976년 히말라야 석굴에 입산하여 12년간 수행한 최초의 서구 여성이다. 인도 북부지방에서 비구니 수도원을 운영하고 있는 스님은 비구니 계맥을 잇기 위해 기금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다.

미국 법우재단의 상임법사인 툽텐 쵸드론(Thubten Chodron) 스님은 불교와 유대교간의 종교간 대화를 시작해 2001년 UN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훌륭한 여성 불자'상을 수상했다.

이밖에 국제적인 불교 뉴스 매거진인 <만달라(Mandala)>의 편집장이자 '자유 감옥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로비나 쿠어틴(Robina Courtin) 스님, 심리학자이자 심리치료사로 활동중인 르네 핸드버그(Lene Handberg) 박사, 1985년 달라이 라마로부터 직접 비구니계를 받고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소재한 툽텐 샤드럽의 상임 지도법사를 맡고 있는 텐진 가쵸(Tenzin Kacho) 스님 등도 여성불교를 이끌고 있다.

무종파주의

묘법스님 한국서 수계…위빠사나 명상 지도

클라라 루즈 스페인에 수련센터…요가 명상 교육

영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비구니계를 받은 묘법(Helen Jandamit) 스님은 1974년 이후 위빠사나 명상 강좌를 주도하고 있고, 태국에 국제불교명상센터를 설립했다. 스피리트 락(Spirit Rock) 명상센터의 창립자로서 통찰명상회의 지도법사인 안나 더글라스(Anna Douglas)는 선종과 티베트불교의 불이학파, 족첸(Dzogchen) 전통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위빠사나와 참선, 티베트 밀교(가큐파, 닝마파)를 수행한 클라라 루즈(Clara Luz)는 스페인에 닝마파 수련센터를 처음으로 세운 후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을 강조하는 대승불교와 요가, 명상을 함께 가르치고 있다. 1965년까지 남방불교와 티베트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해 제16대 카르마파(Karmapa)에 의해 미국 토론토 카르마 카규 센터 초대 지도법사에 임명된 세실리 콰이트(Cecille Kwait)는 남방 및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제8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발표

현대불교신문 제8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이 결정됐습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92편의 신행수기가 접수된 가운데 차정연씨의 '움막 속에 피어난 불심'을 비롯해 모두 7편이 당선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일상 속에서의 신행과 진솔한 체험들이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의 가슴 속에 잔잔한 감동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이번 신행수기에 응모해 주신 많은 불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상(유마상)

'움막 속에 피어난 불심'
차정연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현대불교신문사장상 (우수상)

'부처님 믿는 마음은 곧 희망입니다'
조미자 (충남 천안시 쌍용2동)

특별상(종단협의회장상)

'불국토 이룩하는 그날까지'
이원규 (서울시 광진구 자양2동)

특별상(천태종 총무원장상)

'부처님 원력으로 다시 살아나다'
이왕근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특별상(관음종 총무원장상)

'불립문자 직지인심 (不立文字 直指人心)'
김동난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특별상(총화종 총무원장상)

'무명의 삶에서 불법을 만나기까지'
정일환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특별상(진흥원 이사장상)

'부처님, 걷고 뛰어다니고 싶어요'
엄범순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 신행수기 대상 수상작

'움막 속에 피어난 불심'

차 정 연

고즈넉한 저녁, 한가로이 산책을 한다. 나뭇가지를 부지런히 오가며 재잘대는 참새들이 정겹게 다가온다. 낙동강 하류 건너 멀리 김해 무척산에 걸린 노을은 안개낀 서쪽 하늘가에 무지개빛 층을 이루고 있다.

저녁노을을 하염없이 바라보기도 하고, 낙동강 하류의 은빛 출렁거림과, 강변도로를 따라 오가는 무수한 차량들을 헤아린 지도 벌써 8년의 세월이 넘었다.

내가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불혹의 문턱에서였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절을 찾기도 했는데 이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인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내 발 아픈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라는 말씀을 큰 법문인 줄도 모른채 늘 그런 말씀을 접하면서 성장했다.

내 전생의 업연 때문인지 나는 처음부터 불교에 대한 거부 반응이 심했으며, 악업의 굴레와 인연에 얽매여서 때론 고단한 삶에 허덕여 신음하고 있었지만 항상 착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 속에 살았다. '토끼 한 마리가 사과나무 아래에서 낮잠 자고 있을 때 사과나무에서 떨어진 사과에 얼굴을 맞고 놀란 토끼가 마구 달리니 옆에 있던 노루도, 사자도, 다람쥐도, 숲속에 있던 모든 짐승들이 덩달아 달리고, 끝도 모를 곳으로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도록 달리며, 앞뒤 분간도 못하고 먼지 속으로 다시 그 속으로 부딪치며 그냥 달리듯' 나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누군지 어디를 향해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집착과 갈등 그리고 탐·진·치 삼독의 질긴 끈을 붙들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밤과 낮을 오가며 벼랑 끝으로 달리고 있었다.

불혹의 문턱에서 심한 좌절과 실패, 육신의 질병악화, 정신적 갈등과 회의 속에 자신을 가두고 꽁꽁 묶어 집착한 세속과의 인연의 늪에서 방황을 거듭하며 헤어날 줄 몰랐다. 악화된 육신의 질병은 내 자신의 힘으로는 물 한모금 쉽게 넘길 수 있는 기운마저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절박한 생사의 기로에서 꿈도 생시도 아닌 환영에 시달리며, 어머니의 부름과 세속의 인연 속에서 오락가락 헤매고 있었다.

그날 밤 꿈을 꾸었다. 어머님이 계신 절 가까이로 다가가자 엄청난 바위 산이 가로놓여 있고 내키 보다 더 큰 가시덩쿨과 엉킨 숲이 앞을 가리고 있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다.

그때 덩치 큰 남자가 나타나(지금 생각하면 신장님) 차를 태워 어딘가 데려다 주며, 여기서 연장을 찾아 가라고 했다. 내가 그 연장을 찾는 동안 속세의 내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놓치고 말았다. 나는 그 수문장 같은 신장님



그림 · 김흥인

의 보호를 받으며 실오라기보다 약하게 꺼져가는 생명 한 가닥을 부처님 진리의 법에 매달린 채 무릎을 꿇었다. 어딘가에서 나타난 뚱뚱하게 생긴 보살님이 절의 부엌 뒷문에서 오물통을 들고 끊임없이 부어주니 그 오물은 강물을 이루어 내가 선 곳까지 흘러내리고 있었다.

어머님의 권유로 7년전 6월 통도사 하기수련법회 제16기에 입문하였다. 죽음에 직행할 것같은 육신을 이끌고 내가 과연 수련에 임할 수 있을까 싶었다. 나는 최선을 다해 법회일정에 집중하며 내 생전 처음으로 108배와 규칙적이고 정성이 가득한 기도정진을 했다. 그리고 3일 후 부처님 전에 무릎 꿇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밤새 철야정진 삼천배기도를 이겨내고 종무스님의 '열심히 살아라'는 말씀을 받들며 부처님 전에 귀의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은 내가 지은 악업의 인연으로 생겨난 과보로 '업을 낳는 근원적인 행동'을 내가 했고 또한 그 과보를 내가 받고 있을 뿐이었다. 이듬해 아름다운 봄맞이를 위해 겨울 준비를 했다. 폭풍우를 만나 가지치기를 하고 연일 불어 주는 바람에 잎새를 훌훌 털어내기 시작했다. 아픈 상처를 거룩한 부처님 전에 다 드러내 놓고 긴 휴식에 들었다.

철야정진 후 참회 눈물 흘려
"열심히 살았다…" 모두 허상

선재동자가 53 선지식을 참방하고 보현보살을 만나면서 불도를 이루듯, 나 또한 세파에 시달리며 어머님이 계신 약수암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내 어머님은 가난 속에서도 거룩하게 피어나 소리 없이 꽃피운 한 송이 연꽃같은 분이었다. 자신이 입은 옷마저도 가엾은 중생에게 다 벗어주고 당신의 알몸을 땅 속에 감추신 지장보살 같았다. 비닐 움막 속에서 외로운 어르신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 어려운 이웃들을 헌신과 사랑으로 보살피며 고통을 함께 하고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위안처가 되어 주시며 30년 가까이 이곳 산하에 묻혀 어두운 곳에 불밝히는 길잡이가 되어 계셨다.

나는 죽음을 초월하는 시련과 물도 자유롭게 넘길 수 없는 육신의 병고로 휑하니 들어간 눈에 핏기하나없이 파리해진 얼굴, 앙칼진 성격만 남은 상태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찾아 길을 나섰다. 이때부터 무작정 지장 백일기도에 입제했다. 지옥의 마지막 중생까지 악세에서 구원할 때까지 결코 성불이루시지 않으시고, 대자대비하신 원력으로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끝나는 열반에 들지 않으시며 오로지 삼악도를 사시는 곳으로 삼아 죄업이 무거운 오탁악세의 중생교화와, 죄많은 중생 구제하시는 지장보살님의 대원에 의지하여, 나 자신의 온갖 악업과 업장소멸을 위해 열심히 지장보살님을 찾았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한 내 생각들이 모두 허상이었다. 깨어도 깨어도 다시 소생하는 번뇌망상의 뿌리를 파헤치고자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

108배와 3천배를 반복하며 지장보살을 찾았고 도량 청소를 하면서도 지장보살을 찾았다. 거의 폐허가 다된 비닐움막은 악귀·잡귀와 대화를 나누는 굿당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마군과 악귀, 귀신 속에서 지장보살님을 밤낮 없이 불렀다. 마군 또한 나를 강하게 하는 스승으로 삼으며 이겨 나갔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후부터 신기하게도 그렇게 아픈 육신의 병은 점점 사라지고, 안개 낀 것 같은 머릿속은 맑아지기 시작했다. 8월 2일에는 거북 등 위에 무엇인가 싣고 들어오며 연화봉 위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모습을 예시 받았다. 또 어느 날은 아기스님과 큰스님네들이 내가 기도하는 곳에 모여들었고 무리지은 스님네들이 내 기도를 지켜보고 계셨다. 그런 선몽 후 하루의 일과가 정확하게 메시지로 전달되었다.

많은 분들이 향로 가득 피워 놓은 향내와 허약 체질에서 오는 겨울 감기, 알레르기 천식까지 겹쳐서 목이 붙어 버린 듯,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을 겪으며, 움막 속에서 맞이한 겨울. 그해 겨울은 왜 그리도 춥던지. 나는 시린 시멘트 바닥에서 겨울 내 새로운 병고와 싸우며 목숨건 나와의 투쟁을 계속했다. 그러면서도 <천수경>, <반야심경>, <화엄경>을 독송하기 시작했고 날마다 '일상발원문'을 외웠다.

'무한한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내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옵소서 제가 지난날 무명의 구름에 가리워,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지은 잘못을 참회합니다. 오랜세월 동안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은 인과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갈길 몰라 헤메었나이다'. 나는 비닐 천막을 걷어내고 낡은 판자로 바람 막을 판잣집을 지었다. 맑은 물이 흘러넘치는 이곳에는 불혹을 막 맞이한 젊은 어머니가 홀홀 단신으로 바위를 깨어내고, 흙을 일구어 토굴을 만들고, 손과 발이 닳아 지문이 없어지도록 기도를 하며 지켜온 흔적이 어려있다.

가난한 이웃과 병든 자, 외로운 어르신들의 벗이 되어 무상법문으로 가르침을 주신 곳. '착하게 살아라. 남의 흉허물을 지적하지 말아라. 다투지도 말며 지는 길을 택하라. 성내지 말며 허욕 탐심을 갖지 말고, 원수와 친한 이의 구분을 말아라. 곳곳에 당신의 기운이 깃들어 있다.'

나는 이곳 판잣집에서 바람을 피하며 지장보살을 찾아 나선 백일간의 지장기도회향을 맞이했다. 상대에게 상처보다는 즐거움을 줄 수 있게, 신분에 맞지 않는 욕심보다는 평등한 마음으로 용기와 희망을 함께 나눌 수 있게,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 일체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며 더 이상 업을 짓지 않도록 서원을 세우며 회향했다. 기도 후 2개월간 방황했다. 속세로 돌아가고픈 마음과 일상의 혼란으로 헤매다 고성

청룡사에 들렀다. 다음 날 아침 하얀 눈이 무릎까지 내린 좌이산을 올라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을 뵈옵고 약수암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개척해야 할 자기의 몫이다.

나는 방황을 멈추고 약수암에서 3년간 나를 잠재우기로 하고 1995년 마지막 달에 천일 간의 부처님 진리의 법을 찾아 다시 길을 나섰다. 혜암 종정 큰스님의 신년법어 '작게 시련을 겪으면 작게 성공할 것이고, 크게 시련을 겪으면 시련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법어를 새기며, 매일 반복해서 108배와 1000배 한 달에 한번 3천배 참회정진을 하며 '관세음보살'을 염원했다.

밤과 낮 사계절의 변화하는 모습도 잊은 채 관세음보살님만 찾았다. 하루에 한편씩 독송하기로 한 <천지팔양신주경>을 하루에 7번 이상 독송도 했다. 끊어도 끊어도 떨쳐지지 않는 질긴 업연의 끈을 잘라내기 위해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밤에도 염주주머니에 수를 놓아 보시했다. 회향 때까지 염주주머니 200개 염주250개 단주 500개 이상을 보시했다.

중생이 괴로움에 허덕일 때 구원의 주체자인 관세음께서 구원의 대상인 중생을 굽어살피시므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불에 타지도 않고 몽둥이로 잘리거나 다치지 않으며, 귀신에 시달리지 않고, 쇠고랑을 차지도 않으며 도적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신다.

항상 관세음을 생각하며 공경하면 욕심 많은 사람은 욕심을 여의게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롭게, 성냄이 많은 사람은 성냄을 여의게 한다.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고자 관세음을 예배하고 공경하면 복덕이 많고 영리한 아들을 낳을 것이며, 딸을 낳고자 하면 모습이 단정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딸을 낳게 한다'

무릎에 닿은 옷이 덕지덕지 기워지고 닳은 무릎에서 터진 피가 고름이 되어 딱지가 앉고 또 닳아가도록 108배, 3천배를 시멘트 바닥이 닳아 움푹 패일 때까지 내몸을 아래로 내리면서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미음과 쑥 삶은 물만 마시면서 계속된 기도 정진으로 목에서 피가 흘렀고 아픔의 눈물로 얼룩진 질긴 업의 덩이가 서서히 녹아 내리고 있었다. 만나려는 사람이 줄을 이어 판잣집 작은 방이 그득해질 때 나는 일타 스님의 기도집을 생각했다. 기도하시던 보살님에게 일어난 방광은 일시적 마장에 불과해 잠재우셨다는 대목을 상기했다. 나는 타인과의 접촉을 멀리하고 외부와의 소리를 차단한 채 부처님 전에 더욱더 겸허한 마음으로 참회에 내 한 목숨을 걸었다.

'부처님 제가 더욱 겸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나는 계속해서 관세음보살을 찾으며 내 생각의 여울 속에 갇혀 있는 집착과 번뇌망상을 떨쳐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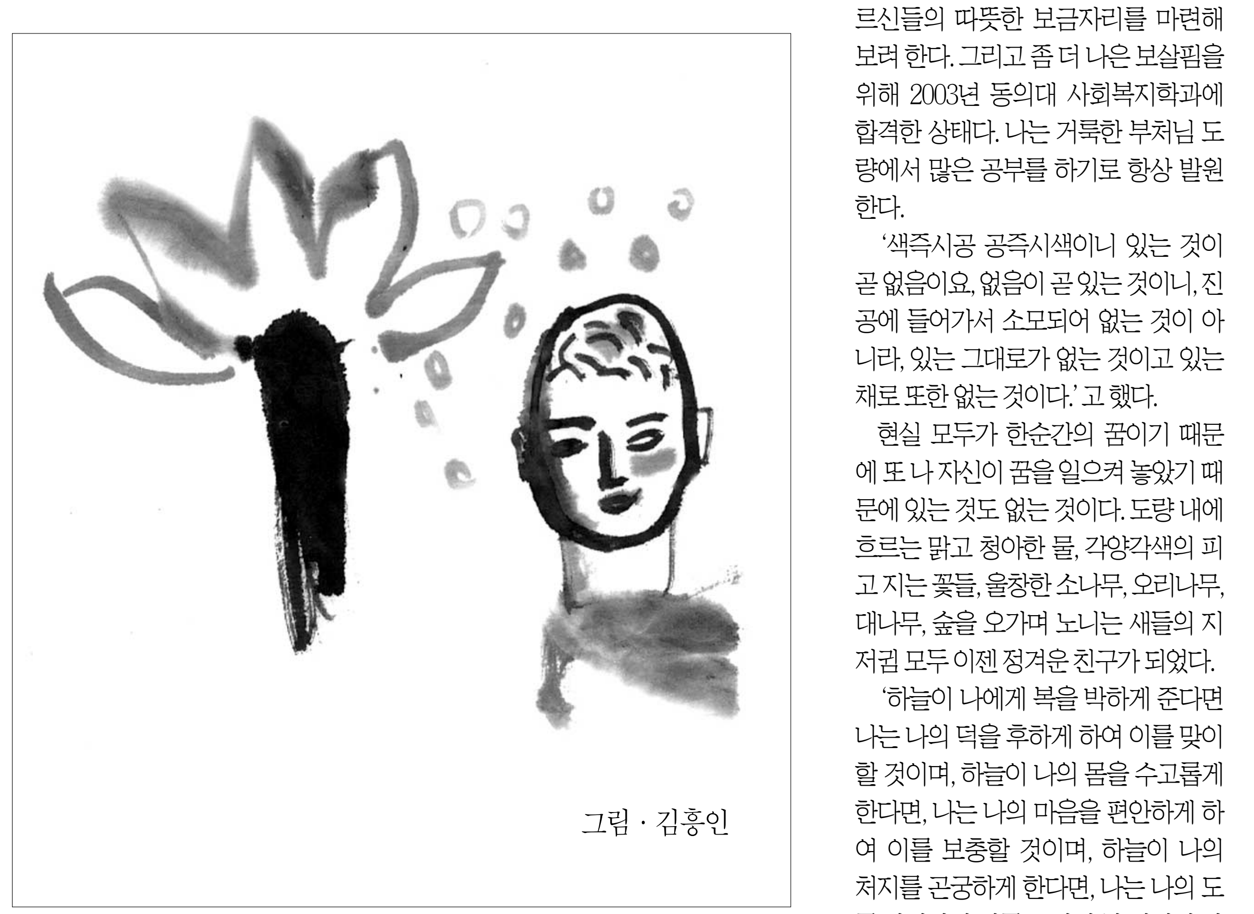


그림 · 김흥인

4년간 목숨 건 토굴 정진
봉사·공부 계속, 이웃위한 삶 서원

'모든 것을 밝게 알고 일체법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욕망을 멀리 떠난 것, 그 속에서 기쁨으로 사는 사람, 진실로 혼자 사는 삶이라 일컫느니라'

1112일간의 용맹정진 중 한번도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았으며, 산책하는 일 외에는 거의 독서에 몰두했다. 보살님들이 보던 신행집, 돌담 사이에 타다 남은 오래 묵은 책들을 찾아 읽고 의식부분은 아예 통째로 암기했다. 4년 간의 기도를 1112일만에 회향했다. 그동안 도량 모습도 변해 있었다. 쓰레기가 쌓였던 곳은 깨끗이 청소해 주차장을 만들고, 승학산 줄기에서 맑고 청정한 약수가 도량에 흘러내렸다. 돌탑을 쌓아 만든 곳에는 산신을 모셨다. 1996년 2월 24일 관음제일날 화심이라는 법명을 받았으며, 그해 4月17日 통도사 총무스님을 모시고 석가모니부처님을 점안했다. 도량의 모습이 부처님의 정진도량으로 자리 잡아갔으며 나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었다.

화가 났을 때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해 보면 온갖 다툼과 화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있음을 알게 된다. 즉 상대자가 자신이 바라는 만큼 해주지 않거나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때 화가 나 기도하는데 그것은 또 한 자기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다.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진 세계를 바꾸어 나가는 원동력은 바로 세계의 구성원인 인간자신이다. 즉 신이라도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세계의 구성원인, 인간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세계의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나는 정신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마군의 수행을 도와주는 벗을 삼으라'는 <보왕삼매론>의 말씀을 새기며 그들을 스승으로 삼았다. 어려움과 복잡함을 기도로 이겨갔다. '관세음보살' 염원과 금강경 독송, 108참회를 매일하며, 불교교양대학, 불교대학, 그 밖의 공부를 시작하여 세간과 출세간의 생활상과 환경의 이질감을 회복해 나갔다. 독거 어르신 목욕봉사, 말벗, 병원 후송하는 일을 도우며 나와 함께 어려움을 같이해온 분들과 한 달에 한번 쇠고기 국을 끓여 지역 어르신들에게 대접하는 일도 했다. 임종을 앞둔 분에게는 밤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 임종 기도를 하며, 불교를 모르던 초발심자와 함께 시작한 4개월간의 불교교리 공부는 벌써 6기를 준비중이다. 그 동안 틈틈이 익힌 고려수지침으로 양로원, 복지관, 마을회관에서 봉사활동 중이며,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생각이다. 올해 조그만 땅을 마련했다. 외로운 어르신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보려 한다. 그리고 좀 더 나은 보살핌을 위해 2003년 동의대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한 상태다. 나는 거룩한 부처님 도량에서 많은 공부를 하기로 항상 발원한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니 있는 것이 곧 없음이요, 없음이 곧 있는 것이니, 진공에 들어가서 소모되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가 없는 것이고 있는 채로 또한 없는 것이다.'고 했다.

현실 모두가 한순간의 꿈이기 때문에 또 나 자신이 꿈을 일으켜 놓았기 때문에 있는 것도 없는 것이다. 도량 내에 흐르는 맑고 청아한 물, 각양각색의 피고 지는 꽃들, 울창한 소나무, 오리나무, 대나무, 숲을 오가며 노니는 새들의 지저귐 모두 이젠 정겨운 친구가 되었다.

'하늘이 나에게 복을 박하게 준다면 나는 나의 덕을 후하게 하여 이를 맞이할 것이며, 하늘이 나의 몸을 수고롭게 한다면, 나는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이를 보충할 것이며, 하늘이 나의 처지를 곤궁하게 한다면, 나는 나의 도를 달성하여 이를 트이게 할 것이니 하늘인들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제 중생과 함께 수백, 수천 생을 거듭하면서 육바라밀수행으로 '상구보리하화중생'하는 대승보살의 자리이타행을 벗삼으려 한다.

밝게 꿰뚫어 헤아릴 수 있는 존재의 참다운 깨달음, 진실한 지혜를 간직하기 위해 수행 정진하려 한다. 수행은 혹독한 시련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는 고행과는 다르다. 진리를 깨치기 위해 탐욕에 찌든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좋은 습성으로 바꾸어 마침내 깨닫는 과정이며 반복된 일상이라 했다. 홀연히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떠난 어머님 말씀만이 저무는 서쪽 하늘가에 맴돌고 있다. '착한 끝은 있는 기라. 착하게 살아라' 과거 일곱 분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모든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온갖 착한 일들을 받들어 그 마음을 깨끗이 해라' 하셨다.

오늘 밤에는 '법정스님'을 뵈어야겠다. 내 사유의 뜰에 맑고 향기 가득한 생명의 씨앗을 심기 위해. 황금빛 노을이 사라진 주위, 까만 침묵이 쌓여간다. 내일은 반드시 밝은 태양이 솟을 것이므로 나는 거룩하고 자비로운 부처님 전에 진정한 무릎 꿇음을 위해 발걸음을 옮겨 본다.

당선소감

대상 차정연씨



삶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마다 위안을 삼기 위해 적어놓았던 글인데 막상 대상이란 큰 상을 받게 되니 부끄럽습니다. 보잘 것 없이 붓가는 대로 쓴 글이지만 현재 어려운 역경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합니다.

생활 속 불법실현에 전력할 터

저는 정말 죽을 결심으로 기도를 해왔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부처님의 힘이 아니었더라면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기회가 불법을 더욱더 생활 속에서 성실하게 실천하라는 가르침으로 알고 현재 하고 있는 집 인근의 독거노인 말벗돼주기, 목욕, 수지침 봉사 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항상 기도정진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어려울 때마다 달려가 의지하고 기대는 저의 영원한 기도처이자 의지처인 약수암 스님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이번에 입학한 동의대 사회복지학과에서 더욱 열심히 공부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불제자가 되겠습니다.

◇1952년 부산 사상구 출생, 74년 성지고를 졸업, 2002년 조계종 포교사 고시해 합격해 포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2003년도 부산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수시모집에 합격한 상태다.



◇구랍 23일 심사위원들이 신행수기 본선에 오른 11편을 심사하고 있다.

심사평

총 92편 응모…기복적 내용 여전히 아쉬워

총 92편중 예선을 통과한 11편의 작품들이 본선에 올랐다. 올해는 참가 연령대가 지난해보다 낮아졌고, 인터넷 접수가 20여편 이상돼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내용면에서는 현실의 어려움을 신심으로 극복하면서 부처님 정법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보다는 아직도 기복적인 내용이 많아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중 차정연씨의 '움막속에 피어난 불심'과 조미자씨의 '부처님 믿는 마음은 곧 희망입니다'가 감동적인 내용으로 영예의 대상과 우수상을 차지했다. 특히 대상작 '움막속에…'는 다소 문장력은 떨어지지만 산에다 움막을 짓고 꿋꿋하게 수행하는 모습과 불교교양대에서 공부한 정법을 바탕으로 봉사활동에 전념한 모습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이번에 비록 수상작으로 뽑히지는 못했지만 교도소 등 소외된 곳에서 자신의 업연의 과보를 참회하는 내용의 수기도 많았다.

지난해보다 응모자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글의 내용과 문장구성면에서 다소 떨어지는 감이 들었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특히 감동적인 내용이지만 표현력의 부족으로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점이나, 글짓기식의 쓰기에만 집착한 응모작은 신행수기라는 본래 의도를 실망스럽게 했다. 다음 해에는 절절한 신심이 묻어나는 작품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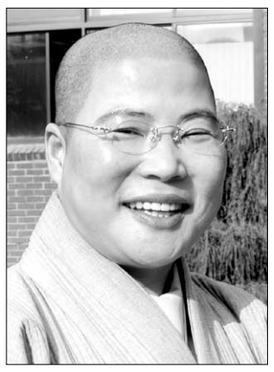
◇심사위원: 법산 스님(동국대 정각원장), 김징자(언론인), 최정희(현대불교 편집고문), 차차석(본지 상임 논설위원)

생활현장의 발원 "최선 다하는 불자 되겠습니다"

계미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마음속에 한 두가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 불교계 신행, 포교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불자들에게 새해 발원을 들어 보았다.

"여자 종립학교 하나 더 있었으면"

대구능인고등학교 교법사 아용스님



"평생토록 패션과 헤어스타일이 변치 않는 여인"

능인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용스님을 부르는 별칭이다.

아용스님이 대구 능인고등학교에서 교법사 생활을 시작한 것도 벌써 12년째. 교육에 대한 막연한 열정만으로 처음 학교에 부임해 학생들과 만남을 가진 스님에게 교육현장은 그리 녹녹한 것만은 아니었다.

첫 몇 달간은 짓궂은 아이들의 장난과 스님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질문들에 얼굴 붉어지기가 여러 번이었다.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한 스님에게는 아이들 앞에 서는 것이 한때 두려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십수년이 흐른 지금 아무리 짓궂은 장난에도 스님은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

"처음 학교에 와보니 매주 1시간씩 있는 종교수업시간이 입시와는 관계없는 과목이라며 자습을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하나라도 더 보내면 명문학교로 평가받는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한창 커나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인성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가불자 일색인 종립학교 종교담당 교사에 지난 91년 3월 교계 최초의 스님 교법사로 대구 능인고등학교에 부임한 아용스님은 첫 느낌을 이렇게 회상했다.

교내에서 스님의 인기는 대단하다. 얼마전 있었던 교내 인기투표에서도 아용스님이 다른 선생님들을 제치고 1등을 차지할 정도로 더 이상의 부연설명이 필요없다. 이처럼 아용스님이 아이들에게서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것은 남다른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다종교 사회입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존중하는 종교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용스님은 수업의 중심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단순히 불교교리 하나 더 가르키려 애쓰기 보다는 아이들과 삶의 아름다움에 관한 대화를 많이 나누려 노력하고 있다.

포교일선서 함께 할 후배 교법사 필요

학생에게 올바른 가치관 심어주고 싶어

아용스님에게는 새해 소망이 두가지 있다. 그 중 하나는 대구에 여자 종립학교가 하나 더 생겨 많은 학생들이 불법을 만나게 되길 바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젊고 능력있는 후배 스님들이 교법사에 많이 지원해 학생 포교일선에서 함께 일하는 도반을 얻는 것이다.

종립학교를 하나 더 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능인고등학교가 수년내 남녀공학으로 학제를 개편할 것이라는 소식에 작은 위안을 삼을 수 있다. 하지만 12년전 교법사에 임용될 당시도 최초의 스님이었으나, 아직도 교계 유일의 스님교법사라는 수식어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기에 스님의 두 번째 소망은 더욱 간절하다.

"도반들이나 후배스님들에게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함께 어울리는 것이 얼마나 수행과 포교에 도움이 되는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쉽게 오려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스님의 얼굴엔 정말 안타까움이 가득해 보였다.

스님은 또 "산중에 앉아서 참선만 하거나, 성인신도들만 포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스님이라고 해서 좋아하는 수행방법만 편식하면 안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불법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끄는 것도 진정한 포교와 수행의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아직도 길을 가다가 학생들의 교복자락만 봐도 가슴이 설렌다고 말하는 스님은 "스님, 안녕하세요"라는 학생들의 소박한 인사말에도 진귀한 보석을 지니고 있듯 가슴속이 뿌듯해 짐을 느끼게 된다며 새해에도 지금 이 자리에 만족하고, 순간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수행자로서 남고 싶다는 소박한 바램을 소망했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부처님께 '착한 어린이' 맹세

최우진(옥수동 연꽃어린이집 원생)

부처님 오신날 미타사에서 절하고 스님께 인사드리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스님이 염주도 주시고 사탕도 주셔서 올해도 빨리 부처님 오신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친구들과 선생님이랑 소풍도 가고 싶고, 엄마랑 아빠랑 가족 모두가 함께 올 겨울 눈썰매를 꼭 탔으면 좋겠고, 또 배비 시디, 똘똘이 인영도 갖고 싶고 에버랜드에 가서 신나게 놀이기구도 탔고 싶어요.

엄마, 아빠 말 잘듣고 어린이집 열심히 다니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래서 절에가서 부처님을 만나면 꼭 말 잘 듣겠다고 맹세할 거예요.



사이버 포교 많은 인연 있기를

신진학(유니텔 불교동호회 대표시삽)

인터넷과 PC통신불교동호회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만남을 인연으로 불교를 접하고 다시 산사를 찾는 등 신행활동으로 이어지는 사이버 신행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회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교자료들을 자료실에 올리고 필요한 사람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불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계미년에는 더 많은 네티즌들이 불교동호회를 방문해 불교와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매개로한 사이버 신행이 더욱 활성화 되고 유니텔 불교동호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이버 동호회들이 새해에더 더 많은 활동을 해 불교포교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합니다.



하루하루 항상 웃음 가득히

오은주(법장사어린이회 지도교사·대학생)

올해는 힘든 것도 많았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곧 잊혀져 내년의 밑거름이 될 것이고 좋은 사람들과의 새로운 만남과 "선생님"하며 쫄망쫄망 쫓아다닐 아이들을 생각하면 꽤 뜻 깊은 해였다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법회를 보면서 아이들을 지켜보는 저로서는 새해가 되면 아이들 전부 건강하고 예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다치지 말고 어른들이 만든 환경 속에서 물들어 거친 말을 하거나 거친 행동을 하지말고 그냥 예쁘고 순수하게 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새해에는 주위 사람들 모두 건강하고 그들과 언제나 웃음 가득히 하루 하루를 지내는 나의 모습이었으면 합니다.



사랑 · 자비 실천하는 한해로

이미성(진각복지재단 과장·성북구의원)

다사다난했던 2002년 임오년을 보내고 2003년 새해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국가적으로 월드컵 경기에서 대선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대사가 무사히 치러졌으며, 이 모든 일이 온 국민의 저력을 세계만방에 보여준 한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새 시대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 축제 한켠에는 추위와 배고픔, 외로움에 지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불자님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한해가 되길 진정으로 서원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관용과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되는 세상을 만드는 복지인이 되도록 서원합니다.



자립심 키우며 공부에 매진

한진욱(동국대 불교대학 신입생)

어린시절 어린이회, 중등부 학생회를 다닌 것과 큰아버지가 스님인 것이 인연이 되어 불교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불교에 대해서는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인지 대학에 진학하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교학, 선학, 인도철학을 다양하게 배워보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한 두 번 서울에 가 본 경험은 있지만 막상 서울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기대반 걱정반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는 만큼 자립심을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이라는 낯선 곳에서 대학생활도 열심히하고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 부모님께 성숙된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군포교 프로그램 개발 노력

한연수(조계종포교사단 군포교특별위원장)

올해 포교사단은 해외를 비롯해 전국의 6개 지역에서 16개 분야별 팀이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군포교팀은 전국의 72개소의 군법당에 많은 도움을 주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포교원에서 정한 '군포교 진흥의 해' 원년이었습니다. 올해에도 저희 군 포교사들은 법회 프로그램 개발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군포교를 위해 더욱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군내에서는 타종교가 쌍끌이 원양어선으로 앞서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쪽배를 타고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우리 포교사들에게 새해에는 더 많은 불자들이 관심을 갖고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흐르듯 불법전파 하고 싶어

황청원(방송인 · 시인)

불교방송 개국과 함께 지금까지 시사, 음악 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맡아 온 것은 라디오 방송이 불특정 다수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달할수 있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는 생각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행복스튜디오 황청원입니다'는 한국 불교를 이끌어 가고 있는 30~50대 보살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는 등 불자들의 반응이 커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항상 그러해 왔듯이 방송을 통해 부드럽고 편안하고 물 스쳐가듯 불법을 최대한 전달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6번째 시집과 명상산문집을 낼 계획입니다. 책을 읽고 나서 덮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독자의 머릿속에 남을수 있는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승 목표…명예전당 꼭 오를 것

박세리(프로골퍼 · 테일러메이드)

새해 초에 곧장 미국으로 가서 본격 훈련에 돌입합니다. 새해 소망을 꼭 이루기 위한 첫 훈련이죠. 저는 2003년 7승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002년에는 5승을 했는데 2승 정도 더 올리고 싶어요. 그러나 골프란 운동은 욕심을 가질수록 더 힘들기에 늘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과 일어나서의 관음기도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계속 할 겁니다.

프로 골퍼로서 가장 큰 소망은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5승만 보태면 명예의 전당 입회 자격 포인트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새해에는 더욱 분발하여 명예의 전당을 향한 디딤돌을 확실하게 굳히고 싶습니다. 한국의 스포츠인 모두에게 행운을 빌겠습니다.

羊은 대세지보살의 화신…세상사 보살펴

계미년 불교略史

▲623년. 백제 승려 관륵(觀勒), 일본에서 첫 승정(僧正)의 자리에 올랐다. 쇼토쿠(聖德)태자의 스승이었던 고구려 승려 혜자(惠慈) 입적하다.

▲923년(고려 태조 6). 화엄종을 통합한 원통(圓通)수좌 균여(均如)가 태어나다. 윤질(尹質)이 후량(後梁)에서 오백나한 화상(畵像)을 가지고 귀국해 왕에게 바치니 왕건은 이를 해주 숭산사에 봉안토록 지시.

▲1163년(고려 의종 17). 백련사 결사운동을 일으키고 천태종을 크게 중흥시킨 원묘요세(圓妙了世)가 태어났다. 의종은 명인전에 장경도량을 베풀어 분향하고 홍원사에서 화엄도량을 크게 열었다.

▲1223년(고려 고종 10). 최우가 황금으로 13층탑과 꽃병을 만들어 흥왕사에 봉안하였는데 무게가 2백 근이나 나갔다고 한다. 고종은 내전에서 담론법석(談論法席)을 베풀고, 수문전에서 불정도량, 제석도량, 소재도량을 베풀었다.

▲1283년(고려 충렬왕 9). <삼국유사>를

균여·요세스님 등 탄생
영조, 스님 한양서 쫓아내
사찰에 위패 봉안 금지

지은 일연 스님이 국존(國尊)에 책봉. 왕이 염승익 · 공유에게 명하여 현화사를 보수하고 남계원과 왕륜사의 석탑을 수리하게 했다.

▲1343년(고려 충혜왕 복위 4년). 오교양종 일곱 절의 토지와 선대의 공신전을 내고(內庫)에 귀속시켰다.

▲1403년(조선 태종 3). 의정부의 건의로 절에 속한 노비의 수를 대폭 감축했다.

▲1463년(조선 세조 9). 간경도감에서 <묘법연화경언해> 7권을 간행하여 왕에게 바침. 12월에는 승니(僧尼)가 죄를 범하면 먼저 보고한 뒤에 형을 가하게 하고, 관리가 출가자를 능멸하면 죄가 크다는 것을 널리 알렸다.

▲1763년(조선 영조 39). 한양에 있는 승려들을 내쫓고 각 도의 절에 위패 봉안을 금지했다. 벽하대우(碧霞大愚)와 화월성눌(華月聖訥)이 입적.

▲1883년(조선 고종 20). 한국불교태고종을 창종하여 초대 종정에 취임한 법운 박대련 스님이 태어났다. 도암인정(道巖印定)과 보운석일(寶雲碩一), 영산경순(影山敬淳), 용악보위(聳岳普衛)가 입적.

▲1943년. 범어사 금정불교전문강원이 원장이던 김법린이 조선어학회 사건에 연루되어 강제 폐원 당함.

계미년(癸未年)인 올해는 양의 해다. 십이지(十二支) 가운데 여덟 번째가 바로 양이다. 십이지신장(十二支神將)이 언제부터 불교와 관련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십이지라는 개념은 중국 은대에서 시작됐으나 이를 방위나 시간에 대응시킨 것은 대체로 중국 한대 중기의 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을 12가지 동물과 대응시킨 것은 훨씬 후대의 일로, 불교 전래 이후로 알려져 있다. 즉 부처님이 약사여래의 본원공덕에 대해 설할 때 12야차대장이 크게 감명을 받아 12대원을 행할 것을 서원하였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설명이다.

말이 아미타불의 좌측 협시보살인 관세음보살의 6현신 중 하나라면 양은 아미타불의 우측 협시 보살인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의 화신이다. 대세지보살은 지혜의 보살로, 이 넓은 우주의 모든 별들과 인간 세상을 빠짐없이 살펴서 모든 중생들의 선악을 아미타불에게 보고한다. 보고하는 것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고쳐주고,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도와주기도 한다.

그러나 별마다 중생들의 마음과 생활이 다르고 그곳에 살고 있는 중생들도 달라서 그 일은 여간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한 별들 가운데 인간들이 사는 사바세계는 너무나 복잡다단하고 일이 많았기에 직접 내려와 가까이서 관찰하고 파악하기로 하였다. 잠시도 쉴 새 없는 바쁜 몸이어서 항상 분주하였고, 잠시도 한곳에 오래 머무를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대세지보살의 지혜와 한량없는 권위는 그 복잡하고 힘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

경전 속에 양이 등장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대승불교 경전인 <법화경>이나 초기불교의 <장아함경> 정도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법화경> '비유품'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인 '화택의 비유(火宅喩)'에는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등장한다. 양거(羊車) · 녹거(鹿車) · 우거(牛車)는 각각 성문(聲聞) · 연각(緣覺) · 보살(菩薩)의 3승(三乘)을 비유한 것이다.

<장아함경> '세기경(世紀經) 지옥품'에는 지옥의 10가지 종류를 설하면서 양명(羊鳴)지옥의 예를 들고 있다. 이 지옥에서 죄를 받는 중생은 고통이 몸을 끊을 때 소리를 내어 말하고자 하나 혀가 돌아가지 않아서 마치 염소가 우는 것과 같다고 한다. 그래서 양명이라 부른다는 것이다.

부처님 전생 이야기인 <자타카>에는 '영양(羚羊)의 전생 이야기'가 나오고 아흔여덟 가지 우화를 모은 <백유경>에서는 '양 치는 사람의 어리석음'이란 이야기를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사찰 가운데에는 조계종 제18교구본사인 백양사에 양과 관련된 설화가 전해온다. 백제 무왕 때 창건된 백양사는 1034년 중연(中延) 스님이 중창하면서 '정토사'라고 이름을 고쳤다. 조선 선조때 환성(喚醒)스님이 중건하면서 매일 <법화경>을 독송하였는데, 흰양이 몰려와서 경 읽는 소리를 듣고 갔다고 해서 절 이름을 백양사(白羊寺)라 바꾸고 스님의 법명도 환양(喚羊)이라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사찰 창건 설화를 연구했던 동국대 김승호(국어교육과) 교수는 "목축이 성행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에는 양과 관련된 전설이 적은 편이다"며 "불교와 관련된 사료도 극히 적어서 백양사가 거의 유일한 예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아미타불 우협시보살
잘못된 것 고쳐주고 잘한 것 격려하기도



◇만봉스님 作 '양'

경전 속 羊이야기 적어
羊수레 성문에 비유
백양사 양 설화 유일

평화·순종 상징, 양꿈 대길몽

한국인과 羊



◇김유신묘 십이지신상 중 양.

십이지의 여덟 번째 동물인 양은 시각으로는 오후 1시에서 3시, 달로는 음력 6월에 해당하는 시간신이며, 방향으로는 남남서를 지키는 방위신이다.

'꿈보다 해몽'이란 말이 있지만 양꿈은 예로부터 대길몽이라고 했다. 태조 이성계가 초야에 묻혀 지내던 시절에 양꿈을 꾸었는데, 큰 양 한 마리를 잡으려는 순간 뿔과 꼬리가 몽땅 떨어져 나가 놀라 잠을 깼다. 무학대사에게 찾아가 꿈 이야기를 했더니 크게 놀랐다는 것이다. '양(羊)'자에서 뿔과 꼬리가 떨어져 나감은 바로 임금 '왕(王)'자를 뜻하는 것으로 "곧 등극하게 되실 것"이라는 것이었다.

한국인의 삶 속에서 양은 순박하고 평화로운 이미지를 대표한다. 양은 무리를 지어 살면서도 우위 다툼이나 암컷을 독차지하려고 들지 않는 유순한 동물이다.

더구나 액운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는 상서러운 동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역사 속 생활 용구에 표현된 양의 형상이나 문양에서 양이 벽사(辟邪) ·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침)나 길상(吉祥)을 상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양 치는 일이 토착화되지 못해서인지 양과 관련된 유물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삼국시대부터다. 양 관련 유물로 대표적인 것은 낙랑 시대의 양모양 패옥과 양 청자, 통일신라시대의 십이지 추등이 있다. 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은 "양의 성격이 순박하고 부드러운 것처럼 양띠도 온화하고 온순하여 양 띠는 부자가 못된다는 속담이 전해올 정도다"고 말했다.

양은 때로 경솔하고 어리석은 존재로 비유되기도 하는데, '양 가죽 천 개가 여우 가죽 한 개만 못하다' '양으로 이리 부리게 한다' 등의 속담이 전해온다.

조선태조 이성계 왕위등극 전 양꿈
생활용구 속 羊은 벽사·길상 의미

석탑·부도·불화에 등장

십이지신상은 약사여래의 권속으로 약사여래도에 호법신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십이지신상 가운데서도 탑이나 부도, 불화 등에 나타나는 십이지는 약사여래 십이신장과 관련된 것이다.

탑을 만들 때 그 기단부에 십이지신상을 조각하는 것은 통일신라 이후 8세기 중반부터로 경주 원원사지 삼층석탑이 그 효시로 알려져 있다. 원원사지 동, 서 삼층석탑의 기단부 상대 중석에 새겨진 십이지상이나 화엄사 서오층석탑, 경북 영양 화천동 삼층석탑, 경북 안동 임하동 삼층석탑의 기단부 하대 중석에 새겨진 십이지상은 모두 약사 십이신장을 도상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려시대 들어서는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등이 현존하는 예이다. 부도에 십이지신상을 새겨 넣은 것은 울산 태화사지 부도가 대표적이다.

문명대 교수(동국대)는 "십이지신상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양을 표현한 것은 극히 드물다"며 "감은사지 사리기에는 사천왕상의 발밑에 대좌로 표현된 동물 중에 양이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불화에 표현될 때는 약사불의 양쪽에 6명씩 무기를 들고 무장한 모습으로 묘사된다. 통도사 약사불화, 직지사 약사불화가 대표적이다. 양 머리에 사람 몸을 하고 칼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도상으로 표현될 때는 모습이 거의 비슷해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탑에 십이지신상을 새기는 기법은 능이나 무덤을 지키는 호석에도 영향을 주어 구릉형의 무덤 밑부분을 원형으로 돌리고 각각 십이지신상을 안치하기도 한다. 김유신묘, 진덕여왕릉, 경덕왕릉, 헌강왕릉 등이 대표적이다.

통일신라 이후 석탑기단부에 새겨
불화엔 약사불 양쪽 6명 무장한 모습

불교문화재속 羊



◇경북 월성 하구리 폐사지 출토 십이지신상 중 양.



① 대승불교와 화엄경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사상은 모두 시대의 산물이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연적인 요청에 의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종교 사상 또한 예외일 수가 없을 것이다.

대승불교가 출현하는 서력 기원의 인도는 이민족들이 계속 침입해 서부 인도를 지배함으로써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을 느낄 때다. 그리고 여러 이민족들은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인도에 들여 와 그것이 인도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했다. 대승불교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그 시대 민중들의 필연적인 요청에 의해 출현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대승불교는 종교 개혁사상에 의해 등장하는 새로운 불교라 할 수 있다.

대승불교는 부파불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상, 즉 석존이 뜻한 불교의 진정한 정신을 되찾으려는 사상운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승불교운동의 표면적인 동기는 부파불교 교단의 개인수행 중심의 출가주의와 학문화하고 철학화 되어 실천이 따르지 않게 됨으로써 생명을 잃어버리고 만 관념적인 불교 이해 방식을 비판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진정한 동기는 불타에 대한 신앙과 원시불교시대의 불타의 삶으로 돌아가 현실 생활 속에서 대중을 널리 구제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대승불교는 불타의 중생에 대한 자비활동의 예찬과 그 힘이 무한하다고 느낌으로써 비롯된 종교인 것이다.

자비이타행의 실천이념 주창

깨달음 향하는 보살의 길 제시

대승불교사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보살사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승불교라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있던 당시 시대 상황에서 수행자들이 불타가 보살이었을 때의 수행을 본받아 현실 세계 속에서 대중과 함께 생활하면서, 지혜나 자비와 같이 불타가 수행을 통해서 갖추고 있는 덕(德)을 자각하고 실천함으로써 성불에 이르고자 하는 보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보살은 원래 재가자의 신분이며 사회적 인간이면서 이타적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인격체였다. 모든 인간을 구제의 주체로 자각하고 그리하여 모두가 스스로를 보살이라고 한 그들은 보살행을 실천하여 진정한 인간의 삶을 꽃피운 불타의 삶 속에서 구제의 결정적인 계기를 찾고 그것을 자기 삶의 최고의 지표(指標)로 삼아 중생을 구제하고자 했던 것이다.

불타에 대한 신앙이라는 새로운 구제 방법론과 불타의 삶 속에 내재한 구제 방법을 탐색하여 자비 이타행이라는 최고의 실천이념을 창출해 낸 대승불교운동은 여러 갈래로 전개되어 종래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사상을 담고 있는 새로운 여러 가지 경전을 출현시켰다. 이들 경전에는 새로운 불타관(佛陀觀) · 불신론(佛身論)을 비롯하여 세계관(世界觀) · 수행관(修行觀) 등의 방면에서 이전의 경전에 비교하면 실로 엄청난 변화라 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제각기 나름대로 특색있는 사상이 주창되고 있다.

대승경전의 백미(白眉)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화엄경 또한 이러한 대승정신에 입각하여 독특한 보살도를 설하는 경전이다. 예로부터 화엄경은 근본법륜(根本法輪)이라 하여 석존이 성도하고 나서 곧바로 스스로 깨달으신 진리 내용을 그대로 설한 근본적인 설법이라고 하여 왔다. 분명히 화엄경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서, 원시불교에서 보이고 있는 석존의 성도와 수행 사실을 충실히 이어받으면서도 대승불교의 주체적이고도 적극적인 대비 이타의 보살도 사상으로 그것을 새롭게 나타내고 있다.

예로부터 화엄경은 중생을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향하게 하는 절대적인 가르침이라고 하여 일승별교(一乘別敎)라 일컬어져 왔다. 그것은 화엄경의 가르침이 전통불교인 성문이나 연각의 가르침인 이승(二乘)을 분명하게 부정하고 보살로서 살아가는 존재 방식만이 진실한 깨달음의 길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 종교 개혁적인 대승불교의 입장이 뚜렷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약력

권탄준(1950년)교수는 79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92년 동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일본 고마자와 대학 불교학부 교환연구원과 동국대 불교문화원 전임연구원등을 역임했고, 현 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와 불교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있다.



'임제록' 통한 선 공부 ㊵

변함없는 공간

모든 것 포용하는 '허공' 같은 마음이어야

도 닦는 이들이여! 그대들 눈 앞에서 작용하는 이것은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다. 다만 그대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곧 밖에서 찾지만, 착각하지 말라! 밖에는 법이 없고, 안에서도 법은 얻을 수 없다. 그대들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취하기보다는 일 없이 쉬는 것이 좋다. 이미 일어난 것은 이어가지 말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일어나도록 버려두지 않으면, 이것이 그대들이 10년 법을 구하여 돌아 다니는 것보다 더 낫다. 나의 견처에는 많은 것이 없다. 다만 평상(平常)하게 옷 입고 밥 먹으며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다.

나(我)는 어디에 있는가?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도(道)는 어디에 있는가?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자성(自性)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 질문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도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확인된다. 아무리 멀어도 눈 앞을 벗어나지 않으며, 귓가를 떠나지 않으며, 머리 속을 넘어서지 않는다. 도는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가깝다는 말도 해당되지 않는다. 도는 지금 이렇게 도를 묻고 찾는 움직임과 한 덩어리라고 해야 할 것이다.

도는 지금 눈 앞에서 귓가에서 머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과 한 덩어리라고 해야 할 것이지만, 눈 앞에 나타나 보이거나 귓가에 울려 들리거나 손 안에 잡히는 그런 사물은 아니다. 도를 확인하는 경험은 평소 우리가 사물을 알아차리는 경험과는 성질이 사뭇 다르다. 그러므로 도에 관해서는 어떤 추측이나 예상도 알맞지 않다.

비유하자면 이와 같다.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각 방마다 구조며 벽지며 가구며 치장이 제각각 다양하고 독특하여 서로 잘 구별된다. 우리는 각 방마다 들어가서 제각각 다른 모습을 보느라고 정신이 빼앗겨 있다. 그리하여 수십 개의 방을 거치면서 방마다 다른 모습에만 관심이 쏠려서, 이전 본 방과 비교하기도 하고, 이 방이 좋은가 저 방이 좋은가 하고 따지기고 하고, 어떤 방은 기억 속에 담아 두기도 하고, 어떤 방은 쉽사리 잊어버리기도 한다.

수 많은 다양하고 새로운 모습의 방을 거치면서 우리는 새로운 모습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의식의 한구석에는 변함 없이 한결같은 무언가가 자리잡고 있음도 느끼고 있다. 그러다 문득 어느 순간 이렇게 다양한 치장물들은 방의 핵심적 요소가 아니라 다만 가변적인 것일 뿐이고, 진실로 방의 제거할 수 없는 본질은 내가 들어와서 걸어다니고 치장물들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은 지금까지 방을 돌아보고 찾아보고 알아본 경험과는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경험이다. 방의 구조나 벽지나 가구나 치장이라는 모양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펴보고 알아보는 것과 공간을 깨닫는 것과는 사뭇 다른 점이 있다. 그러나 일단 공간을 깨닫게 되면, 이 공간이야말로 그 수 없이 다양한 모양의 방들에서도 한결같이 방이 방일 수 있도록 해주는 본질적 요소임이 명명백백하여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된다. 또 방들의 수없이 다양한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변함 없이 그 모든 모양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무언가 안심시켜주고 안정되게 해준다.

우리가 매 순간 순간 경험하는 의식이 바로 이러한 방 구경과 같다. 의식에서 경험하는 내용은 늘 다양하기가 한정이 없지만, 그 모든 의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변함 없는 것은 의식의 허공이다. 수 많은 모습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허공이 늘 이 자리에 있어서 안정을 주고 있다. 이 허공을 깨달아야 한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완 선생의 〈금강경〉 특강
1,2월. 부산무심선원 매주 토요일, 수원경기불교문화원 2,4주 일요일. 051-515-7226(무심선원),016-456-8957(강보영) http://www.mindfree.net/



연재를 시작하며

"불교와 의학"이라고 하면 얼핏 보기에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불교는 인간의 사람다운 삶에 관한 모든 것이고 의학은 인간의 질병과 그 치료에 관한 것이므로 서로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고(苦)의 바다에서 헤매는 원인을 살피는 과정에서 질병의 원인과 치료를 포함하여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을 소상히 밝혀내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불교의 진리는 의학뿐만 아니라 모든 진리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런가 하면 부처님께서는 대각을 이룬 자리에서 큰 직관지(直觀智)를 가지고 이 우주와 만물 만생을 남김없이 설하셨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데이비드 호킨스는 〈의식혁명〉이라는 저술에서 20세기의 천재로 알려진 아인슈타인의 지혜 수준과 부처님의 지혜 수준을 비교했는데, 아인슈타인의 지혜 수준 값은 400점이라고 하였고, 부처님은 1,000점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대각의 지혜 수준과 인간 중에서 아주 높은 것으로 알려진 아인슈타인의 지혜 수준과는 하늘과 땅 만큼이나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불교의 진리를 의심하지 말고 잘 해석해서 오늘날 과학의 발달에 밑거름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렇다. 인간이 수정하는 순간에 세 가지 요소에 의하여 생명을 시작한다고 하셨고,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는 몸과 마음이라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발달한다고 하셨으며,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인체는 세 가지 구조로 발달한다고 하셨고(삼신설), 감각기관이 발달하면서 탐욕과 집착이 생기는 과정을 밝히면서 인간의 마음에 관하여 너무나 자세히 설명하셨으며(유식학), 물질에 대하여 인간들이 왜 그토록 집착하는가를 살피는 과정에서 물질에 대하여 모든 것을 설하셨다(구사론). 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물질에 관한 내용은 인간의 육체와 그 구조물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사람의 죽음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으며 죽음 후에 남게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는 살아 있을 때의 집착 때문에 또 다른 육체를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한다고 하셨다.

따라서 필자는 "불교와 의학"이라는 제목을 연재하면서 주로 "불교에서 배우는 의학"이라는 자세로 글을 써볼 생각이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오늘날 의학은 첨단 과학의 모든 것을 응용하고 있으나 현대의학은 본래부터 유물주의 의학이라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로부터 의학적 진리를 찾아내어 현대의학에 접목시키면 오늘날의 의학을 몇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음' 빠진 유물주의 현대의학 한계

불교진리, 의학 발전에 도움될 것

■충남의대 산부인과학 교수

약력 1943년생, 196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 1973~1978년: 서울대학병원 인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과정 수료, 1983-현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988-1989년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 교환교수



그림 · 문병성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가드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한해가 시작되는 출발선상에 서 있다.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아쉬움도 남겠지만 과거는 흘러간 물이기에 우리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일을 설계하고 오늘 주어진 일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주변 상황 속에서 고원한 이상 보다 현실을 직면하고 살기에 후회 없는 인생을 영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중아함경>>165경에서 167경까지 '賢善一夜의 偈'라는 찬가가 있다. 매우 널리 애송된 것으로 보이는 이 노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거를 돌이키지 말고, 미래를 염원하지 말라./ 지난 일은 이미 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지금의 법을 그곳에서 관찰하고 동요함이 없이 남김없이 이해하여 닦아 익혀라./ 다만 오늘의 할 일을 열심히 하라. 누가 내일의 죽음을 알리오./ 진실로 저 죽음의 대군과 만나지 않으리라 말할 수 없도다./ 이와 같이 살며, 열심히 밤낮으로 태만하지 않는 자,/ 사람들은 그를 일러 하루 밤의 어진 사람, 적정자(寂靜者), 적묵자(寂默者)라 부른다."

꾸준히 노력·인내해야 원 이뤄

"성취하려면 먼저 인욕 배우라"

이 노래는 겸손 없이 현실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도 그와 같아야 하겠기에 새삼 이상의 노래를 소개했다. 모든 중생들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필자 역시 간절하다. 부처님께서도 중생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설법하고 계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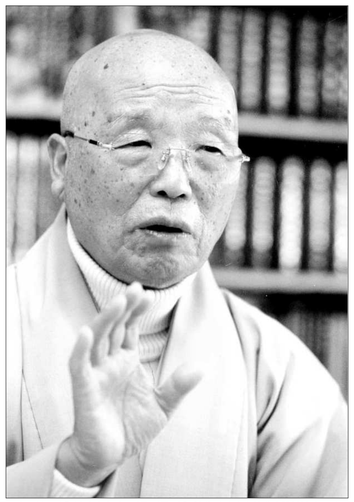
예나 지금이나 보통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한다. 지난 이야기이지만 매년 정초만 되면 필자를 위해 부적을 사다 주는 누님을 가슴 아프게 한 적이 있다. 그것은 쓸데없는 일에 돈쓰지 말고 차라리 그런 돈 있으면 실용적으로 다른 데 쓰라고 핀잔했던 일이다. 비단 우리 누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초만 되면 신수점을 보거나 토정비결을 보며 일년을 점치곤 한다. 모두 무탈하게 일년을 보내며,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이 거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도 이러한 일은 많았던 것 같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 석제환인이 발리바루자 아수라와 함께 문안 인사를 했다. 그때 아수라가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린다. "사람이 항상 노력하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며/ 법과 진리도 얻게 되어 안온하며 쾌락을 얻으리라." 이에 석제환인도 게송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이 항상 노력하면 뜻하는 바를 반드시 이룰 것이며/ 사업 또한 성취할 것이니 참아 이기는 것이 제일이로다"

이상의 게송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화답했다. "모든 중생들은 저마다 이익을 위해 각자의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것 따르나니/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은 한 가지이나 땀 흘려 노력하는 자만이 그것을 얻으리라./ 사업을 이룩함에는 참아 이기는 것이 제일이니 이루고자 하면 먼저 인욕을 배워야 하리라."

석제환인이나 아수라나 모두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부처님께서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노력하고 참아 이기는 사람만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자신의 사업을 이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지당한 이야기들이지만 쉽게 살고자 하는 것도 인간의 속성 중의 하나이기에 범상하게 생각되지 않는 것이다. 욕망에 충실하기에 인간일 수 있다. 아니 욕망이 있기에 살아 있는 인간인 것이다. 그러나 노력과 인내가 있기에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구분될 수 있다. 험난한 세파를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노력과 인내인 것이다. <<잡아함경>>제22, 603경에서는 이러한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계신다. "어떻게 흐르는 물을 건너고/ 어떻게 넓은 바다를 건너며/ 어떻게 괴로움을 버리고/ 어떻게 밝고 깨끗해지나이까?" 이에 부처님께서는 "믿음은 모든 흐름을 건너게 하고/ 게으르지 않음은 넓은 바다를 건너며/ 정진으로 모든 고통을 버리고/ 지혜로서 밝고 깨끗하게 되느니라"고 대답하고 있다. 세파를 건너서 평화롭게 살고 싶은 인간의 소망에 대해 너무나 진솔하게 대답하고 있다. 믿음으로 게으르지 않음으로 정진으로 넓은 인생사를 극복하고 고통과 불안을 던져버리라 말한다. 그러기에 <<증일아함경>>제4에서는 "교만하지 않는 것은 감로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교만이 없으면 죽음이 없으나 교만이란 바로 수행자의 죽음이다"라 말하고 있다. 금년 한해를 시작하는 마당에 서서 부처님 제자들은 노력과 인내와 겸손으로 무장하고 변화무쌍한 인간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게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보성스님은 부처님이 가르쳐준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설하신다.

지상 백고좌

보성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밥짓고 청소하는 일도 부처님 공경하듯 하세요

식생활부터 정성들여야 몸·마음 편안해져 내면의 불성 깨울 수 있어

머리깎고 절에 왔으면 자다가도 머리 만져보며 출가정신 되새겨야 해요

기자가 본 보성스님

"밥 먹기보다 담는사람 되라"

흐르는 들은 머물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는 성주괴공이라는 변화를 겪고, 아지 중지하는 몸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늙어갑니다. 지금은 젊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것도 잠시예요. 예외 없이 몸뚱이라는 기계는 고장이 나게 마련입니다. 누구도 그렇지 않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 이치를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앞뒤를 살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행도량이 생긴 뜻이 무엇인지도 잘 살펴보세요.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등은 인도나 중국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 우리 나라의 선지식들이 인간을 제도할 수 있는 터가 되길 바라는 원을 담아 지었어요. 그러니 그 터에 살고 있는 출가 수행자들은 더욱 더 꼼꼼하게 그 어른들의 근본 뜻에 어긋나지 않는지, 그분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사는 길이 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뜻과 앞서간 선지식들의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머리 깎고 절에 왔으면, 밥에 자다가도 머리를 만져보면서 출가정신 되새겨야 해요. 출가자가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부처님 가르침이 바로 섭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별 것이 없어요. 새해라고는 하지만 갑자기 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똑같은 날짜를 반복할 뿐입니다. 새해라고 해가 갑자기 모가 나는 것도 아니며, 빛이 청색을 띠거나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스스로의 마음을 닦아 가겠다는 다짐이 중요해요. 즉 의식구조가 다시 정립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의식구조의 정립에서 중요한 것이 승가에서는 계율이요, 사회에서는 예의범절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인 사회에서 제율, 예의 범절은 의식을 바로잡는 길잡이가 되어 줍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전체를 위해 좋은 것을 하나 뜰 정한 것이 자연스럽게 계로 정착이 된 것이죠. 나를 내세우는 마음을 내려놓고 전체의 질서를 생각하는 것이 제일 어려울 것 없어요. 어떤 이들은 부처님의 계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모르는 소린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버릴 게 없어요. 천수경에 보면 '원아조득선방편願我早得善方便'이라는 구절이 있죠? 이 말은 부처님의 뜻도 저버리지 않으면서 나에게도 좋은 방편은 반드시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노력은 않고 계를 탓하고 시대를 변명으로 삼는다면 질서가 흔들리고 이해관계에 얽혀 아름답고 건전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다만 한 가지만이라도 부처님의 뜻을 철저하게 따르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해요. 천수경 하나만 잘 새겨도 모든 것을 깨칠 수 있는 하공의 감사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수행력이 약한 것은 탓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에 대해 옳고 그른것을 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년을 절에 다녀도 제대로 한번 살아 보겠다는 마음가짐이 없는 사람에겐 아무리 법문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출가자는 출가정신이 제로, 또 재가자는 재가자로서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려는 노력과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부처님께 절하듯이 성의껏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도량에서 비질을 하거나 집에서 밥을 짓더라도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원만한 생활이 엮입니다. 지금 병원에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80% 이상이 식생활의 문제로 병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족의 식생활부터 정성스런 마음으로 짱기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나는 법문 들으러 오는 보살들한테도 외식만 즐기고 가족들 밥 챙겨주는 데 게으르면 법문들을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작은 일 같지만 사회를 이루는 기본인 가정에서 남편과 자식,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그것이 곧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노력입니다. 그 노력을 잠시라도 놓치지 않고 매순간 이어가는 것이 불법의 요체라고 볼수 있죠.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가 산다는 것 속에는 죽는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먹고 자고 일하는 일상이 반복되고 반복되면 결국 우리가 가 닿는 것이 어디입니까?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력은 않고 계만 탓하고 시대를 변명으로 삼는다면 질서가 흔들리고 이해관계에 얽혀 아름답고 건전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다만 한 가지만이라도 부처님의 뜻을 철저하게 따르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해요. 천수경 하나만 잘 새겨도 모든 것을 깨칠 수 있는 하공의 감사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수행력이 약한 것은 탓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에 대해 옳고 그른것을 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년을 절에 다녀도 제대로 한번 살아 보겠다는 마음가짐이 없는 사람에겐 아무리 법문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출가자는 출가정신이 제로, 또 재가자는 재가자로서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려는 노력과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부처님께 절하듯이 성의껏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도량에서 비질을 하거나 집에서 밥을 짓더라도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원만한 생활이 엮입니다. 지금 병원에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80% 이상이 식생활의 문제로 병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족의 식생활부터 정성스런 마음으로 짱기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나는 법문 들으러 오는 보살들한테도 외식만 즐기고 가족들 밥 챙겨주는 데 게으르면 법문들을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작은 일 같지만 사회를 이루는 기본인 가정에서 남편과 자식,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그것이 곧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노력입니다. 그 노력을 잠시라도 놓치지 않고 매순간 이어가는 것이 불법의 요체라고 볼수 있죠.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가 산다는 것 속에는 죽는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먹고 자고 일하는 일상이 반복되고 반복되면 결국 우리가 가 닿는 것이 어디입니까?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력은 않고 계만 탓하고 시대를 변명으로 삼는다면 질서가 흔들리고 이해관계에 얽혀 아름답고 건전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다만 한 가지만이라도 부처님의 뜻을 철저하게 따르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해요. 천수경 하나만 잘 새겨도 모든 것을 깨칠 수 있는 하공의 감사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수행력이 약한 것은 탓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에 대해 옳고 그른것을 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년을 절에 다녀도 제대로 한번 살아 보겠다는 마음가짐이 없는 사람에겐 아무리 법문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출가자는 출가정신이 제로, 또 재가자는 재가자로서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려는 노력과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부처님께 절하듯이 성의껏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도량에서 비질을 하거나 집에서 밥을 짓더라도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원만한 생활이 엮입니다. 지금 병원에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80% 이상이 식생활의 문제로 병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족의 식생활부터 정성스런 마음으로 짱기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나는 법문 들으러 오는 보살들한테도 외식만 즐기고 가족들 밥 챙겨주는 데 게으르면 법문들을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작은 일 같지만 사회를 이루는 기본인 가정에서 남편과 자식,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그것이 곧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노력입니다. 그 노력을 잠시라도 놓치지 않고 매순간 이어가는 것이 불법의 요체라고 볼수 있죠.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가 산다는 것 속에는 죽는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먹고 자고 일하는 일상이 반복되고 반복되면 결국 우리가 가 닿는 것이 어디입니까?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력은 않고 계만 탓하고 시대를 변명으로 삼는다면 질서가 흔들리고 이해관계에 얽혀 아름답고 건전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다만 한 가지만이라도 부처님의 뜻을 철저하게 따르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해요. 천수경 하나만 잘 새겨도 모든 것을 깨칠 수 있는 하공의 감사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수행력이 약한 것은 탓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에 대해 옳고 그른것을 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년을 절에 다녀도 제대로 한번 살아 보겠다는 마음가짐이 없는 사람에겐 아무리 법문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출가자는 출가정신이 제로, 또 재가자는 재가자로서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려는 노력과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부처님께 절하듯이 성의껏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도량에서 비질을 하거나 집에서 밥을 짓더라도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원만한 생활이 엮입니다. 지금 병원에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80% 이상이 식생활의 문제로 병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족의 식생활부터 정성스런 마음으로 짱기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나는 법문 들으러 오는 보살들한테도 외식만 즐기고 가족들 밥 챙겨주는 데 게으르면 법문들을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작은 일 같지만 사회를 이루는 기본인 가정에서 남편과 자식,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그것이 곧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노력입니다. 그 노력을 잠시라도 놓치지 않고 매순간 이어가는 것이 불법의 요체라고 볼수 있죠.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가 산다는 것 속에는 죽는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먹고 자고 일하는 일상이 반복되고 반복되면 결국 우리가 가 닿는 것이 어디입니까?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력은 않고 계만 탓하고 시대를 변명으로 삼는다면 질서가 흔들리고 이해관계에 얽혀 아름답고 건전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다만 한 가지만이라도 부처님의 뜻을 철저하게 따르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해요. 천수경 하

"더 큰소리로 읊어라. 더 악을 쓰면서 읊어라"

20년 전쯤 송광사 버스정류장에서 같비다음 몰골며 올고 있는 아이를 어쩌지 못해 쭐쭐매는 엄마에게서 아이를 좀 달래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성 스님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더 크게 읊어라"는 스님의 재촉이 계속되자 아이는 "더 이상 못 읊겠다"며 울음을 그쳤다. 그러나 스님은 "더 크게 안 읊면 혼난다"고 호통쳤다.

스님의 가르침은 늘 이런 식이다. 문제를 문제의 당사자에게 환원시켜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것. 짓궂은 음의 웃을 입은 엄함, 바로 그것이다. 스님은 요즘 사람들이 꼭 때를 쓰며 우는 아이 같다고 안타까워하셨다. 아집과 집착에 사로잡혀 울며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울음을 그치고 진리의 길로 나아가길 바라는 스님의 간절한 마음이 묻어났다.

"세상 사람들 사는 것 말하기 전에, 승려들부터 달라져야 해.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점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한층 더 스스로를 다듬어야 해. 적어도 밥을 탐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지. 밥을 먹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잖아?" '중노릇 잘 하라'는 스님의 간곡한 당부는 송광사 행자 교육, 율원 발전에 대한 관심에서 잘 나타난다.

스님은 행자교육이 더욱 체계화하고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송광사에 가면 스님의 이러한 기본 방침



◇도량의 이곳저곳을 두루 살피시는 보성스님의 모습은 후학을 일깨우는 경종이 된다.

하시면서 사산대사의 선시를 선물로 건네셨다.

바람은 자도 나뭇잎은 떨어지고
새가 우니 산은 더욱 고요해라.
새벽은 환 구름과 함께 밝아오고
물은 동구 달 품고 흘러만 가네.

정리=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go@buddhapia.com

남전스님의 스님이야기

성원스님



스님들의 수행 방식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경우가 지나쳐 참선하는 분과 하문하는 분, 포교하는 분들을 갈라놓고 각각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이 땅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 진 이후 수 많은 수행자들이 치열한 구도의 삶으로 지금의 불교를 이루어 냈다. 그 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수행자의 참 모습만 볼 뿐, 수행 방법을 문제 삼지는 않는다. 매년 어김없이 2~3천명의 스님들이 안거에 들어가고 열악한 환경의 도심에서 의미있는 포교를 하며 수행하는 스님들과 오늘도 멀리 이국에서 치열하게 학문에 정진하고 있는 스님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다. 불자들에겐 모두가 소중한 수행자들이다.

예전에 가끔 떠오르던 생각이 하나 있었다. 출가 수행자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출가자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할까? 하는 것인데 언제나 그것 수행하는 사람이란 결론에 이르곤 한다. 수행을 떠나면 출가자는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어떤 공부든 그것이 수행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면 최소한의 명분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림 · 문병성

근래 불교의 모습이 선(禪)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포교나 학문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진 측면이 있다. 언제부터인지 절집에서는 포교나 학문이 마치 자기 만족을 위한 행위나 세속화의 지름길로 생각하곤 했다. 그런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외람된 생각이지만 수행자의 모습은 완성된 사람으로써 불철 보이는 삶이라기 보다는 그것을 위해 애쓰고 정진하는 과정의 삶이라고 본다. 순간 순간 부딪혀오는 상황들을 모두 화두 참구 하듯이 지니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본다.

군승 시절에 만난 여러 스님들은 나에겐 큰 인연들이고 좋은 인연들이었다. 성원스님은 그 중에서도 단연 독특한 스님으로 기억된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같이 다녔던 분들의 의견도 역시 그러했는데, 어딘지 승복이 어울리지 않는 모습은 늘 웃음을 자아내지만 공부는 참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 판단에 스님은 주관이 너무 분명해서 모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아는게 너무 많아서 때로는 정(?)에 조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논리정연 함에는 결국 많은 분들이 손을 들게 된다. 군승 재직시 군승단에 작은 변화의 흐름이 있었음에 이론적 뒷받침을 도맡아 했고, 명쾌한 결론으로 대중들을 이끌었던 기억도 생생하다.

성원스님은 동국대를 졸업한 후 서울대 대학원에서 동양 철학을 전공하고 군승으로 재직했다. 군에 있을때도 언제나 학문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했고, 제대 후에는 더 넓은 곳으로 공부하러 가야겠다는 얘기를 앵무새처럼 하곤 했다. 그 땐 나도 함께 공부하러 가기로 의기투합 했었는데, 나 같은 경우엔 생활의 분주함으로 인해 곧 그 사실을 잊어 버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스님은 군승시절 내내 학문에의 열정과 원력을 한번도 놓은 적이 없었던것 같다. 제대할 무렵 전국의 절을 함께 순례한 적이 있었는데, 판공산 갯바위에 올랐을 때일이다. 스님은 많은 불자들 틈에 섞여 염심히 절을 했다. 난 그때만 해도 명색이 스님인데 스님 자리에 가서 기도하던가, 아니면 간단히 축원이나 하자고 했지만 스님은 상관하지 않고 신도들의 틈에서 큰소리로 염불하며 절을 했다. 옆에서 가만 들어보니 그 염불소리는 도미성취(覩美成就) 중생구제(衆生救濟) 였다. 난 그저 까맣게 잊고 있던 소망을 스님은 군생활 내내 불taking 있었던 것이다.

예전에 큰 스님들은 출가자는 먼저 원력을 크게 세우라고 말씀 하시지 않았는가? 원력을 세우고 살아가는 수행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 모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스님은 그 해에 하와이로 건너갔고, 거기서 다시 위스콘신주립대로 진학해서 박사과정 까지 마쳤다.

역시 수행자는 공부의 방법과는 상관없이 큰 원력을 가지고 정진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누구보다도 엄격하고 호되게 몰아치면서 중생들에게 한없이 너그러운 스님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성원스님은 그런 모습을 내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한국 불교계는 그 어느 때보다 인재 양성에 적극적이다. 탑과 절을 세우는 것 만으로는 불교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성원 스님과 같은 학문에 열정을 가진 스님들을 제대로 키우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가꾸는 일은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또 다른 불사일 것이다.

■서울 정혜사 주지

남전스님은 1990년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98년 통도사에서 청허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군승으로서 군포교에 애쓰셨으며, 현재 서울 창동 정혜사에서 불자들과 호흡하며 살아있는 불교 전하기에 매진하고 있다.

인도는 과연 환상·신비의 나라?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
이옥순 지음
푸른역사 / 9천8백원

왜곡된 과거·현재 균형 잡힌 견해 제시
“‘신비한 동양’ 제국주의적 시각 반성해야”

우리는 흔히 인도를 신비한 나라, 미지의 나라로 부르고 또 그렇게 여긴다. 거지와 수행자가 함께 사는,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 인도. 따라서 인도는 현대 문명에 찌든 모든 이들에게 위안을 줄 환상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터넷만 있으면 어떤 정보도 섭렵이 가능하고, 심지어 우주여행까지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지만 인도는 한없이 신비한 그 어떤 곳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과연 인도는 신비와 환상으로 가득한 곳인가? 10년 가까운 세월을 인도델리대학에서 인도 근현대사를 공부하고, 요즘도 종종 인도를 들락거린다는 이옥순 박사(숭실대 강사)는 단언한다. “인도 또한 그저 사람이 사는 곳일 뿐이다”라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인도는 없다는 것이다.

그가 펴낸 <우리안의 오리엔탈리즘>은 ‘신비’라는 겉포장으로 인해 잘못 알려진 인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비판적 정보와 균형 잡힌 견해를 제시한다.

저자는 왜곡된 인도 이미지의 간파와 유포 혐의를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 서양에 의해 날조된 동양에 대해 쓴 ‘오리엔탈리즘’의 저자, 미국 콜롬비아대 교수이자 세계적인 문화평론가)의 오리엔탈리즘에서 읽어낸다. 사이드에 따르면, “오리엔탈리즘은 동양과 서양 간의 인식론적 구분을 창조하고 확인하는데 기여한, 서양의 동양에 대한 연구와 서양에 의해 재현되고 지지된 어떤 이념적 관점”을 말한다. 다시 말해 서양이 상상하고 날조해낸 동양의 이미지, ‘신비한 인도’의 이미지가 오리엔탈리즘인 것이다. 이에 더해 저자는 영국이 유포한 오리엔탈리즘을 복제하여 재생산하고 있는 오늘 우리 사회의 현상을 ‘복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지칭하고, 우리가 보는 인도는 이중의 오리엔탈리즘, 곧 서양이 구성한 동양이 아닌 ‘동양이 구성한 동양’이라는 중층적 구조에 대해서도 실날하게 비판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영국과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소설과 여행기, 신문과 잡지에 실린 글 등 문자화된 수단인 텍스트를 분석하여 상상력의 렌즈와 보는 자의 ‘전지전능한’ 시선으로 박제(형성)되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복제되고 무의식적으로 수용(재생산)되는 이미지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구성되고 발전했는지를 추적한다.

영국인 존과 결혼하는 성자가 등장하는 강석경씨의 소설 <세상의 별은 다 라사에 뜬다>를 분석한 저자는 “강석경이 그려낸 인도에는 인도인이 없고 그저 야만인만 있다”며 “인도는 한국 여성이 ‘클레오파트라’가 되어 서양의 ‘위대한 개츠비’를 만나는 무대로만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송기원씨의 소설 <안으로의 여행>에서 그려진 인도 역시 “정복하고 지배받아 마땅한, 야만적 인종이 사는 곳이지,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닌” 것으로 그려진다. 특히 “인도 토착민 특유의 새까맣고 비쩍 마른 얼굴들” “거무뎅뎅한 피부는 그가 토착민 출신임을 드러내고” 등 송씨의 표현에서 저자는 제국주의가 활약하던 시대 <셜록 홈즈 시리즈>에서나 볼 수 있었던 차별적 시선을 읽어낸다. 저자는 “소설 속 주인공들은 가난한 원시인을 만나고 후진 사회를 누비면서 그들보다 우리가 낫다는 비교우위의 행복을 확인하는 것으로 인도 기행을 마친다”고 비판한다.

또한 인도 열풍의 진원지라 할만한 류시화 씨의 여행기는 인도를 이국적이고 신비한 대상으로 타자화 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에서 류씨가 “다 명상가 같고 철학자 같다”고 한 인도의 하층민들은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면서, 정말 가난해도 행복한 것인지 의문을 던진다. 류씨는 남의 것을 훔친 뒤 “이건 네가 잠시 갖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인도인의 뻔뻔스러운 모습에서 물질을 초월한 인도의 정신을 읽어낸다. 이를 저자는 10억 인구의 역동적 인도는 사라지고 과거 속에 박제된 ‘정신주의의 모국’ 인도만이 남는 순간이라고 말한다.

이 뿐만 아니다. 대형 열차사고나 종교간의 충돌 등 신문 잡지의 보도 또한 인도를 사고에 무방비인 후진국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이야기의 전개를 통해 저자는 ‘신비한 인도’를 말하면서 동양의 비합리성과 빈곤, 무질서 등을 ‘신비한 동양’으로 암시한 제국주의 시선을 우리가 그대로 모방했음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국주의와 정치적 연관관계가 없으면서도 식민시대 영국의 시선을 비판없이 그대로 차용하여 우리보다 열등한 나라로 인도를 바라보는 우리 또한 대영제국의 공범이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인도 또한 사람이 사는 곳일 뿐이다. 신비와 환상으로 가득한 그런 인도는 없다. 사진은 인도 우타 프라데시주 쁘렝쁘르 마을 광장에 모여든 인도인들.



◇흰눈이 내려앉은 월정사 전경. 오대산 만월봉 아래 자리잡은 월정사는 자장율사가 창건한 오대산 신앙의 중심지다.

마음 열려면 산사 찾으세요

‘산사’
이형권 지음
고래실 / 1만 8천원

내 집처럼 편안한 절의 느낌 담아

바랑을 짊어 맨 수행자는 아니더라도 한번쯤 자신을 찾아 떠나고 싶을 때, 세파에 시달린 몸과 마음에 휴식을 제공하고 싶을 때 우리는 산사를 찾는다. 휴가 때면 많은 사람들이 산사의 수련회를 찾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일 것이다.

옛 모습을 원형대로 간직한 때묻지 않은 개심사에서는 옛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내고, 조선 4대 사찰로 꼽힐 만큼 거찰이었던 건봉사의 오늘 모습은 향로봉의 철책선과 돌솟대, 십바라밀 석주 등을 통해 전하기도 한다. 또 해남 미황사는 땅끝에 핀 한떨기 야생화 같은 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부석사는 소백산맥이 조화미를 연출하여 절마당에서 바라보이는 풍경이 모두 부석사의 정원이라고도 한다.

15년째 전국 사찰을 누비며 문화유적 답사에 발품을 팔아온 저자는 이 책에서 어제의 모습에서 오늘을, 오늘의 모습에서 내일을 읽어내며 마음 깊이 느끼고, 배우고, 익힌 흔적을 노래한다. 산사의 사계를 담은 사진들도 저자가 직접 찍은 것이다.

새해를 맞아 우리 산천의 산사들을 찾아보리라 마음먹은 이들에게 권하고 싶다. 이은자 기자

알기쉽게 풀어 쓴 법화경 이야기



‘사람이 부처님이다’
무비 스님 지음
불광출판부 / 5천원

“사람을 부처님처럼 받들 때 세상은 화평”

<사람이 부처님이다>는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이 펴낸 법화경 이야기다.

무비스님은 법화경의 ‘사람이 부처님이다(人佛思想)’라는 가르침을 불법에 귀의하여 수십년의 세월을 거쳐 당신이 깨달은 결론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법화경의 모든 것을 무비스님이 현대적 언어로 알기 쉽게 설한 강의록 내지는 공부책이라 할만하다.

온갖 모순과 아픔, 결점으로 얼룩져 있는 못난 인간 그대로가 참 부처님이라는 충격적인 가르침이 법화경에 담겨있다. 부처님을 살해하여 불교교단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했던 제바달다가 부처님이요, 스승이라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법문을 설할 당시 5천명의 불제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전무후무한 사건이 오늘까지 전해질 정도로 법화경은 불교 최상의 가르침으로 받들어진다.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의 삶’이기에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겨야 한다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고 세상은 더없이 평화로워질 것이라는 것이 무비스님이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려는 핵심이다.

인물·학통·주제별 불학사 기술



‘한국불학사
(신라·고려시대 각 1권)’
고영섭 지음
연기사 / 각권 1만 2천원

불교연기사관 입각 인간과 세계를 이해

‘인물’ ‘개념’ ‘학통’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 불학사를 살핀 <한국불학사>가 나왔다.

신라시대편과 고려시대편 각 1권으로 간행된 이 책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인 고영섭 박사가 펴냈다. 지난 1999년 펴냈던 <한국불학사>(신라·고려시대편)를 분책하고, 내용을 확충한 것이다.

신라시대 편은 문아·원효·의상을 중심으로 살펴나가고, 고려시대 편은 균여·지눌·일연을 중심으로 추적해 간다. ‘개념’의 측면은 각 인물들의 사유체계의 중심개념들을 살피고, 인도와 중국 불교 이래의 교학과 종학과의 유기적 관련 속에서 불학으로 통섭해 간 한국불교의 주요 인물과 사상을 중심으로 ‘학통’을 논구해 간다. ‘주제’의 측면은 해당시대의 핵심적 사상의 쟁점 내지 학문적 화두를 중심으로 시대적 요구와 관련지어 해석의 지평을 넓혀나간다. 즉 한국불교의 무늬와 살결, 신라하대의 선문화 전개와 발전, 고려 신개판 조당집 집성자 연구, <삼국유사>의 연기사관, 고려 불교인들의 현실 참여 등 당대의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나간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감산자전	감산 스님	여 시 아 문
2	무심	경허 스님	고 요 아 침
3	아름다운 우리말 경전 금강경	우룡 스님	효 림
4	화	틱 낫 한	명진출판사
5	이뭐꼬	성철 스님	김 영 사
6	역사속의 한국불교	이 이 화	역사비평사
7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틱 낫 한	김 영 사
8	한영불교사전	서광 스님	불광출판부
9	왕눈이스님	정 수 일	운 주 사
10	화엄경	법정 스님	동 쪽 나 라

도서 안내 : (02)737-0695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 02)737-0695 / 팩스 : 02)737-0696

사찰 영탑원, 형태·건립위치 도량 공간구성 고려해야

심재학씨 '대각사상' 5집서 설계기준 제시

불교의 전통적인 장례문화인 화장은 불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확산되는 추세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96년 29.0%였던 화장률이 97년 30.8%, 98년 36.5%, 99년 41.9%, 2000년 49.5%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전국적 화장률도 96년 23%에서 2000년에는 30.7%로 올랐다. 이러한 때에 불교적 입장에서 사찰의 영탑원 조성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지적한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끈다.

심재학(공간연구원 '정토' 원장)씨는 최근 발간된 <대각사상> 5집(대각사상연구원, 연간)에 기고한 논문 '불교사찰의 영탑원(靈塔園) 도입과 설계기준'에서 "최근 들어 화장 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영탑원 조성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거나 자연환경과 사찰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대단위로 조성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불교계가 앞장서서 바람직한 장례문화와 영탑원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불교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형식의 창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씨에 따르면 현재 사찰에 도입되고 있는 영탑원 조성과 관련, 가장 큰 문제점은 과다한 면적에 무절제하게 조성된다는 것과 무분별한 형식이다. 그렇다면 영탑원은 어떤 개념과 기준을 갖고 조성해야 할까?

심씨는 먼저 "영탑원은 생즉사(生卽死), 사즉생(死卽生), 열반이라는 불교적 의미를 구체화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기존 사찰의 공간구성이나 배치형식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위치가 결정되고 공간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장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가운데 영탑원은 기존 사찰의 공간구성을 바탕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9월 개원한 해인사 미타원 모습.

일반인 영탑, 스님 부도탑 모방은 잘못

과다한 면적에 무절제한 조성 문제

심씨는 "불교적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영탑의 형태를 고안하고 영탑원의 공간구성이나 배치양식을 결정함으로써 기존의 화장 및 납골에 대한 이미지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영탑원은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납골당과 추모 공원 등의 대형화와 고가의 분양제를 지양하고 불교신자와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운영돼야 하며 신행, 봉사활동(임종봉사, 염불봉사 등)을 통한 불교 포교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씨가 2001년 1월부터 시행중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출한 시설면적을 보면 500㎡ 면적인 경우 설치할 수 있는 영탑은 약 100기이다.

화장된 유골의 부피 및 납골용기의 크기를 기준으로 0.09㎡를 단위면적으로 하고 500㎡에 적용할 경우 조경면적 20%를 제외한 400㎡가 영탑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조했다.

즉 규모가 작은 사찰에서는 기존의 지장전이나 명부전에 적합한 규모의 납골당과 납골탑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별도의 장소를 마련할 때도 사찰 본래의 공간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영탑의 유형 또한 스님들의 부도탑을 기본양식으로 하되 부도탑과는 형식적으로 판이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조형적 형태를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씨는 "부도탑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스님들의 묘탑인 부도탑을 일반인들의 유해를 안치한 영탑에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지건길)은 구랍 24일부터 2월 16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유창종 기증 기와 전돌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전은 평생 수집한 1,873점의 와전을 아낌없이 기증한 유창종 서울지검장의 뜻을 기리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동아시아의 와전문화 변천을 한 눈에 조명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와 가운데 불상이 새겨져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보살문수막새'.

유창종씨 기증 기와·전돌 특별전

'보살문수막새' 등 600여점 공개

이번 전시에는 통일신라시대의 보살문수막새를 비롯해 엄선된 600여점의 기와와 전돌이 소개된다. 모두 3부로 구성된 이번 전시회는 우리나라 · 중국 · 일본 및 동남아시아의 와전(瓦塼) 문화를 일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1부에서는 한국와전을 시대와 지역에 따라 비교 전시해 우리 와전의 변천상을 살필 수 있도록 했였다. 특히 통일신라의 '보살문수막새'와 '귀면와 와범(鬼面瓦 瓦范)'은 발견례가 적은 희귀품이며, 발해의 수막새와 명문와(銘文瓦) 또한 일반에게 소개된 예가 드물어 관심을 끈다.

2부의 중국와전 전시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기증자의 체계적인 유물수집에 힘입은 바가 크다. 전국시대의 도철문 반원막새를 비롯하여 진 · 한(秦漢)대부터 명 · 청(明淸)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기와들이 전시된다.

3부의 일본과 동남아시아 와전 역시 국내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일품들이다.

이번에 기증한 유창종 서울지검장은 '기와 검사'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30여년 동안 와전의 수집과 연구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 왔다. '기증을 위한 수집'이라는 기증문화의 새로운 장을 연 유창종 서울지검장은 문화재 수집과 기증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전 개막일인 구랍 23일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앞으로도 국립중앙박물관의 와전 수집품이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돕겠다"는 기증자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하여, 용산 새 박물관에 '유창종실(가칭)'을 설치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박희진 시비 제막식'이 남양주 봉인사에서 열렸다. 사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가 박희진씨.

원로시인 박희진 시비

22일 봉인사서 제막

구랍 22일 남양주 봉인사 부도밭에서 아주 조촐한 시비 제막식이 거행됐다.

시비의 주인은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박희진씨. 느낌표를 형상화 한 시비는 납골함을 안치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박시인이 타계하면 유골을 이 시비에 봉안할 예정이다.

이 시비는 제자들이 마음을 모아 세웠고 박시인은 그저 그 일에 동참했을 뿐이다. 마치 남의 일을 하듯.

서울대 조소과 신형중교수가 시비의 형상을 설계했고 충남 온양에서 석재상을 하고 있는 공병대씨가 비제작을 맡았다. 비신에 박시인의 시 두편을 앞뒤로 새겼는데 서예가 유형재씨의 글씨다. 자리를 제공한 제자는 봉인사 주지 적경스님.

비신의 전면에는 '묘비명'이란 4행시가 적혀 있다.

이 몸은 생전에도 보이지 않게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았으니
나의 시행과 시행 사이
해와 달 별들이 보이면 그 뿐!

제막식에 문인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초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시인은 이유를 짧게 밝혔다.

"나 스스로 묘비에다가 '보이지 않게 살기를 원했다'고 적었는데 이 시비인들 누구에게 보이겠는가?"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송림사 금동제리사리장치(보물 325호).

송림사 금동사리기 제모습 찾아

1년간 보존처리작업…일반 공개

보물 325호인 경북 칠곡 송림사오층전탑 금동제사리장치가 1년여의 보존처리 끝에 제 모습과 색을 되찾았다.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은 24일 "집 모양으로 만든 전각형 사리장치의 기단(건축물의 바닥부분)과 난간 일부가 파손되거나 흔들리는 것을 복원하고 부식된 연판(蓮瓣)의 녹을 제거했다"며 "해충에 의해 갉히거나 부식된 바닥의 목재 역시 약품으로 강화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금동제사리장치는 1959년 송림사 오층전탑(보물 189호) 해체보수 때 탑 2층에서 거북 모양의 돌로 만든 함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체 높이는 14.2cm. 특히 함께 발견된 호리병 모양의 녹색 사리병과 유리잔처럼 만든 녹색 사리용기는 그와 비슷한 예를 찾기 힘든 귀중한 유물이다. 보존처리를 마친 금동제사리장치는 국립대구박물관으로 옮겨 일반에 전시될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첫번째 찬불가음반 내놔

불교소년소녀합창단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의 첫번째 앨범.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이 첫 번째 음반을 선보였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 곡 '얼마나 닦아야 거울 마음 닮을까'를 비롯해 '홀로피는 연꽃', '찬미의 나라', '우리도 부처님 같이', '이별의 노래', '초파일 송가', '불공을 마치며',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등 총 18곡이 수록돼 있다. 황학현 단장은 "어머니 합창단의 연주로 이미지가 굳어 버린 성인 찬불가를 어린이 특유의 미성으로 음반화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며 "천진난만한 선재동자들의 음성으로 듣는 찬불가는 또다른 환희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기획 취지를 설명했다. (02)725-7527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마음으로 붙들고 있지 말고 하루살이로 찰나찰나 놓고 가야

(401호 회보에 이어서)

▲ 질문자3: 고려시대 때 가장 먼저 직지심경 금속 활자본을 만든 이곳 청주에서 스님을 모시고 지원 개원법회를 봉행하게 된 저희들은 큰 영광과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주지원 불자들이 마음 법을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잘 모르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대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 늘 말씀해 오시는 수행 과정에서 방하착하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이 방하착하라는 말씀이 어디에다 어떻게 놓고 생활을 해야 참선이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그런데 방하착을 한다고 하면 이미 방하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참선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진리라는 것이 고정되지 않고 돌아가니까 그대로 놓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딱 쥐고 있지 말고 하루살이로 그냥 찰나찰나 놓고 가라는 말을 안 해도 우리가 지금 그냥 놓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놓고 가면서도 그 마음으로 당겨 잡고 있기 때문에 자꾸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래 놓고 가는 건데 마음으로 놓고 가짐 않으니까 그것을 좀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차적으로, 영 안 놓으니까 '네 뿌리에다 놔라. 네 뿌리만이 네 나무를 푸르르게 살게 할 수 있으니까 네 뿌리에 맡고 놔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서 '아! 내 뿌리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내 뿌리만이 나를 푸르르게 살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믿고 무조건 '너만이 나를 이끌어줄 수 있어.' 하고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방편 중에 제일 첫 번째 관문입니다.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질문자3: 감사합니다. 스님께서 저희들의 질문에 한마음으로 답변해주신 그 자리에 우리 불자들은 머리 속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중생이 한마음이 되어 거룩한 자유인이 되도록 있고 동맥은 동맥대로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죠? 고렇게 비유를 하면 여러분이 잘 납득이 되실 것 같아서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를 정맥 동맥으로 하나로 묶어서 한 번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정맥과 동맥 양면이 돌아가지 않으면 몸 전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맥과 동맥이 둘이 아닌 까닭에 이름해서 정맥은 정맥이라는 이름이 있고 동맥은 동맥이란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산과 물,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인데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롭게 응용하고 살아라 이거지, 산은 어떻고 물은 어떻고 이걸 따지게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목마르면 그냥 떠서 마시고 또 우리가 나무가 필요하면 나무를 가지고 꽃이 필요하면 꽃을 보고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거지, 산도 고정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물도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몸이 바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수화풍이니까요.

▲질문자3: 감사합니다. 스님께서 저희들의 질문에 한마음으로 답변해주신 그 자리에 우리 불자들은 머리 속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중생이 한마음이 되어 거룩한 자유인이 되도록 를 막론해 놓고 재산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자든 못났든 잘났든 그거를 떠나서 하는 공부입니다. 아시겠어요?

▲대중 일동: 예.

▲스님: 못났다고 해서 항상 못난 것이 아니고 잘났다고 해서 항상 잘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습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난하다고 쥐어짜고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넓고 아주 크게 생각하시고 '네 심부름꾼을 이렇게 못나게 태어나게 했어도 너만이 이걸 어쩔 수 있어.' 하고는 그냥 진짜로 믿고 나가보세요. 그럼 대성공을 하실 분들이 여기 여러분 계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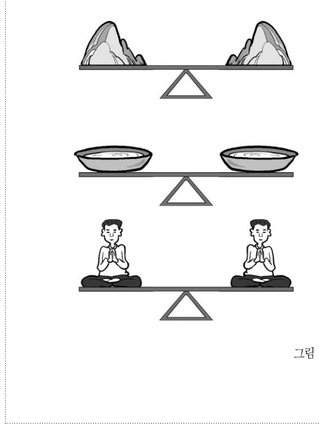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무엇보다도 소중한 관하는 법 어린이한테도 가르쳐주세요

▲질문자3: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야심경에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 이 나오는데, 81년도 퇴옹 성철 큰스님께서 종정으로 추대되시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법어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 나오는 색즉시공 공즉시색과 성철 큰스님께서 말씀하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뜻이 같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같은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도 색도 들이 아닌 까닭에 공은 공대로 있고 색은 색대로 있다는 걸로 비유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른 쉽게 말하면, 그냥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납득이 될 수가 없어요. 들이 아닌 까닭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해야 되겠죠? 뿌리는 한 뿌리인데, 한 뿌리이기 때문에 모습은 다 다를지언정 한 뿌리라는 겁니다. 한 뿌리이기 때문에 한 생명이기 때문에 모습이 다 다르다고 해도, 각계 각층 말입니다. 먹는 것도 천차만별로 먹는 게 따로 있듯이, 곤충이 먹는 게 따로 있고 사람이 먹는 게 따로 있고 짐승이 먹는 게 따로 있듯이, 모두가 천차만별의 그 먹고사는 도리를 전혀 바다로 비유를 해서, 바다를 부처님께서는 삼키고 토해서 만 중생들한테 먹을 거를 알맞도록 내려 자비를 베푸신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주전체 삼라만상 대천세계가 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대천세계를 비유를 할 때 정맥 동맥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어떻습니까? 아주 작게, 이건 현실세계의 정맥 동맥을 말하는 거지만,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한데 합쳐서 정맥 동맥이라고 한다면, 정맥이 없어서도 안 되고 동맥이 없어서도 안 되죠. 그와 같이 정맥 동맥이 들이 아닌 까닭에 정맥은 정맥대로 청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희 불자들은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예! 하여튼 청주에서도 일곱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좀더 리드해 나가는, 모르는 사람들을 더욱더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자력과 통신처를 아주 영민하게 잘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요만한 어린애들에게도 관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거는 재산을 주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보배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어느 신도 집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학생은 아주 정성이 지극하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혈맥이 통하질 못해서 그냥 수북하게 여기가 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너는 네 뿌리를 믿지!" 그러니까 믿는데요. "그걸 안 믿으면 안 되지, 저 나무들 봐라." 그래 일러줬어요. "너는 네 뿌리를 믿고 바로 과거의 네가 살던 영원한 너의 친구다. 현실의 네가 너의 몸을 형성시켜서 과거의 너와 지금 너를 형성시켜 가지고 부착이 돼서, 과거의 네가 현실의 너를 형성시켜서 지금 끌고 가는 거니까 진짜로 믿어봐! 과거의 너는 경험자가 되기 때문에 아주 잘 이끌어줄 거야. 그러니 주인공만이, 네 뿌리만이 너를 아주 이끌어서 병도 낫게 하고 피도 잘 돌게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한마디! 딱! 그런데 한 일주일 가더니 애가 뛸뛸 뛰고 왔어요. 그래서 "너 웬일이냐?" 그러니까 "이게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허허, 이러고 호들갑을 떨더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늙었든 젊었든 남녀 간을 막론하고 재산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자든 간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문자4: 간절히 바라던 지원을 개원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부하는 도중 의정이 생겨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철 나왔다가 육신의 옷을 벗었을 때 신명한 의식만 남는다고 했는데 그 의식은 한 점의 불씨로 분리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한마음 바다에 그냥 있는 것인지요? 알고 싶습니다.

▲스님: 꽃씨가 떨어져서 또 꽃이 피고 하듯이, 연어가 자기 몸통이를 형성시켜 놓고 죽듯이, 우리가 껍데기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다시 입고 다시 형성이 돼서 나오듯 그렇게 한철나에 돌아갑니다. 알고 보면 생사가 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차원이 높으면 차원 높은 끼리끼리 모이고 차원이 낮으면 낮은 대로 끼리끼리 모이고 그래서 소천세계 · 중천세계 · 대천세계가 있다 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세계지 그 세계가 그대로 그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네 마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철에 차원이 높아서 한 발을 벗어놨다면 우리는 세세생생에 끄달리지 않을 겁니다. 생사에도 끄달리지 않을 것이요, 자유스럽게 껄껄 웃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죠. 부처님께서도 자유인이시지, 부처님이라는 이름은 모두들이 아닌 까닭에 부처라고 했고, 돌이 아닌 까닭에 여여하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쟁백 동백이 막 같이 돌아가니까 여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어느 한 분을 가리켜서 부처라고 했던 게 아니고 여래라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자기를 부처로 만드실 수 있다면 됩니다. 지금 금방 말을 들으면서도 조금 아까 뭐라고 끌었는지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하하. 아이구 참!

그림 · 최주현

일체를 둥글러서 한군데다 밀어 넣으세요

▲질문자5: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흥덕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금년 학기말 고사 때였는데 사회과목 시험을 보는데 한 문제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이거 네가 풀어!' 하고 마음 속으로 생각했는데 금방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주먹이 쥐어지고 책상을 내리쳐서 선생님께 주의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공부가 잘된 것인지 알고 싶고, 또 어머니께서 공부 좀 잘하게 큰스님께 말씀드리라고 하셨는데, (대중 웃음) 주인공이 있는데 뭐 하려고 말하느냐고 말해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잠된 공부인가요? 또 주인공을 몇 마디 짧은 말로 쉽게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

▲스님: 야, 참! 넌 어쩌면 그렇게 영리하게 말을 잘 하냐. 그런데 너를 끌고 다니는 너의 뿌리를 믿으라는 거다, 응? 그리고 또 너의 겉눈으로 보는 거 겉귀로 듣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너를 끌고 다니는 진짜 너의 영원한 친구가 있어, 너한테. 그 뿌리가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너만이 잘 끌고 다니고 너만이 물리가 터지게 해줄 수 있잖아.' 생각 안 나면 '네가 물리가 터지게 해서 내 손을 빌리고 내 눈을 빌려서 다 하는 거 아니야.' 하고서 거기다가 말겨, 응? 그게 진짜야! 아니 그런 보배가 어딨니,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재산을 다 물려준다 하더라도 그런 보배는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짜 보배를 정말이지 자아내라. 그래서 앞으로 밝게 살아라. 알았지! 부처님 법이 부처님한테 절만 하고 목탁만 치라는 게 아니다.

▲질문자6: 스님 뵈올 날을 퍼시 기다렸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약 7~8개월 전부터 『無』 『한마음 요전』 또 스님 설법지를 읽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공부가 잘되는 것 같고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스님 법문을 들으러 청주에서 금왕까지 밤새도록 검어가 본 적도 있습니다. 주인공이 얼마나 내 몸의 중생들을 통솔할 수 있나 체험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게 좋아서 밤 11시가 넘으면 산책을 하면서 마음공부를 하는데 내 몸이 나 혼자만의 몸이 아니라고 주인공에 관해 놓아서 그런지 육신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를 가든 주인공이 보호 신이 되어 저의 몸을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법문집을 읽다가도 내가 살고 죽는 것을 정말 다 놓았는가, 유생무생이 한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져서 한밤중에 산에도 가보고 묘지에도 가봅니다. 또 TV를 보면서 무심을 공부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잘못된 수행인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스님: 그것이 허약해서 돌로 보면 잘못되는 것이고 하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면은 오히려 잘 되는 입입니다. 그런데 체험을 하시려고 그런다면 그 모습으로 행을 해서 그렇기도 하고 다가오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일체를 다 한 군데다가만 놓으시고 한 군데서 나오는 줄 아셔야 됩니다. 한 구멍으로 일체를 넣고 한 구멍에서 일체가 나고 든다는 거를 아시면 건전히 한 군데서 나오고 한 군데로 든다 이 소립니다. 그렇게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놈도 그 놈이고, 체험을 하게 하는 놈도 그 놈입니다. 그게 아직 납득이 안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에 한 군데로, 한 군데로만 하세요. '너만이 체험을 하게 할 수 있어, 너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어,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할 수 있어.' 하는 거요. 모든 거름요.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일체 다요. 그래야 옛날의 선지식들이, 바다를 삼키고 바다를 토했노라. 토해서 만 중생들에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귀를 뜨게 하고 또는 눈을 뜨게 하고 모든 자비를 베풉어 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체가 한 군데로 나고 한 군데로 드는 것이라는 걸 진짜로 믿고 하세요.

▲질문자6: 두번째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주인공에 관해 놓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문구가 떠오르면서 주인공 불씨와 지구 핵 불덩어리와 우주의 중심 태양이 같은 에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 온몸 전체에 땀구멍으로 이상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그때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다 한 손에 넣을 수 있어야 한다는 스님 말씀이 생각나서 우주를 즐여서 손에 넣어 보려고 했으나 줄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꿈에는 온 몸이 한 여름에 아이스크림 녹듯이 다 녹으면서 가벼워졌는데 잠을 깨고 나서도 그런 현상이 한참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그런 상태를 또 한번 체험해 보려고 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공부가 잘못되고 있는 건지 잘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스님: 한번 우리가 발자국을 떼어놨으면 그 발자국 돌아간 거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시 새로이 발자국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뒷걸음질을 쳐서 알았으니까 그러는 게 되죠. 앞으로 뛴 것도 뒤로 뒤로 뛴 것도 않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대로 앞으로 체험을 그냥 해나가는 거지 그거를 잡고 늘어지지 마세요. 한번 체험했으면 그대로 또 걸어가면서 다른 것을 체험을 하고 놔야지 그걸 붙잡고 계시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생명의 근본과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는, 지금 말을 하고 몸이 움죽거리는 것이 따로 따로 있습니까, 어디? 그게 삼라만상 대천세계로 비유해도 됩니다. 한꺼번에 거머쥐고 지금 사람이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자6: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주가 다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걸 즐이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스님: 아니요! 죽이는 게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같이 동시에 돌아갈 뿐이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애를 쓰지 말고 살리려고 애를 쓰지 마라 이 소립니다. 그대로 밝은 불일 뿐이에요.

▲질문자6: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오래 전부터 천주교를 믿어왔습니다. 저는 마음에 닿지 않아서 잘 가지 않았지만 어머님은 굉장히 열성적이십니다. 지난 늦가을부터 몸이 편찮으신데 다른 신앙인들이 편견을 갖고 있듯이 저를 싫어하십니다. 그래 부처님과 천주님이 이를만 다를 뿐 한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시고 완고하셔서 마음의 문을 닫으시고 기복으로 기도만 하시는데, 제가 한마음 주인공에 관해도 공부가 짧아서 그런지 어머니 병환에 차도가 없습니다. 무슨 방편이 없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스님: 한생각으로 아량을 베풀면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머니는 어머니고 나는 나고 이렇게, 어머니가 생각을 들로 보시니까 그릇이 없어서 담기지 않는 겁니죠. 그러니까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아드님이 아무리 죄도 받질 않으니까 그 병이 낫습니까.

전에 외국에나 이런 데 가서 가만히 종교 믿는 거를 봐도 그렇고요, 모두가 상대를 놓고 들로 보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교라는 것이 그대로, 단어 그대로 불교는 진리거든요. 불(佛)은 일체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일체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들아가고 말과 말이 통해서 돌아가고 통신을 하고 뜻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교(敎)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개별적인 어떠한 종교를 불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 안에 전체가, 불교가 진리이니까 불교 안에 전체의 종교가 있는 거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리세요. '어머니 몸이 나무라면 그 나무의 뿌리는 바로 어머니 마음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 속의 그 주님

☞ 38면으로 계속

일체가 한곳에서 나고 드는 것 진짜로 믿고 맡겨놓으세요

☞ 37면에서 계속

을 진짜로 믿으세요. 바깥으로 찾지 마시구요.' 라고 말씀드리세요. 주님은 나한테 있습니다. 주님만이 몸을 이끌어서 낮게 할 수 있으니까 안으로 찾으라는 그 도리만 일러드리세요. 그러면 대번에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질문자6: 그런데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시나 하면요, '천주님이나 하느님이 여지껏 높으신 데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감히 내 속에 있다고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합수가 있느냐?'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놓으신 분하고…, 너무 황송한 얘기가 아니냐고 하시는 거죠.

▲스님: 아이고 참 내! 그렇게 황송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지 않느냐고 그러세요. 당신이 없다면 천주가 어디 있고 부처가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이 없다면 무효라구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생긴 거고, 상대가 생겼기 때문에 부처고 예수고 천주님이고 만주님이고 다 있는 것이지 내가 없는데 뭐가 있어요. 이렇게 나간 사람이에요.

▲질문자6: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마음 주인공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대로 스님을 스승님으로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가까이서 이렇게 뵈었으니 정식으로 스님께 통신망을 연결하겠습니다. 엷심히 정진할 수 있도록 한마음 내주십시오.

▲스님: 예! 그런데 여러분 마음 속에다 항상 주장자를 세우고, 내 모습을 믿지 마시고 내 모습을 찾지 마시고, 때에 따라서는 보고 싶을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마음으로서 항상 들 하니게 그저 '일체제불' 한다면 스님까지도 참부된다는 겔. 끝이다가 모두 마음으로 둥글려서, 아! 돈도 안 드는데 왜 마음대로 못합니까? 둥글려서 하나로 자기 뿌리에다가 그냥 붐부해 놓고서 다 거기에다 맡기세요.

아니, 마음을 그렇게 쓰는 데 돈이 든다면 가난해서 못 한다고 하겠지만 마음 씀씀이를 그렇게 쓰는데 무슨 돈이 듭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마음대로 못하겠습니까? 그저 일체를 둥글려서 한 군데에다가 맡어 넣으세요.

▲질문자7: 감사합니다. 저는 청년회에 다니고 있는 법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꾸었는데, 꿈 이야기를 한 뒤 질문을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며칠 전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스님께서 제자들이 못마땅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향하여 마구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모습은 제가 전에 상상을 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님을 대하면서 저는 그것이 하나의 놀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묵묵히 내면의 주인공을 향하여 '주인공, 이러면 안 되지!' 라고 관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펴부으시던 화가 제게 와서는 오히려 측복이 되어 쏟아지는 법열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스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하시든지 또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실망하지 않습니다. 스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을 깨고 나서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을 스님 대하듯 믿고 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하지만 실제 저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면 본래 화낼 것이 없음을 알면서도 덩달아 화를 내기도 하고, 상대방의 심망스러운 모습을 보면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도 뒤돌아서서 흉을 보기도 하고 또한 괜히 마음을 비비꼬아서 혼자 신경질을 내는 때도 있어 이 마음의 작용이 우습기도 하였습니다.

스님께서는 일체 만법이 주인공 자리에서 들고 나는 것을 믿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참선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모든 사람들을 스님처럼 대한다면 결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서 우선 제가 편안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편안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 아니 사람뿐만 아니라 축생에서부터 나무, 풀, 미물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 유정 무정, 우주의 만물만생을 스님 대하듯 대할 수 있기를 진정코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요즘은 쌀 개방 문제로 나라 전체가 시끌벅적합니다. 쌀 개방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쌀 개방 절대 불가를 외치며 삭발 단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자신이 볼 때는 어떠한 선택이 과연 올바른 해결 방법인지 아리송할 뿐이며, 그냥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만 느낄 뿐입니다. 그냥 이 문제를 '정치인들이 잘하겠지.' 하고 정치인들에게 일임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주인공이 잘 알아서 이끌어가겠지.' 하고 오로지 주인공에 맡기며 무심하게 지내야 하는 것인지, 나라 전체의 이해가 걸린 쌀 개방 문제에 대하여 스님께서는 어떻게 한마음을 내고 계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스님: 그런데 말이에요. 물이 흐르는데 어떤 것이 들어온다고 해서 흐르는 물이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조금도 걸리지 않고 돌아갈 뿐입니다. 물이 말입니다. 어떤 게 닥치든지 돌아가고 웅덩이가 있으면 거길 채우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이건 우리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마디로 말을 해서 그 쌀문제 때문에 맡이 있을 때 '그저 3분의 1 이래도 받아들여야 되겠지, 저거 안 받아들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전체가 쌀 문제만 가지고 거론이 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



그림 · 최주현

시비를 걸지 않는 물처럼 지혜롭게 살아가세요

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고 하나가 내려가면 하나가 올라오고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한국문제 세계문제로 다 포함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구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지금 지혜가 풍부하다면 한국에서 엷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 한국의 쌀을 엷지 않고 항상 소비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내든가, 그렇게 되면 여러운 사람은 살기가 좀더 낫지 않을까, 쌀값이 싸기 때문에 말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그 쌀을 먹고 좀 저거한 사람들도 또 그 쌀 먹고 이렇게 하면서 나갈 수 있는, 엷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죠.

그것도 스스로서 여러분이 마음의 지혜를 잘 응용해야만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마음의 지혜를 잘 낼 수만 있다면 큰 폭으로 아주 성과를 얻을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하면 절반, 그렇지 못하면 3분의 1, 이렇게 얻을 수 있죠. 그거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느냐는 그런 제안이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물 흐르는 대로 순리적으로 살아나가는 거지 강제적으로 살아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안 받아야겠다, 이거를 받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거를 지혜롭게 대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개인적으로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단 하나 지혜가 부족하면 그렇게 되는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마음놀음이에요, 전부.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됩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지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 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재부 (02)737-0080(불)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그렇게 들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 허허허. 잘하면 3분의 2는 건질 수 있다는, 우리 쌀을 가지고 잘하면 말입니다. 한국에서 농사짓는 것도 폭락이 되지 않고 스스로 지금처럼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지금도 뭐 그렇게 잘 저거 하나요? 농사지어서 떼 부자 된 사람 봤어요? 하하하.

다 한마음으로 뭉쳐서, 농사짓는 사람들도 한마음으로 뭉쳐서 생산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소화를 잘 시켜서 먹게끔 하느냐 이게 문제죠. 소비를 얼마만큼 갖은 각색으로 하게 만들어서 잘 먹혀 들어가게 해서 먹게 하느냐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게 하면 될 것도 같구요.

▲질문자8: 스님! 제 딸이 한 20일 전부터 아무 원인 없이 검음을 걷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도 전혀 이상이 없대요. 제가 고생을 많이 하고 진작 안 해본 것이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선원에 다니는 잘 아는 언니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라고 일러주었어요. 그래서 그 날부터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빨래를 하면서도 관하고 설겆이를 하면서도 '주인공, 너만이 내 딸을 살릴 수 있어!' 하고 열심히 관했습니다.

▲스님: 그렇죠!

▲질문자8: 그래서 그런지 애가 좀 활기가 있어 보이고 병랑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데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토하고 해서 올 수가 없게 됐어요.

▲스님: 당신 믿음을 보려고 그런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발전을 해서, 여러분이 때에 따라서 아프면 의사가 되고, 때에 따라서 병이 짧으면 침성이 되고, 또 좋은 데로 못 가면 지장이 되고, 가는하면 관세음이 되고, 들에 가면 지신이 되고,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그 한마음 안에서 마음대로 나와서 함이 없이 보이지 않게 활용을 하니까, 보이지 않게 활용을 하는 것이 보이는 데 탁탁 나오니까, 잘해 보세요.

▲질문자8: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 일체 호법신이 되라는 얘기인데…. 엊그저께 어느 신도가 다리를 못 쓰는 애를 데리고 왔는데 두 다리로 딛지도 못한다더니 저녁에는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하하하, 그 얼마나 마음들이 모두, 아! 병원에 있는 걸 끄집어 내가지고 그냥 달려왔대요. 병원에서는 어떠한 병인지 이게, 그런 자세한 말은 하기 싫고, 끄집어 가지고 그냥 왔더라구요. 그런데 보니까 두 양쪽을 이렇게 들고 왔는데 그런데 갈 때는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여러분 마음의 능력이 달려 있습니다.

※위 법문은 1993년 12월 12일 청주지원 개원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